

아가페

2014년 40주년 특집호

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순서

- 6 에벤에셀 하나님
김성국 담임목사
- 8 기도는 생명, 승리, 축복이다
장영춘 목사
- 10 “다시”의 은총
김성국 담임목사
- 13 기도의 원칙
조지 물러
- 14 진리의 기둥과 터
편집부
- 18 교회를 위한 기도
편집부
- 20 교회 설립 40주년에 드리는 감사
허경화 장로
- 22 하나님께 감사
김용생 장로
- 23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
Dorothy Law Nolte
- 24 40년, 그 은혜
윤영철 장로
- 26 일어나자, 힘을 모으자!
전성호 장로
- 28 영어예배부의 미래
정성호 장로
- 30 하나님 보시기에
이무근 장로
- 32 걸어온 40년, 걸어갈 40년
이근우 장로
- 34 주님이 함께 한 은총의 40년,
함께 할 비전의 40년
홍한나 집사
- 36 천국에서 보내오는 십일조
김기호 장로
- 38 소망의 언덕에서 누리는
안식과 축복
정혜경 권사
- 40 친구의 물음
계화자 전도사
- 42 내가 심방원이 되기까지
이귀순 전도사
- 44 퀸즈장로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왜 지금인가?
최원일 집사
- 48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교회
최효진 집사
- 51 감사
- 52 40 vs 40
이정훈 집사
- 59 엘리자베스 황태후의 연설
- 60 제1기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마치고
임 정 장로
- 62 감사! 감사! 또 감사!
김귀옥 권사
- 64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찬 행복한 여름휴가
편집부
- 68 밀알이 되겠습니다
고부영 전도사
- 72 40주년 축복이 흐르는 찬양축제를
마치면서
이광윤 집사
- 77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 78 ‘Forever Young’
김지현 집사
- 80 마라나타, 어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수진 집사
- 82 플래싱 커뮤니티와 함께한
Fall Family Festival
박정봉 집사
- 84 Fall Family Festival 설교
박은호
- 88 40살의 장년이 된 우리 교회와 고 황동오
장로님을 추억하며
황은애 권사
- 90 퀸즈장로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박혜진 성도
- 92 퀸즈장로교회의 선교사명
장봉석 장로
- 94 그의 나라를 위하여 7바퀴 반
김원도 장로
- 104 아민! 아민! 아민!
함미희 전도사
- 106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선교 역사
김관중 선교사
- 111 우정과 사랑
- 112 하나 됨
성현규 집사
- 114 중국의 아침 다섯시
이애령 집사
- 116 그리운 퀸즈장로교회
한창렬 집사
- 118 좀무리업수어 따오내아 썩싸바이때?
박수영 선교사
- 122 세계를 품는 아이들
박정은 전도사
- 124 고등부 2014 필라 내지 선교
신혜지/손사라/정희영
- 128 Testimony
허남준
- 130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
최진식 집사
- 134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며
박세은 교우
- 136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박수영 선교사
- 140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노을
심의례 전도사
- 142 나의 나 된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황혜옥 전도사

146 2세들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국학교
김경순 사모

148 아가페 유치원
박은영 집사

150 어머니, 예뻐지셨습니다
이양미 전도사

152 앞서가는 교육, 시대를 분별하는 교육
조성운 목사

158 황금률의 진실
김재형 목사

162 부흥과 죽음
오인수 목사

170 치유와 회복
배인구 전도사

176 영아기의 신앙 교육과 교육 실태 및 비전
이명옥 전도사

194 변화된 삶, 변화시키는 삶
박성권 전도사

198 Unique Narrative
배형민 전도사

206 갈멜산
오차인 전도사

207 가을 새벽 부흥회
편집부

211 교직원 가족 수련회
박선해 사모

214 제8회 태아교실을 마치고
이유태 집사

216 제8회 태아교실 참가기
박수연 집사

218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영아부의 예배
박양부 장로

220 영아부를 졸업하며...
문승재 집사

222 영아부를 졸업하고 이제는 교사가 되어
차빛나 교사

224 기도의 무릎!
강지영 전도사

226 믿음 안에서 자라요
임경민 집사

228 나의 신앙 고백
길정애 교사

230 In God's Love, Bear Fruit
황옥지 교사

232 Hello!
최승주 어린이

233 Thanking God for my time as 유년부
이효리

234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최지혜 교사

236 WOW! AWANA
차평화 전도사

240 오피션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구자현

242 예수님의 꿈
지미령

244 일어나라 부흥의 세대여!
신예지

246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박재상

248 사랑이 빛나는 밤에
이동훈

250 사순절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최효연

252 John 3:16
김근희

254 QPEM 영어예배

256 뒤를 돌아보며 앞을 바라보길
김도현 목사

274 간증
최시몽 집사

282 퀸즈장로교회에서 나의 QPEM과 한국사
역에 대한 경험
홍정택

288 제자훈련
신성재 집사

292 남전도회 제자훈련
윤지현 집사

296 대학부
민정근 전도사

298 청년부
오세희

300 자모 기도회
Mary Cho

302 구역모임
윤도리 집사

304 경배와 찬양
이사라

306 가을수련회
방제시카

312 새 교회당과 QPEM의 미래
황태현 집사

318 편집을 마치며...
편집부





에벤에셀 하나님

God of Ebenezer

김성국 담임 목사

이민의 땅, 기회의 땅 미국.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문을 두드리는 나라.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는 40년 전에 설립 되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소수였던 한국인들은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이민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인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말씀 중심의 퀸즈장로교회는 목마른 사슴이 만난 샘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흠뻑 젖어있던 신앙의 보수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뉴욕의 개혁성을 견비한 퀸즈장로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여 많은 한인 1세대들과 그 자녀들이 예배하고 배우고 모이기에 편리한 예배당, 교육관, 파킹장 등을 세워 나갔습니다. 공간의 확장은 수단이었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 한인이민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예배드리며 훈련하는 자리요, 수많은 프로그램 통해 우리가 더불어 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자리요, 열방 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as founded 40 years ago in New York. During that time America was a land of opportunity; by the thousands immigrants would knock on its doors with the American Dream in their hearts. Our first generation immigrant parents were no different. Though they were just a small percentage of all immigrants, they arrived and quickly started a new life here. They were both excited and afraid of their future. Within that contex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was a stream of living water for life for all Korean American immigrants. The Church taught the Holy Scriptures knowing full well that it contained the authority of God, which had supreme authority over all life.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as conservative yet thoroughly reformed. Influenced by the spirituality of Korean Church, the church retained its conservativeness—the Word of God remained central in all things. Yet at the same time, the church followed its reformed heritage. It remained fully committed to its core, Scripture, but remained open to change in every way, in a way similar to New York. With this balance the church continued to thrive. It eventually built its own Chapel, Sunday School building, and parking lot. The 1st generations immigrants along their children gathered, learned the Word of God, and worshiped together. We must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this physical expansion of the

숨 가쁘게 달려온 40년, 또 주님의 날까지 달려 갈 나날들. 그 가장 위대한 동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자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운 기념비적 돌입니다. (사무엘상 7:12)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적 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13-14) 3000년 전, 그때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에벤에셀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은 역사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뜨거운 도전을 줍니다.

긴 듯한 40년이 역사의 눈길로 볼 때 너무 짧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민 땅에서 한 세대의 한인이민자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퀸즈장로교회는 과거에 묻혀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눈을 번뜩이며 이 땅의 성공 기회만을 좇느라 분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보여주는 영원을 붙잡으라고 목 놓아 외칠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미국역사, 이민역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도우실 에벤에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church's building was no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in number, but primarily for our church to be used as an instrument for organic spiritual growth. The facilities were places where Korean immigrants could come and be nurtured and trained to become people for the kingdom of God. It was a furnace of prayer for mission to all nations. Looking back forty years and the hard journey that the church has been on, its source of strength was in no doubt God. "Ebenezer" in Hebrew means "stone of help." After the Israelites won a battle against Philistine, they built a stone monument between Mizpah and shen to commemorate their victory. Knowing full well their victory was not by their might, but by the help of God, they named the place Ebenezer (1Sam. 7:12). However "ebenezer" was not just a monument to commemorate the past. It was also a stepping-stone for the future generation (1Sam 7:13-14). They built the monument in faith and full hope that the God who had helped them for three thousand years would continue to remain faithful. This event still challenges and reminds us that we, as well must not rest, but move on towards the future until the final day.

Forty years of history for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is surely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at the same time, in the broader perspective of history, it is but a drop in the bucket. If we remain content with just these forty year, then we will only be considered as a church that is short-sighted, segregated, and even selfish. God certainly does not will for his church to remain static and passive at the place where we st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ill refuse to rest in the past and settle in present comforts, but will continue to strive towards future. It is because first, we all are well aware that our spiritual race has not ended yet. Second, it is still our responsibility to continue to spread the gospel to the people of this world who are busy pursuing after their own ambitions for vain success. And, finally, it is because our God, the God of Ebenezer, the God who helps us, will be with us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기도는 생명, 승리, 축복이다

Prayer is Life, Victory, and Blessing

장영춘 원로 목사

성경의 역사는 기도로 점철된 역사이다.
크고 작은 사건 사건은 모두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숨쉬는 행위이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는 것같이 기도를 쉬는 자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도가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 있는 증거이다. 기도는 곧 생명이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기도는 승리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극적인 승리의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전선에 내보낸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피곤해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피곤해진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려 기도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려고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출옥시켰고 반대로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The history of the Bible is one that has been marked by prayer. All the events, great or small, can be seen as having been resolved through prayer.

Prayer is life. Prayer is the act of man's breath towards God. Just as man dies when he no longer breathes, the one who stops praying is a man whose spiritual life is dying away. If one's prayer life is active it is evidence that his spirit is alive. Because prayer is life, the Bible exhorts us to pray without ceasing.

Prayer is victory. Behi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s victory was prayer. In the days of the Exodus, Moses who had sent Joshua out to the battlefield in the war between Israel and the Amalekites, stood on a hilltop and raised his hands in prayer. Whenever Moses who grew tired lowered his hands, the Amalekites would win, but when he raised his arms, the Israelites would win. That is why Aaron and Hur helped him keep his hands up in prayer so that the Israelites had victory.

During the time Herod had James killed by the sword, and Peter imprisoned in order to wipe out the early Jerusalem church, the Christians earnestly prayed to God. The almighty God heard their prayer and sent an angel to break Peter out of prison while on the other hand, He had Herod die from being eaten by worms.

기도는 곧 승리이다. 기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온갖 비극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열쇠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벳세다 빈 들에 모여든 수 많은 군중들은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하루 종일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 갔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남자 오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다.

쪼지 물러는 빈 손으로 고아원을 시작하였으나 수백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하였는데 그 비결은 오직 기도였다고 고백하였다.

기도 그것은 축복이다. 가난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병고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절망과 고독, 실패의 때에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에스더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개혁자들같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같이.

기도는 곧 나의 생명!

나의 승리!

나의 축복이다!

Prayer is indeed victory. As long as there is prayer there is no defeat. Prayer is the key to overcoming Satan, disease, and all kinds of tragedy.

Prayer is blessing. The vast multitudes that gathered in a remote place in Bethseda in order to hear Jesus' message and to be healed by him, had not had even a piece of bread to eat though evening was drawing near. The disciples went to Jesus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t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When the disciples answered, “We have here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Jesus directed the crowds to sit down on the grass, prayed to God in heaven, and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out. There were twelve basketfuls of leftover broken pieces after five thousand men had eaten.

Although George Mueller started an orphanage empty-handed, he fed and nurtured several hundred orphans; he confided that the secret lay in pr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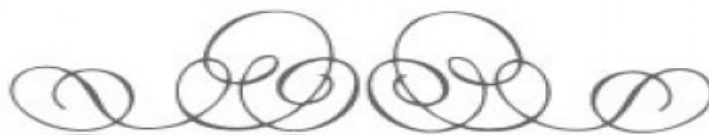
Prayer—that is blessing. Even poverty can be overcome by prayer. Sickness can be driven away through prayer. In times of despair, loneliness, and failure, pray. Just put your solid trust in the Sovereign God the Father and pray and pray again. If you do not give up but continue to pray, you will surely be blessed by God.

Why do you despair when you can pray? Why do you fear when you can pray? Why do you get discouraged when you can pray? Let us pray, pray, pray! Like Moses, David, Esther, Peter, Paul, the reformists, and the faithful saints who came before us.

Prayer is indeed my life!

My victory!

My blessing!



“다시”의 은총(예레미야 31장 1~6절)

The Blessing of “Again” (Jeremiah 31:1-6)

김성국 담임 목사

자동차가 리콜 된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있는 차라도 엔진, 브레이크, 핸들, 에어백 등에 결함이 있으면 다시 고쳐주겠다며 리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리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신앙을 다시 고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원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 무궁한 사랑은 이전에도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1절)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2절) 하나님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3절)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곁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렘 18:15-16) 하나님은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그들 위에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할 터이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1.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쓰러진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

We see many major car companies do recall services. Even if they are a well-known major car company, if they find any safety-related defect, the automaker will alert owners to the problem and offer repairs free of charge. There are times when our spiritual life needs a recall as well. Whenever we find that we are away from God that is an indication that restoration is needed. And it is the eternal love of God that is the source of one's restoration.

By His eternal love, God did amazing things for his people to save them from the misery of sin. By His love, He called His people (v.1), made them survive the sword, and gave them rest (v.2). God clearly said to His people,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 kindness.” However, His people, did not accept his love, but loved other things and stumbled in their ways and walked in bypaths and on the roads not built up (Jer.18:15-16). Seeing this, God was supposed to abandon them and pour out his anger upon them. But instead He says that He will restore them “again.” What kind of restoration would be brought upon them when the eternal love of God is outpoured on people of Israel?

1. They will rise up again

God calls to fallen Israel again and says to them, “I will build

요”(4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궁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을 다시 일으킵니다.(잠 24:16)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실패로 쓰러진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쓰러진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큰 죄로 쓰러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낙심에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내던지고 쓰러진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쓰러져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쓰러져 있고, 왜 포기하고,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넘어짐의 약속은 없지만 일으킴의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 얻게 될 영적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 다시 즐거워한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즐거움을 잃은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기쁨, 즐거움이셨습니다. 잠언 8장에는 예수님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날마다 기뻐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셨습니다.(잠 8:30) 예수님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뒤의 즐거움을 보시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히 12:2)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였습니다.(살전 1:6) 참된 교회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렘 31:13)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십니다.(시 97:11)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25:21)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는 더 이상 우울해 하거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you up again and you will be rebuilt, O Virgin Israel" (v.4). No matter how many times they fall, God will raise them up again (Prov. 24:16)

God raised up Naomi who was distressed by poverty and failure. He raised up Job who was suffering from the pain of diseases. He raised up David who fell to a great sin. He raised up Elijah who was in disappointment and despair. He raised up Jonah who once gave up his calling. He raised up Peter who once betrayed Jesus. Regardless of who they are or how serious their sins may be, God is more than able to raise us up from those things. Therefore do not be in despair! Do not give up! Do not say that you cannot do it because we have God who is full of love! The Bible never says that you will never fall. However there is the promise that God will raise you up from the place you have fallen because you are still in the hand of God. He is only training you to become stronger. This promise can be seen plainly all throughout the Bible. Now, therefore, hold God's hand and rise up again!

2. They will rejoice again

One characteristic of people who are in spiritual depression is that they have no joy in their life. God's eternal love restores joy back into life of his people. During his life on the earth, Jesus was full of joy and gladness. In Proverbs 8, as Jesus is typified as 'wisdom,' he described as one who always rejoices (Prov. 8:30). Jesus, in gospels of the New Testament, though he had to suffer the cross, still rejoices for the joy that will come after. The Thessalonians, as imitators of Jesus, were able to rejoice in spite of severe suffering (Thess. 1:6). The true church is a community where people rejoice together.

God shines his light of joy upon His people (Ps. 97:11). He tells us to come to the light and share his happiness in Him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천국의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먼저 잃어버린 하늘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3. 다시 축복을 받는다.

심을 땅이 없고, 심을 종자가 없고, 심어도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을 땅, 심을 종자,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축복받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 2:17-19)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부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회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리콜 되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이 “다시”의 은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다시”의 은총을 모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Matt.25:21). God, our master, is a God of joy. Heaven is a kingdom of joy. As people in His Kingdom, we must no longer be in despair but shed the light of God's joy upon this world of darkness.

3. They will be blessed again

It is a curse that one does not have the right grounds to bear fruit. It is a curse that one does not have seed to bear fruit. It is also a curse that one cannot bear fruit even if he has both seed and good ground; even if seed is sowed upon it, it does not bear fruit. Israel was experiencing this curse. But God would restore them back and bless them so that they would be able to bear fruit. There is one thing that we must do—recount the blessings of God, repent of our ingratitude, and give thanks to Him (Hag. 2:17-19). Then, we may be blessed by his grace, once again!

Dear people of God,

We all need the blessing of “again.” Our spiritual life must be recalled and restored. Rise up again! Rejoice again! Be blessed again! May we all be blessed by the blessing of “again!”



조지 뮐러의 기도 원칙

평생 '52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뮐러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기도에는 다음 6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 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
- ②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
- ③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 ④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
- 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
- ⑥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

'원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은 조지 뮐러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뮐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52번'의 기도응답을 부러워할 하는 성도가 아니라,
'52번' 이상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구한 날과 받은 날을 적어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

*아가페 제1호(주후1975년 2월23일)에 실린 글을 다시 한번 기재합니다.



오늘 이 의미 깊은 본 교회 첫돌 기념예배에 즈음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과 봉사로 헌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말할 때에 그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일반적인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구약에서는 KAHAL 즉 부른다, TO CALL로써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고 있습니다(출12:6). 다음 신약성경에서는 EKKLESSIA 즉 불러낸다,

TO CALL OUT (계2:8) 로써 이상 두 용어가 모두 하나님의 부름 받은 회중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유적으로 사용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11:17, 사56:7, <그리스도의 몸> 고전 12:27, 엠1:23, 골1:18, <성령의 집> 고전 3:16, 뱀전2:5 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유형한 건물 곧 예배당을 가리키는 경향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의 핵심을 딤펢전3:14-16에서 찾

아보고자 합니다. <이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즉 교회란 진리에 터하여 그 진리를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1) 기둥은 곧 힘을 말합니다.

기둥은 전체를 버티고 서 있는 생명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라고 한 것은 깊은 성경적 배경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28:18을 보면 기념의 돌기둥에 관하여 야곱은 그 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출13:21,22, 14:19,25 민14:14, 40:36등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은 불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진리의 기둥이란 하나님의 거처, 임재, 역사, 지시등의 성서적 배경에서 한 말입니다.

2) 터는 기초, 근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마16:18<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는 남성 명사대신 중성명사로써의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 반석 즉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말씀은 교회가 지니는 생명적인 요소에 역점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즉 행동적인면, 실천적인면, 현대사 적인 의미에 치중한 교회의 다이나믹한 기능을 말하여 줍니다.

3) 기둥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하여 봅시다.

기둥의 특질은 곧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참되고 바른 것이 기둥이 지니는 특성입니다. 기둥의 버티고 서 있는 힘입니다. 기둥은 쉼 없이 그 건물을 버티고 서어야 합니다. 기둥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불변적이어야 합니다. 강산은 변하고 역사는 지나가되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영원하여야 합니다.

2. 교회는 진리를 버티고 서 있는 기둥입니다

교회는 사회정의에 앞장서면 진리의 구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여 예언자적 자세로 진리의 불기둥으로써 그 햇불을 높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선행하여야 할 교회의 본래적 의무와 사명은 기둥처럼 높이 진리를 옹호하며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내용은 예수그리스도 이십니다. 지상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오로지 말씀의 전파입니다. 교회가 이적은 행하지 못해도 진리를 전파하는데 성공하면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즉 요10:14에 세례 요한이 이적은 행하지 못했을까라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한 것과 같이 교회가 늘 참말을 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기둥인 교회는 이 말씀이 쉼 없이 또 정확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21:11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파수군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케 하였습니다. 즉 <파수군 이어 밤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며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을 밤 낮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교회의 본질은 격조 높은 말씀의 전파 즉 말씀 중심의 메시지와 거기 따른 생활이 수반되는 교인들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참된 교회운동의 시동이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중세의 부패한 교회의 전통을 깨부수고 성직의 허식과 권위를 고발하며 고질화된 DOGMA를 여지없이 배격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무너져 가는 중세교회를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운명을 쌍견에 걸머지고 나선 루터라는 인격의 기둥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 그는 온갖 박해와 모함과 위험을 겪는 중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참되어야 한다. 또 내가 꼭 이기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싸움을 그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한 믿음의 장부 'SOLA FELETHE'의 사람 루터는 독일지역에서 진리의 기둥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즉 'SOLA GLORIA'의 사람 칼빈은 스위스를 중심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 이 진리의 두 기둥에 의하여 중세의 암흑세계는 차차 그 진리의 빛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회의 현대사적 본질은 언제나 산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치나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말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만이 외쳐지는 생명의 샘터와 진리의 햇불이 되기를 염원하며 노력합니다.

3. 이와 같이 성도가 사랑으로 주께 뭉쳐 봉사하자

지상교회의 기둥으로써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도된 우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친교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모두 한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롬12:5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했고 엡2: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의 지체란 위미를 고찰해 봅시다. 얼마나 그들이 친한가, 배가고프면 입이 수고하여 먹습니다. 그 때 혀는 맛을 즐깁니다. 손은 수고를 계속하나 불평이 없습니다. 걸어갈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른 발은 힘을 주어 뒤로 양보하여 줍니다. 눈에 가시를 안 들어 보내려고 눈썹은 쉬지 않고 보초를 서 줍니다. 그러나 불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에 많은 지체 되는 것을 인식하며 서로 믿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의 집을 세워나갈 책임

이 우리들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좋은 모본을 오고 오는 교회에게 보여줍니다.(행2:42-49)

1)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2)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 하였습니다.

3)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습니다.

4)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5)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6)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7)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산 돌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만세 반석이십니다. 이 진리의 터에다 기둥을 세운 집 즉 주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대가족 크리스천은 사랑의 울타리를 두르고 소망으로 지붕을 삼아 역사와 사회에 정의와 진리를 버티고 선 세기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은 암흑한 세기에 밝은 길잡이, 햇불이 되어 미로에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을 비추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이 굳게 서서 이지러진 20세기 후반에 위험, 몰락 직전에 있는 집을 부축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아오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이 고깃덩이를 생각할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6척도 못되는 우리들 자신이 진리의 기둥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교회는

이 시대, 이 세계,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의 축복 내린 주소서



편집부

2014년 2월23일 주일 오후 5시에 교회설립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QPEM(영어예배)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예배라 그 감격과 감사가 배로 넘쳤습니다. 장년 한어권과 청년 영어권, 청소년,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의 사회로 특별영상과 글로리아 중창단의 힘찬 서창이 있는 후, 세대를 넘나드는 이규성장로님과 QPEM의 신성재 집사님의기도와 찬양대의 찬양이 있던 후 담임 김성국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15~26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한 기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 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온 우리 퀸즈장로 교회... 앞으로, 40년의 역사를 기도로 열어가기 바라며,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란 구별이란 뜻입니다. 세속으로 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지금은 40여 년 전과 다르게, 세상도, 교회도, 너무 변질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온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붙잡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힘을 얻었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3)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교회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며, 이 땅에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4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와 있습니다. 점점 구원의 열정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우리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주님 다실 오실날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후, 강혜영 집사님의 화답송, QPEM(영어예배) 최시몽 집사님의 간증과 온 세대가 어우러져, 특별히 차세대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지금은 엘리야때 처럼” 모세의 때에 시작된 언약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성취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음을 감사하며, 심판과 구원의 때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 후, 장영춘 원로 목사님께 감사패를 증정 하였습니다. 평생을 복음만을 외치시고,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헌신하신 그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돌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축도 후에 있었던, 전체 교인 사진 촬영을 통해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의 축복 내리 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 쉬는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천사 찬양소리 들리는 기적들이 행해지는 곳,
여기는 내 주의 교회봉사와 헌신이 있으며,
사랑과 충성이 함께 하는 곳
주의나라 주의영광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찬양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

참된 복음과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는 주의 영광 빛나는 교회

축복을 내리 주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주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주소서 (아 멘)

교회 설립 40주년에 드리는 감사



허경화 장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크신 은혜로 40년 전에 이곳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73년 9월에 부르클린 한 교우 가정에서 장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는 1974년 2월24일 주일에 60여명의 교인들이 장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설립예배를 드렸으니 그 때에 출생한 아이들이 이제는 40대의 장년이 되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된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1975년 2월 23일주일, 교회 설립1주년 기념예배에 처음 출석하여 지금까지 39년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순수한 복음의 말씀만을 설교하는 강단,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이 드물던 때에 주일이 되면 우리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던 기쁨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40대 초반의 장영춘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미남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일설교는 어려운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내 육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장 목사님은 목회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용한 기도처에서 금식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평안하게 해결하여 주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리도 나에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하나님사랑, 교회사랑, 말씀사랑, 형제사랑을 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크게 감사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981년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뜬 후, 1982년 11월에 입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이루 다 형언 할 길이 없습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전건축의 기회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목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거나 고인이 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후손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교회에 좋은 기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교회학교(주일학교)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학교 중에 우리 주일학교가 일등가는 학교라고 자랑합니다. 학교의 편제를 각 연령대에 알맞게 세분하여 조직하고,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와 잘 훈련된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교육하는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교회교육의 전문가 목사님을 초빙하여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성령과 믿음이 뛰어난 교사들로 세움을 감사합니다.

둘째, 찬양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찬양대는 초창기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 찬양대원들이 믿음으로 뚝뚝 뭉쳐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쓸 때 교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978년 6월에 성전건축을 앞두고 건축기금 모금을 위하여 “메시아” 공연을 맨해튼 음대 강당에서 연주하여 뉴욕 교포사회와 모든 교회와 맨해튼 음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감격하며 기쁨을 나누며 영광을 돌린 것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전도회(선교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여전도 회원들의 열심입니다. 1977년 성전 건축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시작으로 지금

까지 해마다 수고하는 여 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이제는 남전도회까지 함께 동참하여 해외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발전하여 주님의 귀한 일을 힘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글을 맺으며 끝으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삼대 담임목사님으로 김성국 목사님을 우리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40년간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수고하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교우들 모두 장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며 보살펴 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며, 심장하시며, 모든 교회 일들을 살피시며 수고하시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로 돕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도와 드려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께 주신 거룩하고 크신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시다.

2014년 10월 11일

하나님께 감사



김용생 장로

할렐루야!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필요 적절한 연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아가페를 출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등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연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가운데 연단이 우리를 성장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장영춘 원로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으로 우리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 김성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다가올 40년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 Dorothy Law Nolte -

40년, 그 은혜



윤영철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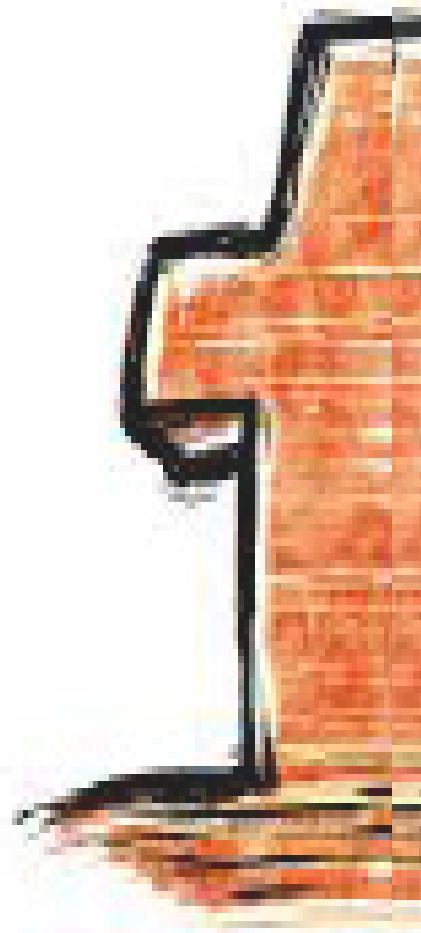
40년 하면 강산도 4번 바뀐다는 세월입니다.

사람이 나서 40세가 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안에 모든 대소사를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하는 나이이고, 40년 광야생활 하다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30세에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여 70세가 되는 40년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와 생활하던 중 한국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가세가 기울어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혼하여 이곳 뉴욕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다져 왔습니다. 8년 전 원치 않는 위암이라는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체험케 하신 하나님,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은혜이었습니다. 옴의 고백처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위시하여 교역자님들과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아내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긴 어둠 가운데서 터널의 다른 쪽이 보였고 지금은 그 역경이 저에게는 소중한 은혜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교회가 교회당이 없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원주민 교회에서 업신여김 받으면서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자체의 교회당을 가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40년의 든든한 초석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2세와 다민족 선교를 위한 새로운 열방교회를 짓는 일입니다.

지난 1960-1970년대에 후러싱 일대에는 약 십만 명의 일본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천명도 안 되는 일본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40년 후의 구심점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사람과 중국사람 그 밖에 타민족들에게 후러싱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 및 다민족 선교를 위해 새로운 성전을 남겨줄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귀한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며 때가 되어 택하여 세우신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40년의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자, 힘을 모으자!



전성호 장로

하나님의 속성: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올해 들어 지난 2월2일부터 시무장로 부부 및 모든 교역자로 시작된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 1기, 또 지난 9월4일 안수 집사, 권사님들 중심으로 시작된 2기 훈련 기간 중 시간 시간마다 큰 소리로 암송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에서, 다윗 왕은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최고의 왕으로 죽기까지 당신의 파란 만장한 일생을 통하여 체험하고, 간섭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기도했던 그의 감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2014년은 퀸즈장로교회 설립 40주년의 해요, 몇 해 전부터 어떤 특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 년 내내 지속되는 이벤트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실 은혜를 되새길까 다짐해왔던 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2014년 새해 첫 날은 어떠했습니까?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도 모두 중단했었고, 흑암의 터널, 어느 지점에서 방향 감각도 잃고,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했던, 모두 쉬쉬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상처만이 깊이 파였던, 시시비비로 얼굴을 붉히고 기도를 하려해도 목이 말라가기만 했던, 근심과 걱정의 날이 이었습니다.

2014년도가 마무리되고, 뒤 돌아보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조금은 편안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 나, 나”가 아닌 다시 주 안

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뮤지컬 ‘엘리아’ 찬양 연습도 너무 재미있고, 제자 훈련도 열기를 띄우고, 2차 수정된 교회 정관도 발표가 되었고, 교회 부서 마다 조심스레 다시 활기가 도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전 다 되었나요? 교회 안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 아직은 아무도 선뜻 “예”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남겨진 분노(대상이 없는)와 불신과 상처와 두려움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김성국 목사님이 3대 담임목사님으로 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또 헌신으로 앞서 길잡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선포하신 것처럼, 그 치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우상을 부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된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에서 일어서고, 잘못된 관습을 깨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고, 아픔이 있는 우리 서로서로가 믿음으로 보듬어 주고, 감싸줄 때 시작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암흑의 터널 끝에서 저 멀리 보이는 밝은 빛을 확인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너편 주차장 부지에 새 성전을 짓는 것을 당회가 결정하였고, 담임목사님이 공표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 이냐? 교회 파킹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왜 Flushing 이냐? 담임목사님이 갖고 계신 분명한 vision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가 다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Flushing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십니다.

모든 여건을 퀸즈장로교회에 허락하신 이상,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새 성전 건축헌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는 세 분의 설계사를 초빙해서 차근차근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일 훌륭한 설계사가 선정 되는 대로 도면이 그려지고, 건축허가가 나오면 시공 tape이 끊기고, 첫 삽이 퍼지는 날이 2015년도에 올 것입니다.

물론 새 성전을 지어서 다 민족 선교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맞추어지고,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제 2의 부흥을 노래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의 바람입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퀸즈장로교회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어예배부의 미래



정성호 장로
영어예배부 부장

영어예배부의 미래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출석한 교인들의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영어예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어예배부 담임 목회자의 잦은 교체와 또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한 김도현 목사님이 4년 전에 영어예배 목회자로 부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하심으로 이제는 영어예배부가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잘 자란 나무처럼 어떤 시련과 환란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영어예배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중에 여기서 서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다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저들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197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는 한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에 왔으며 또 대부분 플러싱에 정착함으로 우리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크게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한 많은 한인들이 플러싱을 떠나서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성장도 어느 정도 정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 플러싱에 세워주신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만을 위한 교회였지만 앞으로는 플러싱과 퀸즈에 사는 믿지 않는 수많은 타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플러싱은 이제 더 이상 한인들만의 타운이 아닙니다. 한인보다 더 많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플러싱에 아시아인 70%, 히스패닉인 15%, 백인 10% 와 흑인 5%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제는 세상 땅 끝에 사는 자들이 플러싱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저들이 본국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뜨겁지만 영어가 아직 서툴기 때문에 실제로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일에 영어예배 회중들을 사용하기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영어예배부에서는 이 선교사역을 위하여 이미 김도현 목사님께서 2년 전부터 초강도의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많은 회중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김성국 담임 목사님에게 영어 예배부의 큰 부흥과 우리 이웃에 사는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영어예배 회중을 위한 새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동안 잘 훈련받고 준비된 우리 영어예배 회중들이 우리 이웃과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일에 영어예배 회중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영어예배 회중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무근 장로

흑암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여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궁창의 물도 하늘에 띄우신 해와 별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 위와 아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손길이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가득 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도시 뉴욕 속에 한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퀸즈장로교회라 이름 하셨습니다.

마흔 해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밤낮 눈물의 기도로 깨어날 힘을 주시니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가득 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사랑을 나타낼 자로 넘치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우신 목자를 힘 있게 붙드시니 새로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비진리가 흔들지 못하도록 굳게 세우시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시기에 좋습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튼튼한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니
마흔 해 걸음은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젖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주님이 세우셨으니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우신 목자를 통해 생명의 강수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새벽을 깨우는 무리가 성전을 메우고 그 간구가 뉴욕을 흔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힘은 사랑의 도구가 되어 아직도 상처와 어두움에 있는 자의
손을 잡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마흔 해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내일의 걸음에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주소서
길이길이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눈길이 머무는

믿음의 후손들이 강성해 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걸어온 40년, 걸어갈 40년



이근우 장로

걸어온 40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하시고

장영춘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림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퀸즈장로교회가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며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사랑충만,
감사충만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권사님들과
제직원들과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육전도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충만 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학교를 통하여 많은 주의 사역자를
배출하시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카작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세운 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퀸즈장로교회가 새롭게 걸어갈 40년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김성국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걸어갈 40년에는

하나님 전에서 주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 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온 교회가 새롭게 소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가 살아나듯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찬양의 향기와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신령한 예배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사명으로

선교의 지면을 넓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영원무궁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주님이 함께 한 은총의 40년, 주님과 함께 할 비전의 40년



홍한나 집사

주님이 함께 한 은총의 40년

1973년 9월, 브루클린 한 교우의 가정에서 시작된 퀸즈장로교회는 이듬해 2월 24일, 플러싱에 소재한 미국 교회로 장소를 옮기고 설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 장영춘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두 분의 장로님이 시무장로로 취임하며 교회의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꿈,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믿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1983년 2월 27일, 황무지 같은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주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비전 아래, 깊이 있고 체계적인 성경 강해가 시작되었고, 교육관 건립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에도 시간과 물질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설립함으로 선교에 앞장서며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배와 교육, 뜨거운 기도는 퀸즈장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김성국 목사님이 제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함으로 퀸즈장로교회는 앞으로 40년, 새로운 비전과 사역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 우리 교회가 걸어온 시간은 그냥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분 안에서 우린 쉽 없이 변화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거기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듯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릴 향해 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꿈...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과 꿈으로 흘러온 시간... 퀸즈장로교회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마흔 살 장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밝히는 것임을 이제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 빛은 공의의 빛... 그 빛은 완전한 사랑의 빛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꿈으로 세워주신 퀸즈장로교회...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비전의 40년

이민자의 땅, 신앙의 불모지 뉴욕에 복음주의적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이민자들의 영혼을 돌볼 교회가 필요했기에, 어두운 이 땅에 새벽을 깨우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 이 땅을 이끌어 가게 될 다음세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교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세상을 밝히는 영적 리더를 키우는 교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낮은 이민생활로 지치고 상처받은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줄 교회가 필요했기에,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자녀들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는 교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40년간 부여주신 축복을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누어 줄 축복의 통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퀸즈장로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는 역사,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이 세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교회,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릴 주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

훈련과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모든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말씀을 밝히는 교회.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에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앞으로 40년 우리 퀸즈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천국에서 보내오는 십일조



김기호 장로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주일 헌금봉투 정리하는 일이 내 일이 되었다. 십일조 봉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선교헌금, 주차장헌금 등등 그 가짓수도 많아 수천의 봉투가 매 주일 정리를 기다린다. 이것을 정리하여 제 자리에 꽂아 놓아야 하는 것이 제법 신경 쓰이는 일이다. 몇 년 전 처음으로 할 땐 꽤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하니 까 숙달되어 척척 금새 해낸다. “달인”의 지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제법 빨라졌고 또한 재미도 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재미를 붙이고 해야 힘들지 않고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재밌다.

내가 이 일을 술선하여 시작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서다. 내 나름의 판단이지만, 이 일을 하면 치매예방이 될 것 같다.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좋다. 어렸을 때(왜정때) ‘가루따놀이’란게 있었다. 일본말 가나(假名) 오십음을 따서 그림을 그린 일종의 화투 같은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 펴놓고 진행자가 첫 자를 따라 노랫말을 읊으면 빨리 그 카드를 찾아내고,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기억력 게임이다. 헌금봉투를 제 자리 찾아 끄는 게 익숙해지면서 빨라진게 그 가루따 놀이에 익숙했던 탓일까? 또한 가지는 봉투의 번호를 대하면서 가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보일 때, 마치 그 인격을 만나는 것 같아 반갑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동오! 아 그리운 그 이름 황동오!(장로님!)

내가 황동오집사를 만난 때는 78년 8월이었다. 나는 74년 가을에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며 일 하다가 77년에 영주권 받고 곧 서울에 남아있는 가족을 초청, 78년에 가족상봉하고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다. 우리 가정은 보수적 신앙의 집안이다. 서울에서 해방교회를 시작으로 장충교회, 성도교회 등에서 보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수가 몸에 배었다. 새로운 미국생활은 교회 찾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뉴욕시내 몇 군데와 필라델피아까지 가보고 찾아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이 김승원권사님이다.

황동오집사님의 어머니입니다.(오래전에 천당 가심) 김권사님의 권유로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것이 78년 가을이었다. 그때 찬양대 지휘를 하던 전봉구 선생은 제가 서울시향에 있을 때 가끔 독창자로 와서 연주를 하곤 해서 낯이 익었다. 물론 반갑게 만났고, 그때 교회에서 새 성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의 차원에서 “메시아”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 교회 등록한 주일부터 메시아 연습에 가담했다. 나와 세 자녀가 가세했다.(우리 막내 김지현 집사는 그때 중학생이어서 끼지 못했다. 이 낯은 얘기는 오래전 아가페에 실은 적이 있다).

이야기가 다시 황동오장로로 돌아가겠다. 황장로가 이북 출신이며, 그것도 신의주 출신이라는 데서 우리는 의기투합되어 주일이면 고향 얘기로 향수(鄉愁)를 달랐다.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면서 친근하게 지냈었다. 장로장립은 내가 조금 빨랐지만 황집사도 금방 장로장립을 받아 열심히 교회봉사를 했다. 난 뜨거운 봉사를 못했지만 황장로님은 주로 재정책임자로 오랫동안 뜨겁게 봉사했었다. 당회 할 때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면 장로님은 곧잘 우스운 얘기를 해서 모두를 웃기곤 했다. 장로님이 뉴저지로 이사하고 서로 은퇴 장로가 되면서는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겨우 주일이나 잠깐 만나곤 했다. 만날 때 마다 날더러 “영맨, 영맨”하면서 손잡고 반가워하던 장로님이 어느 주일엔가 나타나지 않더니 새벽기도시간에 황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슬픈 소식이 광고되었다. 오랫동안 심장이 약하여 투병하시더니……

4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헌금봉투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황동오장로님의 십일조헌금 봉투가 나왔다. 나는 섬뜩 놀라면서도 반갑게 봉투를 쳐다보고 있었다. 장로님의 손때가 묻은 봉투, 891번 봉투는 건재하다. 납부 날짜 도장이 빈틈없이 가지런히 찍혀 있다. 장로님의 원만(圓滿)한 얼굴 모습이 떠오르면서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찡해움을 느꼈다. 황복순권사님의 장로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간다. 장로님을 먼저 보내 섭섭하기야 이를 때 없지만 어차피 다 가야할 길인데 조금 빨리 갔다고 섭섭해 할 것 없죠. 나도 조만간 부르실 텐데 그땐 발버둥 치지 말고 얼렁 나설련다.

그때 다시 만나요!!



소망의 언덕에서 누리는 안식과 축복



정혜경 권사

축복이 흐르는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반석위에 세워진 지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시작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를 맞으며 싹이 트고 자라나 그 가지가 담을 넘고 이제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여 피곤하고 목마른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 쉬어가며 새 힘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복된 안식처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나 또한 34년 전 이른 봄에 결혼과 더불어 이 청교도의 믿음의 땅에 온 첫 주부터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젓 먹이의 신앙이 차츰 자라가게 되었고, 그 포근한 날개 아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며 시시때때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세우신 신실한 사자를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으며, 선물로 주신 세 자녀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와 소망 중에 보낸 시간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 다니던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새 힘을 얻도록 금년 여름에는 기대하지 못한 긴 휴가를 허락해 주셨다.

오래전부터 나빠진 오른 손을 수술하고 나서 며칠 후에 심한 통증으로 예기치 못한 더 큰 수술을 받고 일주일 병

원에서 보내다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뒷뜰에 활짝 핀 여름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며 환한 미소로 그동안 집을 떠나 있던 안주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8월 초순의 강렬한 태양아래 진초록빛 나뭇잎과 어울려 한여름의 축제를 벌이는 듯한 꽃들을 바라보며 아직 잠시 아

아 있기도 힘들 만큼 연약해진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서글픈 생각도 들었

지만 머지않아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저 꽃

처럼 활기차게 일어나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의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더 큰 감사와 소망

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

한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

심하신 배려와 능력을 체험하고 여

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

하며 위로받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몇 년 째 양로원에 누워계시는 어머님께 그동안 거의 매 주말마다 찾아가 돌보아 드렸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 가서 뵈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혼자 찾아가 보았더니 거의



반응이 없으셨다. 식사를 못하신 지가 오래 되었고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서인지 많이 아위시고 기운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안쓰러웠다.

이틀 후에 다시 남편과 함께 어머니께 갔더니 마침 시댁 식구들도 와 계셨는데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신 어머니의 숨소리가 몹시 거칠게 들렸고 힘들어보였다. 감으신 눈을 뜨게 해드리니 그 힘드신 중에도 자녀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시며 두 손으로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다가 집에 돌아와 밤이 늦어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11시 30 분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양로원에 갔다. 연락을 받으신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도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오셔서 조용히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

깊은 잠을 곤하게 주무시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지난 날의 솔한 기억들이파도처럼 밀려왔다. 20대 중반에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국을 떠나 먼 이국땅으로 시집온 그 날부터 줄곧 곁에 계셨던 어머니의 당당하고도 짙은 외로움이 깃든 얼굴이 눈에 선하다. 막내며느리 시집왔을 때가 어머니가 결혼 하셨을 때보다 더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었다고 하시며 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셨던 어머니와 나는 대화가 아마도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을 것 같다.

좋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믿음도 자랐고, 말씀의 힘으로 가족을 떠나온 외로움도, 젊은 날의 유혹도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 첫 아이를 임신했던 그 해 초부터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던 성경문답서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3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이듬해에 어머니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암송하여 여전도회 주관으로 있던 성경 암송대회에서 특등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던 어머니...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95세에 그리운 본향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해 성경 암송대회에 함께 참가하여 암송하신 모세의 기도(시편 90편)의 한 구절이다. 그 지나간 시간들도 생각해보니 엇그제 같고 밤의 한 순간같이 짧게 느껴진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그 외롭고 빈 마음을 믿음과 인내로 채우시며,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던 어머니께 제대로 사랑의 마음도 드리지 못하고, 그 진한 외로움도 덜어드리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는 아무 고통이나 외로움도, 눈물도 없는 해보다 밝은 천국에서 그리운 남편(아버님)도 뵈고,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도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실 어머니를 그려보며 감사와 위로가 넘친다.

그동안 오래 양로원에 누워 계셨고 연세도 높으셔서 자녀들이 먼 곳에 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곤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모든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에 편안하게 주님께로 가셨고 또한 계속 좋은 날씨를 주셔서 모든 절차를 별로 힘들지 않게 은혜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유난히 서늘한 금년 가을도 점점 깊어가고 내 나이도 어느덧 이곳에 처음 왔을때의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안식처가 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앞으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함께하실 또 다른 40년과 미래를 굳건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주님 영광중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친구의 물음



계화자 전도사

얼마 전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영어 잘하고, 세련되고, 예쁘고 늘씬하여 인기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심장외과를 개업한 남편을 따라 플로리다에서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너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같거니?”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뉴욕으로 왔습니다. 바퀴벌레 우굴 대는 아파트 보금자리에서 미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친척 없는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밥 먹다 아기의 똥기저귀를 갈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엄마가 되면서 우리는 평준화의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리 유별나?” 흥보던 우리의 언어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귀해서 먹고 싶은 때였지만, “우리 무엇을 먹을까?”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먹일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엄마가 되기 시작했고, 남은 음식은 배불러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 먹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팔은 아이들을 업고, 안아도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가게 되어 단 몇 분이라도 아이 없는 자유의 시간을 누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빠 지나다 보니 그 소망도 이루어져 이제 자유다! 느끼려는데

우리를 심히 당황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자기 방문을 잠그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 답답하여 갔습니다. **비밀**이 많아집니다.

밖에 나가면 엄마가 호출을 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에 대해 말하면 화를 냅니다. 여드름이 나고 거울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블루색 옷 만 좋아하고 입겠다더니 빨간색도 입겠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크레이지가 됩니다.

그런 엄마의 소리를 듣는 아이도 같이 크레이지가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엄마와 미국식 아이의 끝없는 평행선의 전쟁이었습니다. 엄마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

우리의 사랑은 틀림없이 서로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 아파야 하는가?

만남이 되지 못하는가?

책도, 조언도,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을 향한 애끓는 기도가 생각이 났

습니다.

피땀방울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죄로 막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행선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사

우리를 살리신 측량할 수 없는 확증 된 사랑에 눈물이 났
습니다.

아이와의 전쟁을 되풀이 한 엄마의 끝내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었습니다.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지금 이 자리!

40여년을 오직 복음위에 우뚝 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으로 일관해 왔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하며 새로운 비전으로 힘차게 전
진하는

퀸즈장로교회가 있는 이 자리!

원로 장영춘목사님, 담임 김성국목사님, 서로의 팔을 굳게
잡은 우리 부교역자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교우님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나는 좋습니다.

나의 답은

“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
요”

내 친구도 답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가난한 자들의 심장을 수술해주며 때때로
선교 나가는 지금이 좋다”



내가 심방원이 되기까지

(아가페 24호 1981년 8월 30일 발췌함)



이귀순 전도사

저는 모태 교인으로 기도많이하시고 믿음과 기쁨으로 사시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음과 기도로 키워주신 두 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뿐 아니라 학교도 초등학교만 아니고 고등학교 간호학교를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후의 직장도 대부분 기독교 계통에서 경영하는 병원과 학교에서 봉직하게 되어 항상 주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는 그대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 전부인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여 년전 미국에 와서 나의 생활은 계속 교회를 중심하고 사는 생활이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예배 드리는 것이 모두인양 그보다는 서로 만나 인간끼리 교제하는 인간교제가 더 중요한 것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딘지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교회는 이런 것이려니 하는 인식에서 그냥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나가는 병원에서 후배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회에 관한 말을 나누게 되었을 때 후배가 나에게 퀸즈장로교회 장목사님을 은혜 있고 신령하신 분이이라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때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해매던 중이 아니고 생활과 가정 자녀들의 결혼문제로 바쁠 때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듣고 흘려버리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많아서 허술한 집이라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하였습니다. 애 쓰고 있던 중 근무하는 병원도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하고 며칠이 못되어 아들이 신문을 보더니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한인교회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매우 관심이 끌려서 신문을 보았는데 바로 후배가 소개해준 장영

춘 목사님이 시무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과 같이 그 주일에 나가보았습니다. 저는 첫 예배시간에 마음이 감동되며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좋았다며 이교회로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말씀 중심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따라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성경공부에 참석하며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십 평생을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이때 까지 성경말씀으로 크지 못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지금도 평신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에 굽주렸던 영혼이 소생되고 은혜가운데 지내던 중에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며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늘 외치시는 것처럼 말씀충만, 성령충만, 기도충만에 들어가게 되면서 몸된 교회에 봉사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생겨 기도예 앞선 권사님들을 모시고 산에 가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의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히 응답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심방도 하고 싶어져 작년 6월부터 한 집 한 집씩 경험 많으시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을 따라 심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게 되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리라 던 생각을 바꾸어 직장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 기쁨과 영광을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심방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말씀 하실 것을 주시니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저는 몸으로 시키시는 대로 만하면 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할 것을 늘 간구합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과 평안한 맘, 영광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의 교인 심방원이 된 것을 한없는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좁은 지면이 다 표현할 수 없어 간단하게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 그 후 이귀순 전도사님은 2002년까지 전도사로 사역하시다 명예 은퇴를 하심.



퀸즈장로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왜 지금인가?



최원일 집사
기획위원회

현수막은 떠나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정신 가장 바람직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일 것이다. 일찍이 역사에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역시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이다.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회가 그와 가까운 교회일 것이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이로 인해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우리 교회 본당의 정면을 오랫동안 채우고 있던 현수막 내용이다. 그 낡은 녹색 현수막이 치워진지 1년 남짓 되어 가지만, 여전히 그 글귀는 우리 권장의 교우들에게 익숙하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우리 교회 교우들 대부분이 이것에 익숙하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4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뀌지 않을 가장 바람직한 교회 상을 교회설립 정신으로 가졌다는 사실도 참 복된 일이다. 우리 교회는 이 정신 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0년을 실새 없이 달려왔다. 척박한 이민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 그 복음공동체의 싹을 키워 뿌리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뻗어 성장시키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에 바친 헌신과 희생을 어찌 몇 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를 향한 감사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커지고 그에 대한 존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사와 존경은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할 때 그 진정성이 입증된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 위대한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밝혀 이를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40년간 이룩한 성장을 토대로 그에 걸맞은 교회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일 것이다. 지난 10월에 공동의회 결의한 설립정관 수정서와 부속정관 제정은 바로 이런 도전에 대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응답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근본은 당연히 예배와 기도, 말씀이다. 아울러 교회의 행정 및 인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잘 운용함으로써 소모적인 의혹과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그 ‘건강한 교회’의 건강성을 계속 지켜내고 키워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통과된 설립정관 수정서와 제정 부속정관은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내고 더욱 견고하게 키워가기 위한 범 교회적인 간구와 시대적 요청을 문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년간 밀려온 숙제

한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의 틀을 갖춘 나라라면 그 나라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건국이념 및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국가의 조직, 구성, 통치에 관한 근본을 규정하는 가장 높은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 아래 있는 규범으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이다. 우리 교회의 정관은 우리 교회의 헌법이다. 아울러 후속제정 된 내규들은 이 정관을 도와 우리 교회 각 위원회와 부서들의 사역과 활동에 잘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당연히 정관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설립되던 1974년에 제정된 설립정관이 그것이다. 예배장소를 지금의 143-17 Franklin Avenue가 아닌 157-16 65th Avenue, Flushing으로 적고 있으니 그 자체로 참 아득한 세월의 퇴적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로 작성되어 설립되던 해 10월 뉴욕(맨해튼) 카운티 서기국에 접수된 이 설립정관은 법인의 목적, 이사회의 구성 등 뉴욕주 종교법인 법이 신생 교회법인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을 명시하는데 그쳤다.

18년이 지난 1992년에 우리 교회는 이 설립정관에 대한 1차 수정서를 의결하고 그해 1월 이를 퀸즈카운티 서기국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1차 수정서의 내용 또한 우리 교회가 미연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첨가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설립정관과 1차 수정서는 종교법인으로서 뉴욕주법과 연방세법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구체화 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명문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앞서 말한 1974년 제정 설립정관은 제2조에서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을 “본 교회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과 절차’

는 그 후 40년 동안 여러 모습으로 발전해 왔을 터 이것이 문서화 되지 않은 채 관습과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 올해 통과된 설립정관 수정서와 부속정관은 이 “방식과 절차”를 문서화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40여 년 동안 밀려온 숙제를 일차 마무리 하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를 따라 왔다. 그러나 실제로 지교회에 적용되는 규칙을 평신도가 교단 헌법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교단 헌법이 지교회에 위임한 부분도 있고, 또 조항이 미비하거나 상세하지 못하여 지교회의 개별적인 상황에 교단 헌법이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교회에 실정에 맞는 정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립정관 수정서 및 부속정관의 핵심 내용

설립정관 수정서와 부속정관은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신조와 존재 목적 및 사명을 정립하고 우리 교회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들 문서의 그 근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 우리 교회의 신조는 성경에 기초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특별히 주요 직분자들의 자격과 책임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 사도행전 6장 1-3절 등 성경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세상의 기준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주일신자’가 아닌, 신앙과 일상이 일관되고 합치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글머리에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 “...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예배), 말씀을 가르치고(교육), 말씀을 밝히며(개혁), 말씀을 전하는(선교) 4대 사명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 나갈 것을 아울러 선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 핵심 의결기관과 교구와 구역회 등의 공동체의 구성과 임무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부속정관은 이들 의결 기관의 구성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교단 헌법의 주요 정신과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수용하였다. 아울러, 예배와 교육 전도 및 선교 등 핵심 사역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 사역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청지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배국, 교육국, 선교국, 행정국, 관리국, 기술국, 영어회중국등 7개 국을 두게 했다. 그 아래에는 필요한 위원회와 부서 등 15개 기관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들 15개 위원회와 부서들은 각기 고유의 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특정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온 교회에 보고될 것을 규정하였다. 이들 내규들은 모두 올해 안으로 당회가 심의하고 통과할 예정이다.

요약하자면, 설립정관 2차 수정서와 부속정관은 성경을 바탕으로 교단 헌법의 취지를 살

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40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하여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야 할 우리 교회의 신조와 사명,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규칙들을 문서화 한 것이다. 아울러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제도적 길잡이기로서의 의미도 있다.

더욱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가장 바람직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다시 생각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정관과 내규는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다. 완벽한 정관과 내규란 존재할 수 없다. 정관과 내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의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이들 문서에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들 정관과 내규를 공허한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교회의 간절한 노력으로 받아 주시길 기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한다.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되게하자라는 설립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교회



최효진 집사
기획위원회

처음 기획 위원회로 추천 받았을 때는 정말 자격이 있는지,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1월 4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전반 분야를 고찰하고, 교회의 현 상태를 파악하며, 교회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강점을 분석하여 교회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획 위원회는 출발했습니다.

첫 기획 위원회 모임 때, 위원들을 모두 처음으로 만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성호 장로님으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아주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일들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것 말고도, 많은 양의 자료를 찾아 읽고, 또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아서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함과 막막함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미팅에서 부터는 읽어야 할 책들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읽으며,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에 바빴습니다. 매 2주마다 모여서 읽은 책들의 내용을 토론하고, 또 읽을 만한 자료를 나누고, 다른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정성호 장로님은 늘 많은 자료를 먼저 읽으시고, 저희들에게 과제로 해주셨습니다. 우선 과제는 현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비전을 집중 점검하여 제시하는 것과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정관 및 시행 규칙 마련의 시급함을 깨닫고, 일단 1월 까지 1차 정관을 작성하고, 2월까지 2차 정관을 작성하며, 3월까지 최종 정관 작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많은 교회의 비전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교회의 부흥 요소 사례 연구와 교회 개혁 및 성장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앞으로의 40년을 위해, 우리 교회에 맞는 구체적인 교회의 미션과 비전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 달라진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역 사회에 대한 사명도 감당 해야 됨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교회의 비전과 원칙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정하기까지도 몇 번의 회의와 수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특유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21세기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델이 될 만한 자료와 서적을 읽고, 교단 헌법도 공부하며 교회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같이 깊어지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여러 번의 회의와 몇 차례의 비전문 수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은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은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정해지고, 마침내 교회 정관의 방향도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비전문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듭하는 동안, 이에 따라 정관의 초안을 준비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이 준비되어가는 동안, 교회 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 또 그 조직표가 몇 번의 회의와 수정을 거듭하며 완성되어가는 동안, 각 사역 위원회 별로 내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안의 어려운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내규에 반영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터뷰에 임하시는 분들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몇 번씩 만난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초기 사역표를 만드신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신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 이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세워져왔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내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밀려왔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비전이 수정되면, 정관이 수정되고, 또 교회 조직표가 수정이 되고, 이에 따라 각 사역 위원회 별 내규가 수정이 되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긴 시간동안, 정관 내용을 밤을 세시며,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규의 마지막 수정을 위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관이 완성되고, 각 사역 위원회의 내규가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한 주의 자녀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정성호 장로님은 조용하시지만 아주 세밀한 카리스마로 저희들에게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맘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깊은 책임 감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지도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교회, 어찌 저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성호 장로님, 박정봉 집사님, 최원일 집사님, 흥한나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신성재 집사님, 황미희 집사님, 이해령 집사님, 모두들 바쁜 환경 속에서, 출장으로 가득한 일정 속에서, 가정의 슬픔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한 귀한 집사님들과 장로님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담임 목사님, 영어 예배 김도현 목사님, 정말 기도 없이는 이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기도와 맘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이렇게 완성되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기획 위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맘을 주셔서, 모두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권장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칭찬받는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이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며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 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한 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40 vs 40



이정훈 집사

퀸즈장로교회가 이 곳 New York에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이른 시간이 이제 40년에 이릅니다. 모국 한국의 기독교에 기반을 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중추 교회로서, 지난 40년간 많은 이들의 영적인 고향 역할을 해 온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stage로 발돋움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은 교회로서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40년을 소망하며 퀸즈장로교회의 평신도로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씁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소망과 Vision을 담습니다.

Then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올해로 어느덧 13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 부흥,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종교 박해 및 신사 참배 강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진 한국 전쟁 하에서의 기독교인 박해 등 한국의 기독교는 130여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그 파란만장함만큼은 수십 권의 책으로 정리해도 결코 완벽히 정리할 수 없을 분량의 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인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성장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로부터 받은 몇 가지 인상 깊은 느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잠에서 깰 때쯤 들리던 새벽의 교회 종소리, 세계 기독교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철야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울부짖으며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던 기도원의 풍경 등 한국의 기독교 문화 속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차별되는 Unique함과 강렬함, 혹은 간절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 면에서, 그 강렬함 면에서 결코 모국의 기독교나 교회들에 비교하여 뒤쳐지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로 한인들의 이민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만나기 힘든 한국인을 마음껏 만날 수 있던 곳, 일주일 동안 짧은 영어로 설움 받던 서러움을 원 없이 풀며 말이 통하는 내 나라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던 곳, American Dream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새벽이건 한 밤중이건 목청 놓고 부르짖으며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던 곳, 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같은 피부색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종차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던 곳, 그 곳이 바로 이민 교회였습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미국 내 한인 이민 교회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40여년의 역사와 전통, Flushing이 상징하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기도와 예배에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두고 집중해 온 보수 전통의 모습 등등 어찌 보면 퀸즈장로교회의 역사가 한인 이민 교회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을 읽으시는 퀸즈장로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바로 이러한 한인 이민 기독교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벽돌을 손수 나르며 함께 지으신 교회의 건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에 단계에 다다른 교회내의 여러 행정 및 교육 System,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쌓아 온 예배와 기도, 말씀의 전통, 옥합을 깨뜨리며 정성을 다해 공궤했던 정성의 헌물 등 어르신들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은 결코 지금의 저희 세대들은 넘볼 수 없는 거대하고 큰 벽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 곳 이민 사회의 한국 기독교가 지난 세대를 아우르며 만들어 온 특유의 전통은 이미 수많은 해외 기독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수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Now

그렇다면, 초대 전파 후 130여년이 흐른 한국의 기독교와 그 역사가 40여년을 넘어서는 이 곳 이민 사회 기독교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간의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전통과 문화를 잘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정통한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되고 발표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Conception을 조사 결과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모 기독교 기관에서 지난 201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지난 2008년의 첫 번째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는 5점 만점의 척도로 볼 때, 2008년의 2.58에서 2.62로 0.1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큰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29.2%), 불교(28.0%), 기독교(21.3%) 순으로 기독교

가 타 종교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3년 전의 59%에서 47.5%로 대폭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를 미덥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이로 말미암는 기독교로부터의 이탈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령별 신뢰도로 그 범위를 좁히면, 특히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불교(33.4%), 천주교(26.6%), 기독교(18.9%)의 순으로 신뢰도가 조사된 것으로 볼 때 특히 젊은 세대의 한국 교회에 대한 Conception을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시절 아련하고 풋풋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한국의 기독교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일명 ‘헝그리 정신’의 실종을 이야기 합니다. 모두가 배가 고파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밖에는 몰랐던 지난 세월의 한국의 Christian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세 끼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 바로 그 시점이 한국 기독교의 쇠퇴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마련해 먹은 아침식사 직후엔 점심 식사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기도해야 했고, 그 후엔 또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했던, 일명 ‘생계형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저 더 넓은 집, 더 큰 자동차를 구하는, 상대적 부의 축적을 위한 기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1997년에 한국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인 구조 조정으로 몰아넣은 IMF사태를 한국 기독교계 쇠퇴의 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IMF 경제 한파는 한국 사회에 사회 양극화 현상과 수많은 정상적 개념으로부터의 가정의 해체를 몰고 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난 한국 사회를 더 이상 생계유지의 차원의 아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들이 이로 인해 변질되고 변화 되었습니다. 편부 슬하와 편모슬하의 가정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와 같은 각 가정의 질적인 변화, 즉 ‘down-grade’가 기독교의 전반적인 쇠퇴로까지 이어졌다는 견해입니다. 근래 들어 더욱 흉폭, 잔인해지고 있는 한국의 각종 강력 범죄율의 급격한 상승은 어쩌면 이러한 기독교 쇠퇴의 반작용적인 현상은 아닐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대 한국 기독교와 한국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이 청년층의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신문의 종교면이 아닌 사회면에 더욱 자주 나타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나, ‘한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이 아닌, 강하고 권력 있는 자의 편에서 있다’라는 수많은 청년층의 판단이 과연 그들만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 8월 방한했던 프란체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처럼 현재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경고의 message로 각인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황과는 사뭇 다른 서민적이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유의 소탈한 이미지, 약자를 살피고 아픈 자들을

보듬은 따뜻한(?) 모습은 이처럼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편에만 서 있다’라고 폄하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기독교에 흥미(?)를 잃은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일련의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 및 사태들로 인해 코너에 몰려있던 한국의 기독교는 이번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 더욱 옥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한 편의 세밀하게 기획된 각본과 같았던 그의 방한이 ‘천주교의 대 아시아 본격 진출의 신호탄이었다’ 라고 밝힌 외신의 보도가 전혀 과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이민 교회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와는 달리 전혀 문제없이 자랑스러운 한인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는 것이 저만의 사정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이민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양육했던 우리의 2세들,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 받아 한인 이민 교회를 잘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젊은 2세들이 하염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년층만 남아 그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유럽과 미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교회들보다도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교회의 ‘노년화’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더욱 커집니다. 한국 교회가 위에서 언급해 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이민 교회 또한 한국의 기독교계와는 같고도 또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 바로 지금 발전 혹은 정체, 심지어는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또한 실행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And then...

그렇다면, 어쩌해야 할까요? 우리의 2세들을 위해, 혹은 흥성과 쇠퇴의 갈림길에 있는 이민 사회 교회의 내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Center역할’을 퀸즈장로교회가 담당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지금과 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대형 한인 교회중 하나로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한 여러 장점들 - 교육 system, 행정 system, 교회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줄 아는 고품질(?)의 성도들,

또한 여러 어려움 중에도 대다수 뉴욕지역 교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재정적 환경 등등 - 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Vision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어른들, 즉 1세대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재정적, 신앙적' all-in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것이었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러한 환경을 발판 삼아 더욱 큰 하나님 나라의 Vision을 실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장에 허락하신 위의 여러 축복들은 결코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그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닌지요.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권장의 청년부를 한 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현재 퀸즈장로 교회 청년부 구성원의 상당수는 미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 혹은 어학 연수생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년 혹은 몇 달 내에 우리 교회를 떠나 한국으로, 혹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들 중 우리 교회에 남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중직의 역할을 감당해 낼 청년들의 비율이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일견 교회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을 향해 많은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투자(?)' 하는 일이 벅차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때를 퀸즈장로교회에서 훈련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후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신다면, 효과적으로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거세지고 음란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분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이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단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엄청난 수고와 노력, 헌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회개합니다. 제 자녀들의 세상 교육 - 각종 악기 교육, 특별활동, 혹은 Tutoring 등등 -은 아무리 재정적 부담이 있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영성교육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한 일에는 작은 헌신 하나에도 참으로 인색했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는 역할을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간수하는 일조차 힘든데 어찌 저희에게 이처럼 벅찬 일을 감당하라 하시나이까'라며 뒷걸음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지라도 묵묵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기도와 상황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으며 돌아볼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약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줄곧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 소외되던 자들, 또는 죄인이라 폄하 받던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권력 있는 자들과 어울리시거나 혹은 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받으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분의 십자가를 메고 그 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강자를 예우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다름없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가진 자나 더 많이 배운 자를 더욱 예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심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더 많은 회개와 반성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생색내며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물보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 것 없는 액수의 헌물을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 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이 연약한 교우,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교우, 신분의 문제로 어찌할 바 모르는 청년들, 불우한 가정 상황으로 인해 아파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중, 고등부 자녀들 등등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지내온 ‘하나님이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낮은 곳으로 맞추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눈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작은 자를 품는 그 때가 우리 교회에 실로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때입니다. 진정한 초대 교회의 역사, 곧 ‘나누고, 살피며, 서로 공궤 했던’ 아름다운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목숨을 거는’ 퀸즈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남기신 위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려면 ‘가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 직접 ‘가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에, 결국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원의 선교란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만큼 많은 기도와 물질, 노력과 헌신이 소요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중, 장기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진행,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많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물질적, 육체적 support가 절실히 요구되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역사를 본 적이 없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으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2세들에게 끼칠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우리 2세들이 이러한 '선교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아 발전시키고 다변화 시킬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날 2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하며 자란 이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작정하고 한 발자국 내딛는 오늘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꿈꾸는 퀸즈장로교회의 선교는 이와 같이 중, 장기적인 기획과 Detail한 사역의 진행,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support가 한 데 어우러져 준비하는 성도들부터 은혜 받는,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것입니다. 선교의 꿈 - 아무리 원대하고 크게 꾸어도 허황되거나 과장되지 않을 거룩한 꿈입니다.

제가 이 글의 제목으로 정한 '40 vs. 40'이란 바로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가 지내온 40년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40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발로 뛰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로부터 40년 후 2054년도의 아가페 원고에 '80 vs. 80'이라는 제목으로 퀸즈장로교회의 설립 80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 그 다음의 80년을 소망하는 글을 쓰는 어떤 젊은 집사가 있게 되기를 기분 좋게 상상하며 소망합니다. 80주년의 그 날에 우리 자녀들 -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 - 이 퀸즈장로교회를 이끄는 일꾼들이 되어 40년 전 부모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그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황태후의 연설

몇 년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황태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행렬은 8km에 달했다. 대체 백한 살의 그녀에게 무슨 권세, 무슨 매력이 남아 있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가 남긴 말들이 아직도 그들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버킹엄궁의 벽이 무너졌을 때 현장에 나타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의 폭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녀는 기지와 유머에 넘친 말로 위기를 뒤집고 실의에 찬 시민들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었다. 폭탄보다 강한 말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황태후의 매력이요, 정치력이었던 셈이다.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힘뿐” 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위기(危機)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위험이 곧 기회라고 말한 것은 한자 문화권의 정치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였다. 실제로 그는 쿠바 위기를 그렇게 넘겼다. 분명히 위기라는 한자에는 영어에는 없는 위험(crisis)을 뜻하는 위(危)와 기회(opportunity)를 가리키는 기(機)자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9.11 테러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네브라스카로 피신했다. 하지만 곧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뉴욕의 재해지로 달려가 화성기를 잡는다. 구제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중을 향해 막 격려의 연설을 시작하자 멀리 떨어져 있던 소방대원 하나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라고 외쳤다. 그때 부시는 그 자리에서 서슴치 않고: “나는 당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그리고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이 빌딩을 폭파한 자들도 곧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즉흥 연설 장면은 CNN에서 되풀이되면서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직후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로 부상한다.

엘리자베스 황태후가 물리적인 벽을 상징적인 벽의 의미로 바꿔놓은 것처럼 부시는 소방대원의 목소리를 역시 상징적인 목소리로 바꿔 놓아 위기를 역전시켰다.

이 두 일화는 우리에게 “위기는 지도자를 시험하고 성공한 지도자는 그것을 명언으로 넘어선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호학에서는 일상적인 의미를 정치적 문맥으로 바꿔치기하는 현상을 “코드 전환” 이라고 부른다.

〈이어령 말의 정치학 중에서〉

제1기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마치고



임 정 장로

일단 서약서에 사인 후에는 중도 기권이나 포기는 없으니 사인하시기 전에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하라시는 목사님의 첫 말씀을 시작으로 웃으시며 나눠주신 서약서에 사인을 받고 돌려받으신 후 목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장로님들! 이제는 꿈쩍 못 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성경공부는 2월5일 주일 저녁 예배 후 14주간의 대단원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목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QT 요령,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의 순서이며 공부하는 요령은 공부시간은 주일 모든 예배와 행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었으며 2시간미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짧게 끝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제로는 교재 답 쓰기, 성경구절 암송(22구절), QT(일주일에 3회 이상), 성경 완독(13주간),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등이었습니다.

저의 20여 년 만에 새로 시작된 성경공부는 모든 것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하루 전체를 할애해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운전하며 기도하고 QT하고 성경암송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성경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꿈에서도 성경 요절이 생각이 안 나면 깨어나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기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세상일을 떠나 성경, 기도, 성경 암송, 배우는 과목들을 가지고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유머로 구절을 외우고 시간을 재보기도 하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간디가 자신이 기

독교인이 안 된 이유는 성경은 좋지만 믿는 자들이 싫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성질, 성깔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깨지고, 깨지고 없어야 하는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숙제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예배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나 자신은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23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계속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주문할 것 없이 나만 변화면 된다는 생각만을 가질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하는 제자훈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변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제2, 제 3의 성경공부가 계속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빨리 변하면 공부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편한 많은 그릇들이 나오기를 바라며 정결한 그릇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김귀옥 권사

10월14일 화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아가페 원고를 부탁받았다. 주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었다. 당연히 “제자훈련”에 대해 쓰겠다고 하고는 펜을 들었다.

“제자훈련”, 처음 이 말을 듣고 장로님 부부들이 매 주일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 많이 피곤 할 텐데... 대단하시다! 하며 “열심히들 하세요”라고 특한 마디 던지고 가곤 했지만 하나님이 저 분 들께만 특권을 주시는 것 같아 내심 은근히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나에게도 기회는 왔다. 9월7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첫 시간 목사님께서 서론을 말씀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중도포기 하지 말고, 지각 하지 말고, 숙제 열심히 하고 등등 세심한 것까지 지침을 내리셨다.

문득 권사임직을 받기 전 2박3일의 훈련을 갔을 때, 원로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지금에 앉아 있는 자리는 사람이 뽑은 순서대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순서의 자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등권사가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라고 하였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그래! 죽도록 해 보자!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며 다짐했었다.

지금의 제자훈련은 어떤가?

성경읽기, Q.T., 숙제, 성경암송, 영성일기 등등... 일주일 분량이 너무 많았다. 목사님께서서는 시간이 모자라면 잠을 줄이라 하시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제자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용기내서 도전해 보자! 이왕 하는 것, 온 힘을 다해 해보자! 다짐하며 하루하루 일과 병행하며 툼툼이 열심을 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 벅찬 구원의 기쁨이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 받던 날, 그 때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다.

고마우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이 날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즉 제자훈련을 통해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몸이 저리도록 나를 꼭 껴안아 사랑해 주심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성경암송을 할 때는 “십자가”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제자훈련” 이것을 시작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교회에, 지도해 주시는 담임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다.

14주의 훈련 중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간다. 이제 남은 7주가 그저 흥분 될 뿐이다. 왜냐하면 전반의 7주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7주 동안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지 정말 기대될 뿐이다.

퀵즈장로교회! 정말 좋은 우리교회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이 부족한 자를 있게 하심을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믿음생활을 함께 하며 걸어가고 있는 많은 권장의 식구들 얼굴이 스쳐 간다.

사랑이 넘치는 이 모든 분들이 긴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하나님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 훈련받은 그대로 성숙한 제자들이 되고, 또 다른 좋은 제자들로 계속 이어져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또 감사! 이것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멋있는 표현의 말로도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 지독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제자훈련을 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찬 행복한 여름휴가

편집부

2014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참된 기쁨이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끝없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고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아도 잠시 뿐이며,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에도 한계가 있고 곧 싫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늘 아쉽고, 서러우며 불만족한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 그런데 참된 행복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며 손짓하고 있는 가슴이 뛰는 그 큰 기쁨의 향연이…….

우리를 지으시고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동행하신 2014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6월 30일(월) 부터 7월 2일(수) 까지 시원하고 아름다운 Hudson Valley Resort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해주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령님 열매 맺고 싶어요”(갈5:22-23) 라는 주제로 넘치는 사랑의 기쁨과 은혜의 단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복된 자녀가 되어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옛 사람의 정욕과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 배우고 회개하고 다짐한 정금같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날 그 곳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곧 개회예배가 드려졌으며, 그 예배 후에는 특별순서로 Healing Camp가 있었는데, 그 순서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설교 후에 축복의 찬양을 하며 모든 교우들이 서로 얼싸안고 축복해주며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밤 저녁예배 후에는 온 교우들이 밖으로 나가 교육부 학생들과 함께 Camp Fire를 하며 보냈습니다.

넓은 잔디에 앉아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무도회를 보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설움과 근심, 미움과 욕심을 던져 버리고,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며 그 인도 따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며, 또한 일곱 번째 말씀인 ‘총성’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은혜롭게 들은 후에 시원한 수박과 여러 가지 스낵을 먹으며 정겨운 대화 속에 깊어간 행복한 밤……. 수련회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신 형제, 자매들의 헌신으로 더욱 즐겁고 편안했던 시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1.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 (마5:43-48)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줍시다.

2.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눅10:17-20)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며, 매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3. 평강에 평강으로 (사26:1-7)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4.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가? (약5:7-11)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찬송하며 끝까지 참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되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길이 참아서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가 됩시다.

5. 자비를 베푸는 자 (눅10:29-37)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돕되 자신을 감추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비의 사람이 됩시다.



6.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갈6:7-10)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따라야하며, 예수님의 선하심처럼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강하고 담대한 봉사자가 됩시다.

7. 인생의 결산, 많음이 아니라 충성 (마25:19-23)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 세대가 충성한 이유를 다음세대에게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어 말씀 안에서 함께 충성하여 완전한 충성의 사람이 됩시다.

8. 온유의 축복 (시37:4-11)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곧 예수님의 성품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환난이나 최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복을 누립니다.

9. 이기려면 절제하라 (고전9:24-27)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탐욕, 야욕)을 다스리는 힘이며, 모든 일에 절제하여 참 승리(하나님의 원래 계획-영광, 찬란함을 회복하는 것)의 사람이 됩시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지 말고 그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되 이 모든 일에는 자기희생이 먼저 있어야 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 합니다.



밀알이 되겠습니다



고부영 전도사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타는 소리가 요란스럽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거나 높지 않으며
얇은 푸른빛으로 오래오래 소리 없이 타면서
다른 것들의 밑불이 되어주고 타다가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생명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따뜻한 온기를 내는 참나무 장작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고
이 땅에 죄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이 몸소 희생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밀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살고 계신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미국에 한번 들어와 살아보지 않을까?”

3년만 갔다 오자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와 준비하여 가방 두 개를 들고 한 달 만에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의욕이 가득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뉴욕생활에서 새로운 삶에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희망은 없어지고 많은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가온 절망과 고통, 역경과 환난풍파를 통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였고, 부끄럼이 많은 저에게 노방전도로, 기도로, 물질로, 사람으로 훈련하시어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변화시킨 주님께서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질그릇 같은 저를 당신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졸업을 할 즈음에 퀸즈장로교회에 등록케 하셨습니다.

1999년 10월, 첫 예배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부여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감격 잊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밀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뉴욕으로 이민케 하시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섭리와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축복된 만남!!

잘못된 만남은 아픔과 실망이지만, 참된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주신 저에게 참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장영춘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세운 교회, 말씀, 기도, 성령, 사랑, 감사 충만한 교회에 와서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으로 새가족부와 찬양대, 전도폭발훈련, 교육부서에 들어가 훈련받게 하셨고 그동안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욕심을 부려 이곳저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배우고 섬기면서 마음껏 좋은 교회 안에서 활기찬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2의 삶을 시작한 퀸즈장로교회에서의 사역이 벌써 15년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눈물로 고백하며 감동 속에 지낸 나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새 가족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지난 5년!!

섬김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이민자, 불신자, 상처 입은 자,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심방하며, 상담하며, 이민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며, 교회중심, 예배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다른 것은 다 형통해 진다라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 주신 능력을 붙들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모든 교우님들은 저희 새가족 학교에 7주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죽음, 부활, 그리스도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108기의 새가족 학교가 수료되었고, 성인만 3,78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109기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새 가족부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어져 복음을 전하는 말씀중심의 사람이 되어 든든한 믿음의 모퉁이 돌로 쓰임 받아 서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교회를 통해 곳곳에 믿음의 일꾼들을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교구장으로 사역을 시작한지 10년!!

전 교인을 6개의 교구로 지역을 나누어서 한 교구씩을 맡아 목사님의 사역 방침에 따라 심방을 하면서 만남, 헤어짐, 세우심, 나누게 하심, 울며 웃으며 아파하며 지낸 세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구원 받은 것도, 축복을 받은 것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메마른 심령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나누지 못하며, 섬기지 못한 나의 모습에 그저 죄송한 마음이 앞서면서 이제라도 다시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먼저 손을 내밀며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보겠습니다.

40살이 된 우리교회는 세계에 중심이 되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센터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교센터로, 커뮤니티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진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키워나가는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사역의 시간!!

지,은,평의 하나님께서는 영혼사랑에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기도소리,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먼저 본이 되신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함께 축복이 흐르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을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에게 나눌수록 풍성하고 마음껏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고 외롭고 소외된 심령들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며 먼저 헤아려 주고, 같이 아파하고, 나를 죽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며 타오르다가 이내 불꽃으로 사그라지지 않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묵묵히 기도하여 세상을 태우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본분을 잊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성령의 불을 피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낮은 곳에 내려가서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40주년 축복이 흐르는 찬양축제를 마치면서



이광운 집사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 드립니다.

존귀, 능력, 권세 그 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퀸즈장로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야제 같은 밤, 여 연합전도회 찬양축제가 비록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000 여명의 참석자인장년들을 중심으로 다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만의 뜨거운 열기였나?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되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일, 시작하기 30분전에 잠깐 우리전도회원들이 혹시 친교실에 있나 내려가 봤더니 와! 천국이 따로 없구나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교실 전체가 찬송소리로 여기 저기 덮여있고 정신없이 바라보니 천군천사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천국도 이렇게 약간 시끄러울까? 거기는 조용하고 찬송소리만 들린다던데.... 문득 여러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정신 차려 휘둘러보니 우리 전도회원 1-2명이 있어서 같이 우리 연습장소인 유아부실로 올라오면서 우리들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밝고 환하게 웃으며 연습에 임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재현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함께 하는 찬양축제를 하면서 남녀 연합 전도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청중평가단의 대표로 저의 소감을 잠깐 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인 사라전도회(71-75세) '예수님이 좋아요' 찬송제목만으로도 무조건 일등입니다. 나이를 떠나 아직도 정정하시고 고운 모습 한 번씩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곡도, 가사도 잘 선정하고 50여명의 전도회원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어깨춤을 추시면서 은혜 받았습니



두 번째 순서인 마르다전도회(51-55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5명이 참석하여 젊고 단정한 비행사의 승무원과 같이 예쁜 핑크 스카프를 두르고 무반주로 시작한 여성 3부, 참 어려운데도 잘 소화 하여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아론전도회(71-75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장로님들의 찬양대같이 씩씩하고 우렁차게 믿음의 신앙고백을 하신 찬양 역시 3부로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나전도회(76세 이상)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 나와서 찬양대회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권사님 들입니다. 조금 밀면 어떨고 안 들려서 목소리가 커져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계신 것만으로도 안나 전도회원전체가 일등입니다. 정말 잘하시고 귀여웠습니다. 내년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또 찬송 불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전도회(66-70세)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역시 젊은 장로님들의 애절하고 간절하게 구주예수를 사랑한다고 2부로 잘 불러주셨습니다. 그 연세에 음 이탈 약간되어도 은혜로운 신앙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브리스가전도회(46-50세)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을 부르는 목소리도 예쁘고 의상도 단정하고 상큼하게 무엇보다 잘 하셨습니다. 아쉽게 우승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우승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찬양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전도회(76세 이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역시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셨습니다. 비록 2절 가사와 방송부와 잘 안 맞아서 늦게 나왔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김기호 장로님의 트럼본 소리가 아직도 정정합니다. 그 연세에 그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할 겁니다. 매년 마다 찬조출연 해주시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니다.

여덟 번째 한나전도회(66-70세) '나 주의 믿음 갖고' 와! 의상도 예쁘고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우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나오기까지 전화하시고 인사하시고 얼마나 수고하신 열매인지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비다전도회(56-60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은 우리 사순절 주제 찬송인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요? 네에 완전히 축제 무드였습니다. 리더가 워낙 리더인지라 제 집사람은(이경애 권사) 흐드는 것은 잘못하고 안 좋아하지만 찬양과 흐름을 따라야 하기에 온 몸으로 찬양을 하더군요. 다윗이 춤추는 것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찬양도 씩씩하고 좋았습니다. 좀 오버 하면 어떤가요? 북과 탬버린과 트라이앵글까지 동원하여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 갈렙전도회(56-60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은 저 아닌 여러분께 평가를 맡깁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를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주 다함께 하는 찬양 축제 청중 평가단의 평가를 마칩니다.

두 번째 주 특송 부부중창 '하나님 나 부르실 때'를 시작으로 9개 전도회의 찬양은 더 많이 준비되고 잘 다듬어진 멋진 무대들이었습니다. 우리교회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 전도회원들의 다양한 발상과 랩을 이용한 찬양곡 등 새로운 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루디아전도회 ‘하나님의 나팔소리’ 어린이의 맑은 목소리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나팔소리가 울개를 통해 울려 나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준비된 전도회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전도회(61-65세)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전도회원 답게 씩씩하고 멋있게 새땅에 들어가는 행진곡을 잘 들었습니다. 거의 교회의 중직자들로 구성되어 곳곳에 헌신하신 여호수아 회원들 감사하며 찬양과 같이 주님 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전도회(41-45세) ‘마라나타’ 입장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드린 마리아전도회 잘 준비된 찬양과 수화 에 이어 십자가 배열의 정렬과 웃과 스카프로 십자가를 마무리한 은혜로운 찬양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굴라전도회(46-50세) ‘만세 반석’ 비록 수는 적었지만 탬버린으로 이끌어 가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힘차게 멋있게 하모니를 이룬 찬양은 완전 유명한 어느 남성 중찬단보다 훌륭한 무대였으며 많은 환호를 받은 찬양으로 주님의 반석을 닮아 가길 소원하는 찬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교포부의 찬양 ‘중국의 아침 다섯 시’ 45여명의 교포들이 각양각색의 중국 전통 의상(치포)을 아름답게 차려 입고 중국에도 신앙의 자유를 얻어 새벽에 찬양 소리와 기도소리가 울리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찬양을 드리는 특별순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어 예배를 위해 이번에 교포들이 다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사역을 제시하는 기도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전도회(51-55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걸음 한걸음 주와 같이 걷겠네” 라는 찬양을 시작하여 씩씩하게 양쪽에서 무대를 향해 걸어오는 전도회의 입장은 완전 분위기 압도입니다. 시종일관 군대 사열 하는 것 같이 씩씩하게 걸으며 찬양하는 “날마다 날마다 주와 같이 가겠네”라며 고백하며 총성으로 마친 새로운 모습 감격입니다. 우리 교회의 허리중심부 베드로전도회 핫팅!!

뵤뵤전도회(36-40세)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젊고 예쁜 전도회와 같이 가슴에 장미꽃을 달고 입장하여 “주님과 함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는 참 맑고 청아한 음성으로 찬양과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전도회(41-45세) ‘부흥 2000’ 회장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했지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멋있는 나비넥타이를 맨 잘생긴 남성들의 하모니를 이룬 찬양은 열방을 치유하며 행

진하는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젊은 회원들이 우리교회에 꽃이 되고 열매를 맺히며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전도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에스더전도회(31-35세) '좋은 하나님' 청년부와 새가정을 이루는 전도회의 브릿지로 제일 젊은 전도회 답게 어린자녀들과 같이 참석하여 영아부 아이들의 선창으로 좋은 하나님을 시작하여 찬양과 율동, 랩으로 온 식구들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회가 잘 모이려면 항상 음식이 풍성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회장의 소감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귀한 보배들의 준비된 찬양과 정성 감사합니다.

요한전도회(36-40세) '밀알' 하얀 셔츠와 노란 나비넥타이로 통일한 전도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 감동 받았습니다. 힘든 사회생활, 가장 역할을 시작하는 젊은 전도회의 고백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들의 특송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를 부르면서 심사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에는 마리아 전도회가, 우수상은 바울전도회, 뵈뵈전도회가, 최다 참가상은 사라전도회가 인기상은 중국동포부에서 받았으며 상금과 트로피 전달이 있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상품을 나누어주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축제가 은혜롭게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축제를 통해 모든 전도회원과 임원 특히 회장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와 봉사와 열심히 우리교회를 위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샬롬!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을 꼽는다면 1846년 작곡한 오라토리오 ‘엘리야’ 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행적을 다룬 이 오라토리오 ‘엘리야’ 는 당시 유명했던 영국의 “버밍햄 음악제” 로부터 위촉받아 작곡된 대작입니다.

말 그대로 온갖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 내느라 멘델스존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 작품 속에는 이전의 멘델스존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깊이와 넓이와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멘델스존 자신은 유대계 독일인 이었지만 이 작품은 영국인들의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사로 작곡했습니다.

도입부를 포함해서 모두 2부 44곡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연주시간은 2시간10분 내외입니다.

곡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의 우상 바알신의 대립 및 엘리야의 승천을 그린 작품입니다.

1부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는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엘리야의 단호한 확신에 찬 아리아와 바알 선지자들의 절망적인 절규가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이 1부의 큰 사건이라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2부의 클라이맥스로 2부 줄거리는 왕후 이세벨의 엘리야에 대한 고소와 엘리야의 탈출 또 엘리야의 승천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호렘산에서 엘리야가 체제할때 나타난 폭풍우, 바다, 지진, 그리고 불덩어리에서 표제 음악적 요소를 잘 나타내줍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대규모 승리의 합창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월14일 4시에 40주년을 기념한 성탄절 찬양예배에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드라마틱한 이 오라토리오를 오페라(or 뮤지컬) 방식으로 연주하게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합창, 훌륭한 독창자들의 노래와 액팅, 40여명의 오케스트라 반주, 율동팀의 아름다운 무용, 대형화면을 이용한 극적인 배경 영상, 강렬한 조명 등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 이날 교회에 모여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와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엘리야 찬양 축제

2014년 12월 14일 오후 5시 분당

‘Forever Young’



김지현 집사

저에게는 교우들이 우리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지현집사”나 “형”, “오빠”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교회를 출석한지 20년이 넘었을 것이고 “김지현 집사님”으로 부른다면 출석한지 20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설립 40주년을 전도회별 찬양제의 진행을 지현집사가 도와 달라는 부탁받고 아굴라전도회 찬양도 준비해야하는 가운데 과연 순서를 사고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항상 해오던 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30여 년 전, 교회에서는 제2회 메시아 연주를 퀸즈칼리지와 필라델피아에서 가졌습니다. 이미 가졌던 그 전해에 제1회 메시아 연주는 못 보았지만 2회 연주도 저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이유로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형 그리고 누나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다니던 분들이 이제는 권사님들이 되셔서 이번 찬양제에 참석하신 몇 분의 누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곡은 다르지만 찬양의 아름다움은 변함없는 찬양의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뽕기로 결정한 순서가 공교롭게도 많은 어르신 전도회들이 첫 주에 찬양의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그들의 모습 뒤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들의 명과 상처들은 저에게는 세상의 그 어느 고운 한복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도 많이 봉사했다고, 많이 바쳤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저 벽돌 하나하나 올라감에 감사하던 헌신의 모습이 그들의 찬양에서 들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학생부 토요모임을 지붕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 시멘트 블록 쌓아놓은 곳에 앉아 성경공부를 하고 2부 순서로 먼지 투성이었던 성전을 빗자루로 쓸면 그 때는 많았던 나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시멘트 블록을 나르면 팔에 상처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귀한 성전 주심을 감사하면서 잠이 들던 순진했던 내 모습도 잠깐 생각해보았습니다.

진행을 감독하면서도 특송으로 오랜만에 잡은 기타를 메고 7080의 분위기를 잔뜩 내었던 “현과 훈”은 짧았던 연습기간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하나님께 색다른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 부르며.... 중학교 때 기타가 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클래식 기타를 하나 사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친구 음악상에 들렸다가 하나 사오셨다고 하시

면서..... 그 기타로 손가락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좋은 하나님”(God is so Good)을 쳤고 결국 “작은 불꽃 하나가”까지 메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학생부부터 청년부까지 또 찬양과 경배팀을 이어가며 항상 기타를 핑가핑가 치며 다녀오다가 잊어버린 기타의 멜로디를 찾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은 젊은 전도회들 위주로 젊은이들답게 화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 주어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숫자는 가장 적었지만 한분 한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우리 아굴라전도회원들의 찬양은 모든 교우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을 외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만세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장목사님께서서는 경배와 찬양의 비전을 가지시고 몇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모아 경배와 찬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예배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부르며 습관적으로 부르던 찬양을 떠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을 두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모습이 오늘 젊은이들의 찬양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에 청년부 셀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전도회들의 찬양제의 진행을 위해 이번 찬양제에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뽑아 예배를 섬기는 4부 안내팀들의 차분한 인도로 전도회원들의 입장과 퇴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힘찬 찬양소리를 들으며 25년 전 100명의 청년들이 지금의 유치부실에 모여 힘찬 찬양과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가졌던 청년부 모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청년들이 지금은 다른 곳에서 주를 섬기는 분들도 많고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사모로 주를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기반을 닦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이제는 부장으로 섬기며 내가 나누었던 좋은 신앙의 추억을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2부를 시작하며 그때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Forever Young!” 어쩔 그 때의 외침이 소원이 되어 “영원한 오빠”라는 말도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무도 열심히 준비하는 전도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겼던 어제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내일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몸부림과, 주를 위해 일어나 일꾼이 되어 나가려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심의 내일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오빠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찬양은 영원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는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이 교회에 남아 열매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다함께 찬양했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수진 집사

“집사님, 어서 나갈 준비 하세요!”
 이제 막 우수상 발표를 해서 뵈뵈 회장님이 종종 걸음으로 강대상으로 상을 타러 나갈 때였다. 마지막 대상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우리의 것인양 기대에 부푼 마리아 전도회원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한몸에 받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벤취 끝으로 슬금슬금 옮겨가는 순간 지난 2주간의 준비과정들이 하나 하나 퍼즐처럼 떠올랐다. 대상으로 마리아 전도회가 호명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퍼즐이 다 짝을 맞추어 완성되었고 우리 전도회가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올려 드렸음을 확신 할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의 준비과정에서 지휘를 맡아 주신 최집사님은 찬양 지휘뿐만이 아닌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스카프 마무리 각본까지 밀어 부치는 추진력을 보여준 장본인이다.

“우리 입장할때 영상으로 기도문 나레이션 나가면 좋을것 같지 않아요?” 라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던진 부회장님, 마리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문을 찬양제에 바치신 정집사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문을 하나님께 고백하신 이집사님,

멋진 수화찬양으로 연약한 자를 품는 정성과 사랑을 보여 주어 찬양을 한결 따뜻하게 만드신 두분의 집사님, 직접 디자인한 스카프로 찬양대의 의상과 소품을 센스있게 매치해 주어서 한층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손집사님, 연습할수 있는 방이 모자라 중등부 예배실까지 섭외해 주

신 이집사님, 사회보시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영상, 조명, 마이크 셋업까지 방송부와 코디해 주신 흥집사님, 새로 등록하셔서 낯설었을 터인데도 동참해 주신 새교우 마리아회원님들,
 또 다른 소속으로 찬양제를 준비함으로 분주한 가운데에도 마지막 연습에 나타나서 의리를 지키신 5분의 중국 교포 마리아회원님들,

곳곳에 계신 회원님들을 찾아주시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함전도사님등 그외에도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 주신 여러 집사님들,
 이 어찌 이번 찬양제의 theme인 “함께하는 찬양제”가 아니라 할수 있을까,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찬양제였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대상은 받았으나 수상의 여부를 떠나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 일하셨음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찬양제였고 감히 천국잔치의 맛을 미리 볼수 있었던 축제였다고 생각해 본다.
 전도회 회원 모두가 함께여서, 온 전도회가 함께여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찬양제였다.
 분명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행복하셨을 것이다.

마라타나 주 예수여!

주님! 주님 달리신 십자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진리를 부정할찌라도
그 세상이 나를 누르며 억압할찌라도
내 삶은 십자가 위에 서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과 자비 닦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진 것 적고 연약할찌라도
성령님 허락하신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당신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심령에 영안 허락하시어 당신을 볼 수 있어
한 순간도 당신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림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고 초라한 걸음에 당신의 그림자 비추시어
열방을 향해 큰 걸음 걸어가 당신의 뜻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마라타나 주 예수여 찬송하며 십자가의 사랑 전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정민영 집사



“플러싱 커뮤니티와 함께한 Fall Family Festival”



박정봉 집사

우리 퀸즈장로교회 “함께하는 한 가족 축제” 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허락하신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행사를 기획하신 조성윤 목사님, 준비 가운데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이무근 교육부 장로님, 처음부터 행사 management를 담당하신 이정훈집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몇일동안 음식 준비와 서빙을 담당해주신 교육부PTA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행사는, 올해(Fall Family Festival)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10월31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즐거움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전 QPEM, 하랑예찬, 중고등부, 한어부가 미리 중국어, 영어로 초청장을 만들어서 3주 동안 지역 사회에 다니면서 초청장을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입소문이 많이 나서인지 올해는 750여명이 넘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많은 가족들과 양증맞은 분장들을 한 기대에 찬 아이들로 퀸즈 장로교회를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되고, 조성윤 목사님의 해리포터 커스텀, 교육부 부서의 천사 커스텀,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의 눈에 띄는 의상으로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재밌는 놀이기구와 게임들, 풍선 만들기, 사탕 바구니 만들기 등 재밌는 놀거리,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 나누고도 남아서 주일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중국어 예배를 위해 중국 교포분들의 참여도 놀라웠습니다. 따로 차(Tea)와 스프(soup) 준비를 하여 전도지와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서도 있었으며, 전도 폭발부의 동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따로 준비된 전도지 배부하는 청년들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 중간에는 각 부서별로 준비된 선물을 나눠드리며 간단한 모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배와 찬양팀과 하랑예찬 아이들의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되어 새롭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준비된 선물을 모두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족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음식 준비에 QPEM의 참여와 교육부PTA의 부모님들이 동참하여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었고, 안수집사님들의 협조와 차량부까지 모든 교인들이 총동원되어 봉사와 헌신이 있었고 장결자, 초신자, 모든 가족, 그리고 이웃 타민족의 참여, 커뮤니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걸맞게 함께하고 나누는 천국의 놀이동산이 되었던 함께하는 한 가족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가정 그리고 이웃과 하나되는, 축복이 흐르는 퀸즈장로교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Fall Family Festival 설교



중등부 박은호

*지난 10월 31일(금) 에 있었던 함께하는 한 가족 축제(Family Fall Festival) 때 화제가 된 예배시간에 중등부 박은호 학생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눈 설교말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린 학생이 직접 준비한 설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눈 “복음” 은 함께한 7백여 명의 마음속에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때에 생물과 개미들, 나무들과 산들, 행성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우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 첫 사람이 아담이며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모두는 결코 완전한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지옥에 가야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과 자비안에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한 그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사람과 같습니다. 그 분은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분이 누구인지 알려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2,000년 전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후에, 예수님은 죽음에 남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죄악이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았으며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느 오후에 한 스쿨버스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버스에 많이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버스가 험한 언덕길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운전자는 왼쪽으로 돌릴수도 없었는데, 그옆은 높은 벽이 었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버스가 언덕으로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 버스 운전자는 언덕 밑에 있는 문 게이트에 넓은 필드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는 버스를 그 게이트쪽으로 향하였고 안전한 스탑을 하기까지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버스의 길목에 아무 방해물이 없기만을 바랬습니다. 언덕에서 사고가 난 버스가 게이트로 빠른 속도로 접근 될 때 작은 아이 하나가 그 게이트 앞에 서 있어서 그 버스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그 게이트를 피한다면 차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될것입니다.

운전자는 울먹이는 소리를 지르며 버스를 그 게이트쪽으로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순식간에 죽게 되었고 대신에 많은 아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응급차가 도착하고 학부모님들과 친척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운전자가 빠른 생각으로 사고를 제어한 것에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디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전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심한 쇼크에 시달리어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 팬스앞에 있던 아이가 그 운전자의 아들입니다.”

버스 운전자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돌진해야할 우리를 예수님을 피값으로 대신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의 타 종교의 다른점은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만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그 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음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증거가 충분치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미움과 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13년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무엇이 텅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왜 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구멍을 다른 것들로 채워 놓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 벌레입니다. 책 읽기가 매우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이로운 계획과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장 한장을 넘길때 마다 용서하시는 셀수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지저분하고 가치없는 존재임을 알고 슬펐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울음이 터지게 되었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앞에 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 놓았습니다.

와, 벗어 버림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다시는 용서받기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것을 간절히 믿으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증명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랄만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40살의 장년이 된 우리 교회와 고 황동오 장로님을 추억하며



황은애 권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 1:4)

우리 교회가 벌써 40살의 장년이 되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는 30살의 예쁜 나이였는데 이제는 육순의 반을 지나는 노년이 되었으니 한 세대가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황동오 장로님(시아주버님이심) …, 그토록 건강하셔서 복음을 위해 선교지를 다니시던 원로 목사님도 병중에 계시고 육신의 연약해 집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 젊을 때부터 봉사하시며 힘 있게 일하시던 장로님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병 가운데 계신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의 굵은일을 담당하시고 바자회 때는 허리 아파하시면서도 열심히 일 하셨던 많은 권사님들도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는 나이 들어 연약한 중에 계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를 책임지며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영아부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영아부에 오고 있으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어 있음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김승욱목사-한국 할렐루야 교회, 김도현 목사-영어예배, 김재형목사, 조성윤목사, 박성권전도사 등등)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이 교회를 책임져갈 믿음의 역군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진정 40년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왔으며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다시 써가는 교회로 도약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김성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무릎기도와 사랑으로 온 성도들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교회는 더욱 안정과 평안을 되찾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열정을 쏟으신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를 잊지 않으며 하루 속히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회복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고 황동오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한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온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서(50여명), 장로님의 축복기도로 즐거운 식사를 하며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윗놀이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얼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자녀들이 어른들께 세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린 손자 손녀들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며 넉죽 세배를 하는 모습이 모든 가족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30년이 넘도록 해마다 주안에서 온 친지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은 고 황장로님과 형님이신 황복순권사님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튼튼한 버팀목으로 믿고 있던 고 황장로님이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가신 것이 너무 섭섭하고 아쉬워 장례식 때에 많은 친지들과 조카들 손자 손녀들까지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교회에선 첫 번째 교회장으로 장례예식을 치르게 되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인지...

모든 가족과 친지들에게 믿음과 온유와 사랑을 심어주고 떠나신 고 황동오장로님,



우리들도 그 믿음을 이어 받아 죽음을 예비하며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교훈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후에도 이 믿음 잘 지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퀸즈장로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박혜진 성도

저는 뉴저지에서 결혼하기 전 무료한 주말에 만난 커피 사 준다는 친한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교수님 강의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닿아서 오직 그 교회만을 고집하며, 결혼 후 뉴욕으로 옮겨와서도 수 많은 전도에도 그 교회만을 다녔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기를 은근히 바라며, 예배에 참석한 날보다 참석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으며, 세례를 받았음에도 진정 크리스천이 아니고 오히려 속으로는 부정하는 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작년 늦가을 이사를 계기로 퀸즈장로교회에 거의 동생의 반 강제적인 전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생에 살아가는 시간이 편하지만은 않기에 늘 다음 생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타종교를 더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데, 새가족 교육설교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한 마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전기 충격 같은 번쩍임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그날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새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남을 걱정하지도 않게 되었고, 전도 폭발 훈련자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말 내 책장의 많은 칸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불교 서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기 며칠 전 성경책을 읽다 번쩍 “아! 불교 책들을 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장에는 기독교 관련 책이 두세 권뿐인데 불교 서적은 두 팔로 다 안기 힘들만큼 많았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는 몇 권 되지 않는 기독교 책들이 몇 배나

많은 불교 서적들과 싸우고 있었고 결국엔 이겼습니다. 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참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의 많은 세상의 책들 속에서 구하고 위로받으려 했던 말씀들을 성경책에서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은 스스로도 신기해 사진으로 찍어 읽고 또 읽습니다.

새가족 설교 때 담임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으려 기도 합니다. 그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내게 주어지는 일들도 인내와 사랑과 침묵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운전을 하며 찬양을 듣다, 교회 봉사자 분들의 간증을 듣다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다가도, 단 위에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온 몸으로 찬양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창피함만 사라져준다면 따라서 신나게 찬양하며,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서투르지만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제 일상에 매일 매일 세상의 일들이 생기지만 전처럼 심각해 걱정만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시시각각 내 안에서 육육하는 내가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해 하고, 불평하며, 화도 내지만 내가 올라오는 횟수가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하며,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말 예배시간 제가 앉아 있는 그 긴 의자가 저의 가족으로 채워져서 같이 새벽 예배도 보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 편집을 도우는 동생의 반 강제로 이 간증을 시작했지만, 쓰면서 다시 한 번 반 크리스천으로 산 시간을 회개하며, 퀸즈장로교회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선교사명



장봉석 장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인 예배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해외선교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타민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은 내지선교 내지 국내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장영춘 원로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설립초기, 1984년의 첫 선교바자회를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배려로 2013년부터 함미희 전도사님을 선교담당 부교역자로 임명하여 주셔서 선교 계획과 활동 내용을 정리,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체계적으로 선교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991년 2월에 도미니카에 최초로 김종호 선교사님을 파송한 이후 1992년3월에는 길웅남 선교사님을 카작스탄 알마티에 파송하여 퀸즈장로교회의 지교회인 갈보리장로교회(현재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설립케 하시고 1998년에

는 자체 성전의 헌당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는 그동안 현지사정으로 부득이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허브로서 2014년 현재 김관중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현지인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또한 현지 한국선교사들과 선교유대를 가지고 주변국가로 복음전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대식 성전 개보수를 내년 중에 완공하기 위하여 현지 전교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아시아지역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을 물색하던 중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위치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불교국가이면서 종교 활동이 자유로운 캄보디아를 선택하여 2010년 초에 부지를 구입하였고 해마다 계속해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2013년 6월 박수영선교사님을 캄보디아 씨엠렘에 파송하여 2013년 8월 교회 및 교육관 기공예배를 드리고, 2014년 1월에는 교회입당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렸으며, 퀸즈장로교회의 지교회인 베델교회와 베델유치원(교육 NGO)을 정부로부터 허가 받아 현재 주중에는 Language school을 운영하면서 주일에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100여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델유치원을 2015년 4월 개원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델교회는 주위에 있는 불교권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선교허브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외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장성철, 김성필, 김일환, 송인범, 전영구, 조수정, 류두만, 김바울, 최정호, 박동서, 이희봉, 김성엽, 홍황식 등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미니카, 카작스탄,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P 국, 등에 파송하였고 2014년 현재 지교회인 카작스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와 캄보디아 베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한인선교협의회, 단비인터내쇼날에 대한후원을 교회전체의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23명의 선교사들을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해마다 카작스탄, 도미니카, 우간다, 케냐, 에리트리아, 중국, 몽골,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해외와 국내로는 인디안 보호지역, 펜실베이니아 빈민지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교회가 있는 카작스탄과 캄보디아에만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신 김성국 목사님을 2013년 11월 3대 담임목사님으로 우리교회에 보내주셔서 2014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여 주셔서 6월부터 8월까지 카작스탄, 중국 시안 지역, 중국 내몽고 지역, 케냐, 캄보디아에 해외 열방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 하였으며 내지로는 펜실베이니아 빈민지역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어서 복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은 해외에는 캄보디아, 카작스탄, 중국, 케냐이외 중남미지역과 다른 아시아지역에도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특별히 내지선교로는 교회적으로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전파를 위하여 중국어 예배와 새로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2-3곳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어느 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임으로 선교의 전초기지이며, 최전방이며, 선교의 출발점이며, 귀결점인 New York에 위치한 퀸즈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비전을 교회 목표로 삼고,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중남미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지교회 형식의 선교기지를 만들어 카작스탄, 캄보디아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교회 선교센터로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육시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장자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의 나라를 위하여 7바퀴 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드립니다.



김원도 장로

1997년 성탄절에 글로리아찬양단이라는 이름으로 25명의 대원과 4명의 솔리스트, 그리고 관현악대와 함께 Hendel의 Messiah 공연(지휘: 김성진, 오르간: 현정숙, 피아노: 선우 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 4월 24일, 21명의 대원들은 하나같이 상기된 모습으로, 교회 Van에 분승하여 Philadelphia로 출발하였습니다. 영생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13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미주크리스천신문사 주최)의 폐회에 배에 특별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창을 좋아하며 꾸준히 연습하시던 몇 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부들과 1995년부터 활동하시던 남여 중창단원들을 중심으로 급조하여 준비는 부족 하였지만 정성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새 뉴욕으로 돌아오는 Van 안에서 누군(?)가의 제안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내년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갑시다”라는 동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에 선교중창을 위한 미션을 주신 순간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이시며 당시 담임목사님이신 장영춘목사님께서 본 중창단의 이름을 “글로리아선교중창단”으로 개명해 주셨고, 격려가운데 인원을 보강하며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자가 당시에 찬양대 부대장이라는 직분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에 자유롭게 못한 분들이 계셨고, 자비량으로 출발한 중창단이었기에 경제적인 부담



감과 1주일 이상 직장, 사업터, 학업을 비워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드디어 한국을 경유하는 동경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첫 소풍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함께 21명의 대원,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다수의 성도님들과 같은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찬양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퀸즈장로교회 역사에 첫 기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휘는 김만규집사님(현재 목사님으로 한국에서 사역 중), 반주는 흥민아집사님(현재 부산 H교회 담임목사 사모)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첫 해외 찬양선교지인 동경중앙교회에서의 찬양은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은 물론이고, 참석하신 퀸장성도님들도 같은 감격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퀸장의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의 세계를 향한 찬양선교의 첫 걸음 이였습니다. 화답송을 준비하던 중에 감사목사님의 말씀이 1시간가량 길어지시는 바람에 강대 뒤에 좁은 공간에서 긴장되어 기다렸던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긴장되곤 하지요.

모든 공식일정을 마치고 동행하신 모든 분들과 4월인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눈 덮인 후지산 중턱에 올라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일본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귀국길에 서울에 들려 장목사님께서 감사님으로 예정된 부흥회에 함께 참여 하여, 특별 찬양을 드린 후에 해산하여 자유로이 귀국케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귀환한 후, 원로목사님께서 중창단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시며, 만찬을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의 세미나 참석을 정례화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해 9월12일 카네기홀에서 개최된 미주기독교방송국 주최 ‘99 성가대합창제’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뉴욕지역에서의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의 첫 데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제15회 세미나는 서울에서 금란교회와 워커히를 오가며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고국에서의 첫 번째 찬양이었고, 금란교회라는 대형교회에서의 찬양이라 많은 부담은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이 받는 은혜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였고 보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님은 내일 찬양곡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곤 하였습니다.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이 찬양선교를 시작한 이후 세계로의 발돋움 하게 된 곳이 바로 남미 San Paulo, Brazil에서 거행된 제16회 세미나에서 부터였습니다.

그곳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한인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고국의 반대편에서 이민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한 의미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요일에 배겸 세미나가 한인교회에서 있었는데 예배도중에 정전으로 말미암아 에어컨도, 선풍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턱시도와 드레스로 단장한 대원들이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아 내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옷이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곤 합니다.

세미나 후에는 세계 명승지인 이구아수 폭포와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인 Rio De Janeiro, 그리고 예수님 동상을 볼 수 있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외에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은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뉴욕, L. A, 동경,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등 4회에 걸쳐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인상적이었던 음악회는 동경 중앙교회에서의 음악회입니다. 동경시내의 노숙자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 한국에서 김영미권사님이 오셔서 부른 찬양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제일교회에서의 음악회는 눈물의 음악회였습니다. 김성엽선교사님의 사역지이기도 한 그곳 한인 이민자들은 너무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방문자들도 많지 않아서 우리의 찬양은 목마른 그들에게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앙코르가 이어졌고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계속 눈물을 흘리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은 매4년마다 Chicago, Billy Graham Center에서 거행되는 “세계 선교대회”에도 참가하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대원들의 직장과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오후에 출발하여 찬양 후 거의 뜯눈으로 보내고 새벽 첫 비행기로 뉴욕으로 돌아오는 강행군을 하곤 하였지요.

세계에 흩어져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로 하고 새롭게 선교사 사명을 위해 다짐하는 복된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림은 참으로 귀한 사명이므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2005년 10월20일은 미국교회 뉴욕 협의회가 주관하는 2005년도 “탁월한 지도자 상”을 한인 최초로 장영춘목사님이 수상하시게 됨에 따라,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이 찬양하여(주기도문을 영어로) 참석한 미국 목회자들과 귀빈들의 기립 박수로 환영 받게 되었으며,



또한 본 중창단이 미국 교계에 진출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미국 단체에서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을 초청한 기억이 나는군요.

2006년 4월24 부터 4일간, Canada Vancouver에서 개최된 제21회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귀국한 후, 본 중창단은 1주일 후 다시 한국으로 꼭 가야할 중요한 행사 스케줄이 생겼습니다.

광주 제일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주최하는 제4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장목사님께서 마지막 예배에 강사로 말씀을

선포 하시게 되고, 이때 글로리아 선교 중창단이 찬양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대원들이 모두 다녀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의 금란교회라고 합니다.

김홍도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장목사님과 미주 크리스천신문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3번이나 유치해 주셨습니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글로리아선교 중창단의 일원으로 김홍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을 사랑하시며 격려 해주시는 후원자가 한분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가면 본인의 Credit Card를 마음껏 쓰라고 주시는 분입니다(마음 약한 저희들은 단 1,000원 도 쓸 수 없었음).

제18회 때에는 공식일정을 마친 중창단 전원을 1박2일 동안 경포대 관광호텔로 초대해 주셔서 경포대와 설악산, 통일 전망대등을 관광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22회(2006년 4월, 서울금란교회, 워커힐)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참석하시고 간증 시간을 가졌던 것이 생각나며, 이때에 찬양 부르는 우리 중창단에게 모 정당에서 의원 조찬기도회에 특별찬양 요청이 있었으나 저의 일정상 거절하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어서 제 23회는 Honolulu Hyatt Hotel, Hawaii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Waikiki 해변가를 바라보는 휴양지에서의 세미나에는 세계 각 지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휴식과 함께 재충전의 귀한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5월1일 저녁, Brooklyn소재 Christian Culture Center에서 거행된 대 뉴욕 지구 미국교회 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장영춘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축도를 하시고 저희 중창단의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24회 세미나(Buenos Aires, Argentine)는 제18회 세미나(원주 명성교회 기도원)와 같이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기도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각의 아름답고 넓은 지역에 잘 꾸며져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세미나는 호텔에서 거행되었기에 부부 혹은 두 명이 한 침실을 사용했지만 이곳에서는 남성대원 10명이 한 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도 하나인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샤워 순서나 화장실 사용은 고참(?) 순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군요. 군대 내무반 생활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소개합니다. 밤마다 코고는 소리... 그런데 파트별로 코를 고는데 정말 코골이 중창이었지요. 테너는 테너다운, 베이스는 베이스다운 저음으로 코를 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부 옆에 대원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불평들을 하더군요. 필자가 보고 확인 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이 글을 쓰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는군요.

일반적으로 선교 하면 Africa를 떠올리게 되지요. 장목사님께서 제25회 세미나는 Af-

rica Kenya의 수도 Nairobi에서 개최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지의 저 문명 세계에서,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Africa 현지의 오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연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유럽의 Ice Land에서 화산이 폭발되어 모든 유럽 경유 비행기가 운항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원중 홍승룡장로님, 전성호 장로님, 그리고 저희 부부등 4명이 타고 갈 비행편이 취소되고, 언제 오픈될는지 예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을 경유하지 않는 항공사는 Arab Emirate 뿐인데 모든Kenya행 여행자들의 쓸림 속에 비행기 표를 구하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개최예배는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우리4명은 짐을 풀고 못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에서는 장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기다리며 기도 하신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아내 김 권사가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항공사 Web site에 들어가 한참동안 씨름을 하더니만, 함성을 지르며 항공권 2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2장만 더,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국 항공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마도 어느 승객이 마지막 순간에 여행취소를 한 티켓 같았습니다.

Reservation 번호는 받았으나 항공료는 비행기 타기 전에 JFK공항에서 지불해야하고 좌석도 확인해 줄수 없다는 E mail을 받고는 불안한 마음에 항공사 800번호로 직접 요청을 시도하였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Hold하고는 항공사 직원과의 확인 후, 밤12시가 넘어 두 장로님께 전화하여 풀었던 짐을 다시 싸고, 새벽기도 후 공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항공료를 지불하고 Boarding Pass를 받으려 했으나 직원이 아무리 찾아도 예약근거가 없다는 또 한 번의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컴퓨터상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30분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높은 사람 같은 직원이 오길래 항의를 하였더니, “Yes here, I found it ” 할렐루야!!!! Dubai 경유하여 서둘러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대원들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Massai족 들이 사는 마을을 보게 되었고, 현지 교회인 Narok 지방의 “Light Christian Church ”를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사와 장영춘 원로목사님의 열정적으로 뿌려놓은 복음의 문서선교와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의 찬양 사역, 그리고 매년 여름에 시행되는 퀸즈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의 땀방울을 통하여 Africa 불모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26회 (Las Vegas)와 제27회 (금란교회, Walker Hill) 도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부가 결성되고, 잘 정돈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제28회(2013년4월) 세미나는 참석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세미나였습니다. 왜냐고요? 개최지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항상 그러했지만 세미나를 통해 받는 은혜는 어느 부흥집회나 말씀공부와는 또 다른 감동으로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영감의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모슬렘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많은 혼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더 빨리 와서 보고, 경험 하였다면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때, 또는 말씀공부를 한때 너무도 유익 하였으리라 확신합니다. 혹,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꼭,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이번 제28회 세미나 일정은 강의와 함께 기독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18년 동안, 필자와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세미나 참석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한 세미나 진행을 총괄하시던 흥승룡장로님께서 직장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음이 못내 아쉬웠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앞두고 우리 중창단에 합류하여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상훈장로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와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에서의 경험, 유대인의 학살 등 많은 이야기는 제한된 지면 관계로 사진으로 대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제29회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발표 되었으나, 장영춘 원로 목사님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18년 동안 본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을 자비량으로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며, 순수한 찬양곡만을 연주하는 선교 중창단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잠시 묵상 하며 뒤를 돌아보니, 지구를 7바퀴 반(비행거리) 달려 왔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섯 분의 지휘자님들과 여덟 분의 반주자, 천국에 가신 고 박명현권사님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의 연인원이 함께 활동하였으며, 찬양곡은 아마도 120여곡을 넘은 것으로 기억되어 집니다.

2003년~현재 지휘는 윤원상전도사님, 오르간 윤희주집사님, 피아노 최미희집사님과 그리고 대장 김원도장로 외 총27명의 대원과 함께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중창단이 새롭게 거듭나기위해,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글로리아선교중창단(Gloria Singers)”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과 가족들, 해외에 흩어져 계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목회자님, 선교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퀸즈장로교회의 원로목사님시며, 미주 크리스천신문사 발행인 장영춘목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글로리아선교중창단 연혁

- 1997. 12 성탄축하 메시아공연
- 1998. 4 제13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영생장로교회, Philadelphia)
- 1999. 4 제14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중앙교회, Tokyo, Japan)
- 1999. 6 뉴욕기독교TV방송국(CH76) 개국기념성회
- 1999. 9 미주기독교방송국 주최 '미주성가대합창제'
(카네기홀, NY)
- 2000. 4 제15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금란교회, 서울)
- 2000. 7 제4회 세계한인선교대회 (Billy Graham Center, Chicago)
- 2001. 4 제1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 (Sao Paulo, Brazil)
- 2001. 10 911 참사 유가족을 위한 촛불예배(한소망장로교회, NJ)
- 2002. 4 제1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휴스턴한인교회, Texas)
- 2003. 4 제1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명성교회&기도원, 한국)
- 2003. 6 제1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
(퀸즈장로교회, NY)
- 2003. 10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민 100주년 기념대회
(퀸즈장로교회, NY)
- 2004. 4 제19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LA, CA)
- 2004. 4 제2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
(LA동양선교교회, CA)
- 2004. 7 제5회 세계한인선교대회
(Billy Graham Center, Chicago)
- 2005. 4 제20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중앙교회, Tokyo, Japan)
- 2005. 4 제3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
(중앙교회, Tokyo, Japan)
- 2005. 6 '할렐루야 2005 대뉴욕복음화 대회' (순복음뉴욕교회)
- 2005. 10 미국뉴욕교회협의회'목회자상' 수상식(NY, NY)
- 2005. 11 'FOR2007' 열린음악회 (Colden Center, NY)
- 2005. 12 원로성직자 성탄축하예배 (효신교회)
- 2006. 4 제21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밴쿠버, Canada)
- 2006. 5 제4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광주중앙교회, 한국)
- 2006. 7 '할렐루야 2006 대뉴욕복음화 대회' (Colden Center)
- 2006. 1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뉴욕집회 (퀸즈한인교회)
- 2007. 4 제22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금란교회, 서울)
- 2007. 6 NY 목사회 주최 '차세대를 위한 컨퍼런스' (순복음뉴욕교회)
- 2007. 7 '할렐루야 2007 대뉴욕복음화 대회' (퀸즈한인교회)
- 2007. 9 뉴욕 Futon Street 성령화운동 100주년 기념집회
(C. C. C., NY)
- 2007. 11 제4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을 위한 음악회
(퀸즈장로교회, NY)
- 2008. 4 제23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호놀룰루, 하와이)
- 2008. 5 미국뉴욕교회협의회 회장 취임식
(Christian Cultural Center, NY)
- 2008. 7 '할렐루야
2008 7 대뉴욕복음화 대회' (순복음뉴욕교회)
- 2008. 7 제6회 세계한인선교대회 (Billy Graham Center, Chicago)
- 2009. 4 제24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 2010. 4 제25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나이로비, 케냐)
- 2011. 5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Las Vegas, Nevada)
- 2012. 4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금란교회, 서울)
- 2012. 7 제7회 세계한인선교대회 (Billy Graham Center, Chicago)
- 2013. 4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밖에 많은 교회 행사에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림



아민! 아민! 아민!



함미희 전도사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40여명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서 날아와 자신들 앞에 서있는 까만 머리와 까만 눈동자를 가진 동양 여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나 또한 수년간 설교 한다고 강대상에 서서 어린 아이들 앞에 섰었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

시차로 밤에 한 숨도 자지 못하고 교회의 여러 행사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담감까지 겹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준비해온 말씀과 사역일정 등을 정리하는 동안 알마티의 아침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최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처럼”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내게 수십 년이 걸린 말씀을 나는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30분 동안에 전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수화 통역자의 손짓이 끝나자마자 괴성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민!, 아민!, 아민!”

나는 그게 ‘아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소리로 그들이 내 말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듣지 못하는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들의 눈동자를...

그래서 그들의 아멘은 어떤 습관적이거나 설교자 배려 차원의 아멘이 아닌 그들의 심령에서 올려나오는 아멘이었다.

나는 얼마나 진심어린 아멘을 외쳤던가.
갑자기 내 설교지의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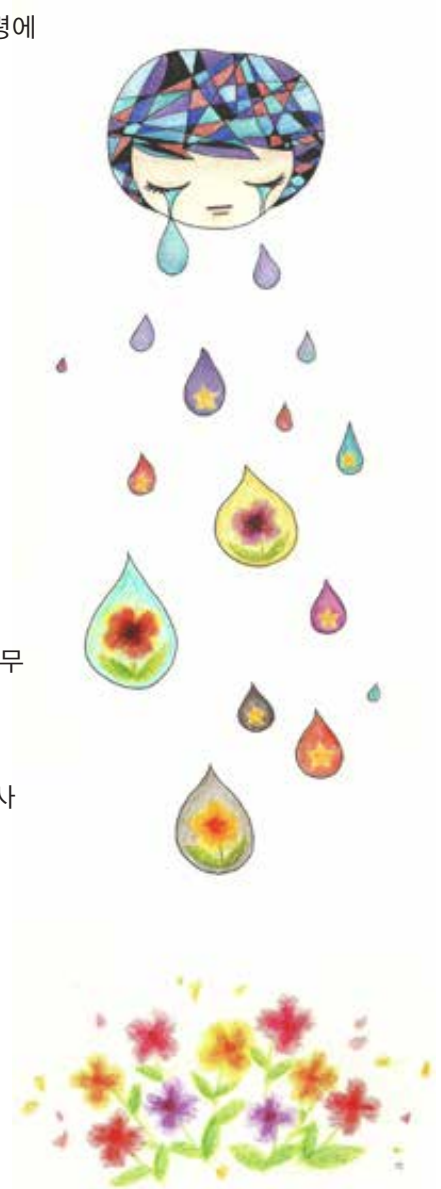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카작스탄의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의 청각장애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물려왔다.

“아민, 아민, 아민” 그들이 한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외칠 때마다 나는 피로와 시차로 무거워진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다.

* 2014년 퀸즈장로교회 여름 단기 선교 첫 번 사역지인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서의 사역은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5명의 선교단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선교역사



김관중 선교사

뉴욕 퀸즈장로교회 모교회의 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교회가 개척하여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의 선교 역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1992년 3월 8일- 장영춘목사님의 기도와 선교 비전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가 아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교회를 개척하심. 교회의 명칭은 갈보리 교회이며 초대 선교사는 길웅남목사이고, 예배 장소는 농업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2. 1994년- 김진관목사가 2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였고, 교통부 회의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3. 1995년~1998년- 3대 선교사로 송인범목사가 파송되었고, 교통부 건물, 농업대학교 강당, 37번 학교, 173번 유치원 강당으로 옮겨다니며 예배를 드리다가 1998년 현재의 장소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와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4. 1999년~2000년- 4대 선교사로 조수정목사가 파송되어 기존의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5. 2001년- 5대 선교사로 박동서목사가 파송되어 기존의 사역을 이어갔으며 특히 소년원 선교를 시작으로 소년원에 작은 방을 임대하여 교회를 만들고 감옥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6. 2001년- 6대 선교사로 이희봉목사가 파송되었고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어 2002년 8월 1일부로 교회 명의를 갈보리 교회에서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로 개명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7. 2002년- 7대 선교사로 김관중목사가 파송되어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라는 교회명으로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지교회로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1). 2001년부터 시작된 소년원 내부의 교회는 2003년까지 교도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후원을 겸하여 선교하였으나 교도소의 교도 소장의 습관적인 금품 요구와 불합리적인 횡포가 거듭되어 소년원 선교를 중단하고 장애인 선교와 어린이 정신병원 예배로 변경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2). 청각 장애인 선교는 서울 충현교회의 에바다 선교회와 협력하여 이슬람 국가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평신도 지도자(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신도 성경학교’를 3년 과정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3회 졸업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2시간 동안 기본 교리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하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2회 정도 배우게 됩니다.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구역장과 교사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 2004년 9월 19일에 첫 번째로 장로 피택 1명(김형모집사)과 안수 집사 1명과 권사 5명을 선거하였으나 장로 피택자는 개인 사정에 의해 포기하였고 그 외는 임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8일에 두 번째 임직식을 하여 안수집사 10명(현지인 4명, 한인 6명)과 권사 10명(현지인 5명, 한인 5명)과 시무 권사 1명(한인)이 임직되어 그전보다 더 활발한 협력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5). 2006년 1월 12일에는 모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 주신 선교비로 선교사 사택(아파트)을 구입하여 임대로 이사하며 다니던 고생을 끝내고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2009년에는 현 교회 토지가 개인 용도의 건물로 구입하여 종교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토지 관리부에서 재차 벌금을 부과하던 중에 앞으로는 종교 활동을 중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현지 카작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 용도변



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선교부장이신 임정장로님께서 국가로부터 토지 재매입을 위한 비용을 직접 들고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재매입과 토지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티에 몇 안 되는 종교 부지를 갖고 선교하는 완벽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7). 2012년에는 계속된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 그동안 대통령에 의해 보류되었던 새 종교법이 승인이 되어 10월 25일까지 모든 종교 단체는 재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10명의 현지인 성도의 명단으로 교회 등록이 되었는데 이제는 50명의 현지인 성도의 명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카작인과 18세 이하는 성도는 제외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법으로 카작인은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명의 현지인 성도들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고 주민증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정보국 직원과 면담을 하여 그 교회의 교인인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40%의 교회가 미등록되어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만약 종교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벌금과 2년 감옥형을 받고 외국인은 2년 실형 후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문제는 있었고 등록 인원은 확보 되었지만 교회 서류가 이 나라에선 못마땅하게 판단되어 교회 정관 내용을 빌미로 10월 25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23일 밤에 재등록 서류 미비로 등록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미 등록된 장로교 정관을 빌려오고 24일 하루 동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인 성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교회로 와서 서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을 남긴 시간으로 교회 재등록 서류가 접수되었고 2012년 11월 5일부로 등록 허가를 받아 지금은 종교부지에서 재등록된 교회로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온 성도들이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8). 현재는 1998년에 건축된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낡고, 하수도과 도시 가스 시설이 없어서 설치와 건물 개보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교회 건물 초기에 하수도를 설치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 지금은 하수도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정화조를 큰 사이즈로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서장의 사인과 설치 검사만 받으면 도시 가스 허락과 가스 파이프 매설 설치와 허가까지 3년 동안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참으로 긴 시간동안 담당자들과의 힘들고 고달픈 작업이었지만 곧 열매를 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의 건축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지금은 설계사가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비용이 계산될 것이고 그때에는 건물 개보수를 위해 전심으로 협력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인 성도들은 주재원들이 많아 3년 주기로 교회를 떠나고 현지인 성도들은 열악한 형편이라 건축이든 개보수이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낡은 건물이 잦은 여진(지진)으

로 건물이 갈라지고 외벽은 떨어져 흉물스러워지니 성도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 형태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되어서 공공건물로서의 자격 미달이 되어 관공서로부터 벌금과 경고와 때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결하고자 기도한 후에 무겁지만 기쁜 마음으로 건물 개보수 결정을 온 성도들이 하였습니다. 설계 도면의 허가가 나온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중앙아시아 선교의 허브로 자리 잡은 카자흐스탄은 계속된 경제 성장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선두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1인당 GNP는 이제 13,000불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등록의 문제가 되어진 2년 전부터는 일선 선교의 일꾼들이 선교사에서 현지인 사역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 재등록이 안되고, 그래서 선교 허가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뒤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키르키즈스탄의 GMS(예장 합동 총회선교부) 선교사들이 중심되어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보다 물가가 3배나 저렴한 3시간 거리의 키르키즈스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목회자)들이 3박4일,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2~3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월에 온 성도들이 특별 선교 헌금을 모아 7천불의 경비를 지원하여 80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축(개보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성도들에게 선교를 교육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주님이 알게 하셔서 섬겼는데 그 섬김을 받은 80여명의 현지 사역자들은 저희 교회가 청각 장애인들과 현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을 알고 눈물로 감사를 전해서 저희도 기쁨의 눈물 잔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10). 현재 저희 자교회는 현지인 성도들이 130여명(청각 장애인 60명), 한인 성도들이 100여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슬람의 분위기로 더욱 위축되어 있으며 민족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전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성도들은 100여명 출석하지만 3년 주기로 임기가 끝나면 귀임을 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의 일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짧지만 굵게 모두가 기쁨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1). 저는 모교회의 사랑을 힘입어 이곳에서 12년을 지나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12년을 지나 여기까지 와 있어서 하나님께, 모교회와 성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웠지만 건강하게 자라난 교회를 보면서 많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서 건강한 22살의 청년답게 우리 교회는 중앙아시아의 하나님의 선교(복음)을 위해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12). 저희 가족들은 사모와 두 아들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모는 한인 찬양대 지휘자와 새가족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음악 학교를 졸업한 후에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대학을 다니다가 두 아이가 대학 공부하기가 어렵고 군대를 가야 하기에 큰 아들은 한국 군대에 입대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후에 제대를 하면 둘째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될 것이고 큰 아이가 대학 공부를 계속하며 교회를 더욱 섬길 것입니다.

13). 마지막으로 소개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알마티 단기 선교팀’들입니다. 거의 매년 방문하여 사랑과 기도와 사역으로 저희 교회를 건강하게 양육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실 때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활기찬 생명력을 느낍니다. 우리 모교회 선교팀의 특징은 도착하시는 날부터 가시는 날까지 사역만 하시고 관광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마티의 고참 선교사이면서도 이곳의 관광명소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섬겨주신 모든 단기 선교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모교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교회를 알마티에 개척하여 주신 장영춘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중심하고 있는 자교회(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알마티에서 김관중, 이재의, 선호, 선웅선교사 드립니다.



우정과 사랑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은 수첩의 맨 앞에 적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눈 감아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선물을 나누어 갖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줄 선물로도 늘 주머니가 가난합니다.
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생일이 기다려지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의 생일을 기다려지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려도 즐거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나하고만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아쉽지만 돌아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도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정은 곁에 있는 것으로도 가슴 벅찬 느낌표이지만,

사랑은 곁에 있을수록 확인하고픈 물음표인 것입니다.



‘하나 됨’



송현규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국 B팀에서 단기선교를 다녀온 송현규 입니다. 먼저 선교의 비전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목사님과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장춘시, 백성시 그리고 내몽고에 있는 두 마을의 농촌 교회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뉴욕 퀸즈장로교회에서 파송된 6명, 연길에서 통역을 위해 참가한 중국인 2명과 조선인 8명 그리고 백성에서 합류한 목사님을 비롯한 중국인 동역자 6명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팀은 접수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팀은 내과 그리고 치과 진료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팀은 상담 및 전도를 맡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약 500명의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었다는 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사역을 마친 후 서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지만, 더 중요한 복음을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평화로운지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를 움직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고가는 모든 길 위에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배운 것은 ‘하나 됨’입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방식도 다른 팀원들로 구성되었지만,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것을 매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나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중국의 아침 다섯시



이애령 집사

우선 만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또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미국 땅에 우리 퀸즈장로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더 나아가 이제는 중국어 예배까지 허락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은 불교, 유교, 미신 등을 많이 믿으면서 살아왔고 무엇보다 공산당 사상을 지닌 나라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게 하셨으므로 지금은 중국의 전체 인구중에서 1억이란 크리스찬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정부에서 인정된 교회(삼자교회) 정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회(지하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수 없으므로 신앙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이므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신앙의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들을 미국으로 보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시고 계시며 특별히 플러싱에는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선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으로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가 주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개인을 전도하므로 한 가정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중국이 복음화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온 중국에 퍼지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지난주 새벽예배시간에는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중국교포들이 드리는 찬양순서를 맡게 되었다. 찬양대를 처음 서보는 자도 있었고 전에부터 찬양대에 속하여 봉사한 자도 있었으며 어린이,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르는 찬송제목은 '중국의 아침 다섯시'이다.

중국의 아침다섯시 기도소리 들리네
 주님께 구하여 복음 화평 이루게 하소서
 중국의 아침 다섯시 기도소리 들리네
 모두 다 진정 사랑으로 한 맘 한 뜻 이루네

중국의 아침 다섯시 기도소리 들리네
 만수천산 날아넘어 차가운 심령독이네
 고난도 없고 전염병도 없네 축복이 오네
 운명을 돌려 좋은날을 거두네



이 곡은 지난 교회 설립 40주년 찬양축제 때 우리교포 50여명이 모여서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면서 중국 전통복장인 지포를 입고 불렀던 찬양곡이었다. 두번째 불려서 인지 더 은혜롭고 더 힘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한맘, 한뜻 중국어 예배에 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중국어 예배를 허락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 18-20)

그리운 퀸즈장로교회



한창렬 집사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영적으로 나를 키워주신 원로 장영춘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체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하여 죄송하여서 이 글을 올립니다. 원로목사님 몸은 어떠하신지요. 이젠 많이 회복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가 퀸즈장로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40주년 축하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으로 어린 신앙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신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목사님과 담임 김성국목사님, 황혜옥전도사님과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조선족 교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더욱이 믿음의 본보기 되신 이양미전도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떠나 온지 어제 같은데 어느덧 3주가 지나갔습니다.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벌러 미국으로 왔건만 돌아 갈 때에는 복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떠나오기 전날,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나를 키워주신 퀸즈장로교회를 떠나는 그 아쉬움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그 눈물,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으며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회에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건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기쁨과 행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 삶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퀸즈장로교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였으며,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서 사는 것이었으며, 나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 확신되었을 때였고,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는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였으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식들도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였으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부정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실을 볼 때였습니다.

눈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음이었습니다. 돈이 있다하여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은 잠시일 뿐 영원한 기쁨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던 나를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퀸즈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는 나의 생애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연변교회 상황을 전하려 합니다. 연길을 비롯한 큰 성시의 조선족 교회는 그나마 부흥된다고 하지만 연변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연길교회도 성도 4천명에서 3분의 1이 줄어들고 있으며 시골 교회는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도 국내, 국외로 모두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곤명성의 성장이 기층 사찰을 내려왔다가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열분을 토하면서 시내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 전국 당원 총수는 8천만 명인데 기독교 교인은 1억이 넘으니깐 정부의 두려움이 앞선 거지요 때문에 중국선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분이 폭로되지 않게끔 조심할 것을 바랍니다.

할 말은 많으나 오늘 이것으로 마치면서 장영춘목사님 건강이 하루 속히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또한 김성국목사님을 중심으로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좁무리업수어~~~
따의내아 삭세방이때?



박수영 선교사

좁무리업수어~~~ 따의내아 삭세방이때?

지금 제가 한 말은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라는 인사말입니다.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도 퀸즈장로교회에 가족과 함께 등록하여 사랑의 공동체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후, 청년의 때 주의 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지난해 2013년 5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은혜 받으며 성장하였던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안의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유년부 전도사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다양한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2013년도 졸업 후의 나아갈 길과 사역지를 놓고 1월 1일부터 작정기도 하는 중에 때마침 교회와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부르셔서 6월 22일 캄보디아 씨엠립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로 여름마다 캄보디아에 3차례 왔었기에 현지 환경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2주간씩 사역하였던 것이 전부였기에 직접적인 현지인들과 문화를 긴밀하게 겪지 않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 야무지고 똑똑하다 생각했지만 현지 언어와 생활, 문화를 모르는 저는 처음 미국 이민 왔을 때처럼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7월부터 10월까지 우기여서 매일 쏟아지는 비에, 10초만 가만히 있어도 달려드는 모기에, 습한 나라에서의 집안 곳곳의 곰팡이, 개미, 거미, 각종벌레와 도마뱀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번번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왕이지만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예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6년 전에 동남아 지역 선교센터로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며 씨엠립 공항에서 20여분 떨어진 크나마에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였고, 제가 도착하였을 당시 땅 주위로 집들이 하나, 돌씩 생겨가며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킬로 반경에 공립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생 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여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4시간씩 공부시키는 게 전부였고, 성인 평균 한달 월급이 100불 정도에 올라가는 물가를 감당 못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의 학생들까지도 하루 일당 3불에서 5불을 벌기위해 학교도 안 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와 힌두교의 문화로 각자의 집에 우상신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전체 2프로도 되지 않은 진정한 소망이 없는 나라 이었습니다.

교회와의 상의 후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학문교육이 절실하기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야한다는 목표로 작년 8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던 땅위에 우선 우물 파기부터 시작하여, 전기줄과 전봇대까지 큰길에서 저희 땅까지 1킬로 정도 끌어와 전기와 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임으로 공사장 한쪽에 오두막으로 임시 예배처소를 짓고 9월 첫 주부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며 현지사정에 둔해 혹시라도 속을까, 그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바자회 때마다 20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일하며 1불, 2불씩 모은 헌금을 낭비할까 싶어 눈뜨면 건축, 하루 종일 건축, 자기 전에도 건축, 꿈에서도 건축과 완공을 위해 기도하며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문의하고 알아보고 확인해가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비만 따로 주고, 재료는 우리가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현지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올라가 사람들이 쉬는 11시부터 1시까지 시간에도 인터넷을 살피며 현지 법등을 찾아보고, 건축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유치원, 학교 도면, 그림, 색채 등을 살펴보며 공부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 사역은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내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앞으로의 합법적인 사역을 위해 캄보디아 내 비영리 단체(NGO) 허가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였고, 땅 등기와 소유에 문제가 없도록 법인을 세우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지에서 길지 않은 1년2개월의 시간동안 초보 선교사로 이런저런 실수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귀한 헌금 낭비할까, 혹이나 여자라고, 말 못하는 외국인이라 사기당할까 온 마음과 시간과 정신을 건축에 드리고 있으면서도, 막상 매일 외국인이라 속이려고 하는 현지인들을 대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며 건축자와의 갈등, 엉켜있는 행정일등으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많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몇 시간씩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며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뜨겁게 타오르던 자만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깨시고 다듬어가셨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빚어가셨습니다.

매번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교회에 한바탕 이메일을 쓰고 힘들어할 때 “박선교사님 혼자만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당장 들어오세요”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끝까지 건축을 마무리 지어 주신 교회와, 장영춘 원로목사님,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지난 일 년 동안 꾸준히 지도해주신 장봉석 장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앞으로 넓게 펼쳐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기초를 깔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현지사람들을 세워 가야하고 훈련시키며 제자를 만들어 가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역으로 아이들을 위한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 기타, 키보드, 드럼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주중모임을 갖고 훈련시켜야하고 본격적인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도 해야 합니다.

매일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오는 50여명의 아이들에게 꾸준히 영어를 가르쳐야하고, 한글 수업을 언제 하냐고 조르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글 수업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학교 사역으로 뽀넬 유치원을 시작으로 그 지역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아이들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영어와 현지어로 쓰고, 말하고, 듣기를 가르치고, 수학, 과학과, 현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예체능(미술, 악기, 체육), safety.(안전) health (위생), character development(성품교육)까지도 가르치며 국제학교수준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달리, 기회조차 없는, 캄보디아라는 땅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평생 이동해본적도 없는 빈민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장차 캄보디아나라를 책임질 신앙인으로, 위대한 인물들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역을 저 혼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장기, 단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인종, 나라, 연령, 환경을 떠나 헌신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의 파송선교사로 캄보디아 땅을 밟으며 사역을 진행하지만,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무릎 선교사로, 기도와 후원 사역을 함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퀸즈장로교회 지교회인 캄보디아 뽀엤교회와 학교를 통해 그 지역과, 캄보디아, 그리고 동남아 전체가 속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퀸즈장로교회가 앞장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는 아이들



박정은 전도사

세계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뉴욕,... 세계, 문화, 경제 중심지 제1의 도시 뉴욕,

그 뉴욕은 세상의 어느 도시 보다 더 다양한 모습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나름대로 서로간의 유대 관계를 지키며 각 인종과 문화가 어울려져 숨을 쉬는 뉴욕은 다양성이 한 곳에서 녹아든다고 하여 melting po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딴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산교육을 삶의 현장인 이 뉴욕에서 받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계를 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를 품는 꿈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를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선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정을 세우신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귀를 대고 들어 보라, 하나님의 탄식소리와 고동소리가 우리를 향해 외쳐오고 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이 사명은 우리 개개인의 사상과 삶에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지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교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사명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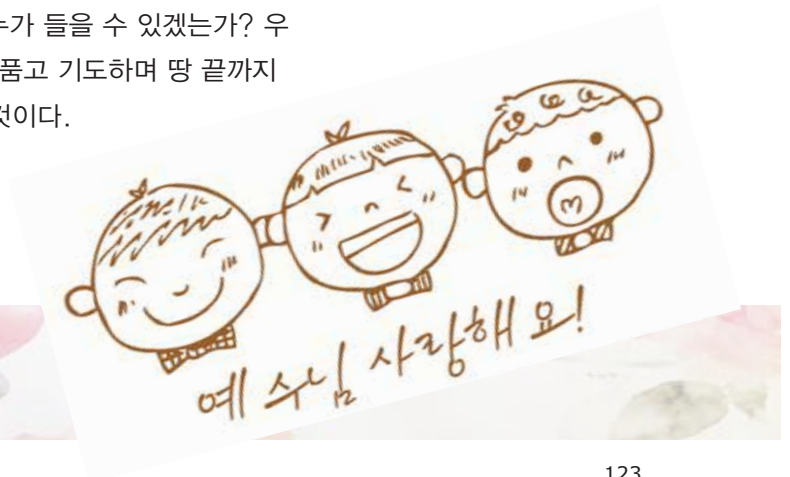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본질적으로 세계에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아래에 있다. 오히려 어린 순전한 믿음의 골격이 세계를 축복하는 선교적인 의식을 계발하고, 특별히 세계의 중심지에서 세계인으로서의 위치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선교적인 의식을 갖도록 돕는 길에는 원리가 있다.

첫째는 선교를 알게 하는 것이다. 동화나 영화,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두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 현장의 이야기나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둘째는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 직접 만든 그림편지들을 보내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서 선교나, 선교 헌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내는 일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실습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을 통해 준비 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돕는 행동을 통해, 이웃을 위하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닿는 대로 도와줌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대한 순종과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헌신 등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큰 꿈나무들로 자라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기 원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라 내지 선교 다녀오면서...

Inner city Mission



고등부 신혜지



이번 in-
ner-city
mission은
저의 생애
처음으로 갔
던 선교였

습니다. 처음으로 inner city mission에 대해 들었을 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이번 돌아오는 9월이면 저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3학년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동안 할 것이 많아 “이번에도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이번 선교는 저에게서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셔서 갑자기 선교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inner-city 선교팀원들은 모두 저와 같이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준비들이 새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을 친구들과 함께 선교갈 생각을 하니 모두들 설레임을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막상 필라델피아에 도착하니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였고, 그런 낙후한곳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날인 주일에는 Grace and Peace 교회에서 예

배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인종도 다르고, 사람들의 행색도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팀원들 모두가 감동받고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선교를 갔던 일주일동안 저희들의 임무는 교회가 운영하는 summer camp에서 counselor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Summer camp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하나에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뉴욕에 사는 우리들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부모님을 귀찮게 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내는 게 우리였고 “나”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제가 도우려 온 거였지만, 오히려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서 배웠습니다. 비록 미숙하고 많이 서툴렀던 선교 팀이었지만, 팀원들 모두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주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내년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더 나아질 2015년 inner-city mission을 기약하고, 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볼 아이들을 상상하면 내년 선교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Inner City Mission



고등부 Sarah Son

This mission was really exciting to me and actually came at a time when I really needed it. I wanted to go to missions for a while now and this mission gave me exactly what I needed. I never understood when adults called us “spoiled” in life, as well as in faith. I didn’t think we were spoiled.

However, during missions, we had a chance to worship and join Grace and Peace Church’s Sunday service. They worshipped so freely, with so much abandon. Their service was really just between each individual and God.

That got me thinking because some of these people have a lot less than we do and have nothing to be thankful for, yet they worship and love God more than we do. I was so blessed just being in that one service. Also, I realized that it’s easy to look at someone who has a little bit more than you and to feel like God’s not being fair, but what we should be doing is to be thankful for all that we already have and to help people who have as much.

We are selfish and spoiled; we have a huge church full of good people who help us every chance they get. It’s therefore easy to become lazy in our faith; however, going to this mission inspired me to get more involved and to constantly find more ways to love and to meet God. We

went to this mission to help people, but in the end, they helped us, and for that, I am grateful.



Philadelphia Mission 2014



고등부 정희영
Clara Jung



I always assumed that going on missions meant flying overseas and sharing the gospel in a global spectrum. It had never crossed my mind that mission work can be done in just a 5-hour car ride away from home. Going into this Philadelphia mission trip, I can honestly say that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But I did know one thing for sure; I was eager to serve and spread God's love wherever He took me.

We arrived at Grace and Peace church in Philadelphia on Saturday so we attended the Sunday service there the next day. It was an interesting dynamic to be a part of. Though the people there lacked many things, I saw that they were never short in their faith in God. They did everything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and for God's glory. It was a true honor to have been surrounded by people with such love and passion. Volunteering at the CSI (Christian Summer Institute) camp during the week, I built incredible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children and also the members of our KAPCQ Philadelphia mission team.

I think I received more than I had to offer during this mission trip. I don't know what kind of impact I had on the people of the Grace and Peace church but I know that they made an extraordinary impact in my life. The church taught me how to be humble and how to give from my heart; the kids opened my eyes to look forward to what's ahead and be thankful for all the struggles and blessings in my life. Lastly, this mission team, that I grew to truly care for and love, taught me that God is needed not only in third world countries and less fortunate cities, but also in the lives of your neighbors, your friends and your families.



I thank God, KAPCQ, and everyone who was involved in this mission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learn, mature and grow in Christ. This has been an incredible spiritual journey and the most memorable summer of my life. I am looking forward to see what else God has planned for me and, hopefully, to go back to Philadelphia next summer.



Testimony



고등부 허남준

Everywhere I look, there is nothing. The heat is striking upon us, and we are running out of water. There are only goats, goat poop, thorns, and people underneath the shades. I thought to myself, how am I supposed to survive in 120 degrees weather for seven days. However, the scenery of Turkana, the sunrise, and the people worshipping God alleviated all the hardships we went through.

On July 18, the mission team and I left New York and headed to Kenya. We were all nervous and anxious about the mission trip because Africa, in our minds, was a place where there was nothing.

After our two nights in Nairobi, we departed to Turkana. On our first day of missions, everything was disorganized and in chaos. We did not have the time; therefore, we did not know when to start and when to end. Also, the generator was not functioning, and we had to use the guitar. Pastor Brian and I had to switch off playing.

Later, Pastor Brian got sick, and I had to take over singing praise with the guitar. At the end of the day, we were all exhausted, and my fingers were in agony. As we went back to our base and tents, we decided to go to the well.

Although we washed our hair with the salty water, it felt so nice to have something cold on our bodies. The well was twenty minutes away from our tents, so we walked back and notice how beautiful the stars were.

After we entered our tents, we played jokes on our each other, and quickly crashed onto our sleeping bags.

Although the mission trip in Turkana was difficult, I had a great time as well. One thing I really missed was the bathroom. If we wanted to do our business, we had to dig holes, and cover them with dirt. Initially, I was uncomfortable with the situation, but after a day, it felt really nice. The mission team enjoyed the outdoor bathroom, including Pastor Brian who went five times a day. I will never forget the poop stick our youngest member, Derek, had. He would always follow me to the bathroom, so that he could dig the holes.

One thing that really touched my heart was when the mission team and I visited five houses one by one. The people really needed our prayers, especially for healing. We, then, gave each person a balloon, sang praises, and prayed for them. I realized God had truly revealed himself to the

people and even to us. I remembered the prayer requests of the people there. They all needed healing especially this five year old girl named Alice.

These people had nothing and had sickness, but they still praised God.

I will always remember the time when we left Nake Pokan. The mission team and I had to ride a pick-up truck for three to four hours. The sun poured upon us, and dust drenched our faces and bodies. After we arrived to the capital city Turkana, Missionary Kang bought all of us ice cold sodas. As I took the first sip of my Fanta, I saw a new world. I never realized soda tasted so good. After gulping down one Fanta, missionary Kang offered me another soda. I quickly thanked him, and drank the coke.

We, then, rested in Pastor George's house, and ate goat meat for the first time. It tasted really good and the meat melted inside my mouth. The next day, we visited a church, and we took part in their service. The people sang praises for an hour straight, and we listened to the Word in Swahili.

After we finished our mission in Turkana, we had to go back to Nairobi. The next day, we visited the safari, and saw many animals we only see in TV. I marveled at God's creation. I enjoyed watching impalas, hyenas, two cheetahs, warthogs, elephants, giraffes, and more. I was in awe of the scenery and landscape in which we only see in Lion King.

The mission trip to Kenya opened my eyes. I learned many things about the nation and myself. I would never forget the Quiet Times we did in Turkana. Although these people lacked water and food, they were still grateful for everything they had. Although they need water, I pray that God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aspect of their lives. I pray that we as a church would be able to pray for these people for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Let us be a church that will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For it say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Matthew 5:14-16 ESV)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최진식 집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아가페에 원고 청탁을 받고 많은 부담이 되었으나 지난 9년 동안 저희 가정의 이민생활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제게 주신 언약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아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구하며 섬길 교회를 위해 먼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지인의 절친이신 이안식장로님께서 퀸즈장로교회에 계시다는 소식이 닿았고 저희 가정의 목적지는 이민을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로 정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훈련들과 연단들이 이 땅으로의 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의 이민 초기의 추억은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기억뿐입니다. 새가족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토요 새벽기도, 그리고 간절했던 사순절 새벽기도까지 오직 예배와 기도와 간구로 저희의 가야할 길을 구하고 간구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교회 중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지휘자로 교회를 섬겨왔던 까닭에 지휘자의 자리에서 저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지만 그 당시 모든 예배에 지휘자가 있었기에 저는 찬양대의 대원으로서 기도하며 찬양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특송을 하게 된 교회에서 지휘자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사택을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의 주급을 주겠다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마 23:17) 라는 말씀에 너무나 큰 찔림을 받고 거룩한 성전보다, 하나님보다, 성전의 금을 잠시 바라보았던 우둔함을 회개하며 초빙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다시 지휘자가 꼭 필요한 그 교회의 상황과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그 조건과 성전의 금이 아닌 주의 일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저 남아 있으라는 장영춘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게 되었고 다시 1년 이상을 찬양자로 섬기다 2007년 1월 지휘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함께 온 아내는 가족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병원을 찾고 있었으나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먼저 agency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 불이 남은 거금을 들여서 agency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금액이 너무 컸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곳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했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다시 회개하며 그 agency와의 계약을 무작정 믿음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North Carolina에 먼저 이민을 와있던 아내의 친구를 통해,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것도 뉴욕이 아닌 보스톤에 있는 미국인 agent에 소개 되어 지금의 병원에서 가족 모두의 영주권 스폰서를 전액 병원부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많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믿음생활과 달리 정직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빠듯한 이민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큰 믿음의 훈련이요 또한 연단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고 연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십일조 생활과 평범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드러지는 이 땅에서의 십일조와 정직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은 간혹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렌트비를 늦게 보내는 달이 있었어도 정직한 십일조를 드렸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물질을 갑자기 부어주시며 이민 5년 만에 저희 가정에 작은 집을 장만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또한 3살 된 아들 태현이만 데리고 이민을 왔었는데 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이 하나뿐인 아내를 통해 태희와 태준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주님은 순탄하고 평온한 저희 가정에 2년 전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비자 갱신을 위한 시험을 아내가 기한 안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7년을 일해 온 병원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신분의 회복도 어려운 참담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간절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요동하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더욱 간절한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 14:17) 그 기적의 처음 응답은 바로 환란 중에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붙들려 몸부림칠 때 그 두 번째 응답은 회복과 축복이 있으리라는 수많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와 말씀을 보던 중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레 25:4)라는 말씀 속에서 그 해 이민을 온지 7년을 맞이하는 저희 가정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환란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사 43:2) 말씀처럼 그렇게 두렵던 물과 불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 할 수 있었습니다. 옴의 환란을 기억하며 그에게 베푸신 갑절의 축복이 내게도 임할 은혜임을 사모하며 옴기를 묵상할 때는 그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한다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인내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셨으므로 말씀은 회복을 향한 기도의 끈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서있었다고는 했으나 실은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오게 된 저는 한국에서는 오페라 싱어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음악학원을 경영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몇 년은 오페라 활동을 했지만 주일 성수를 뒤로하는 오디션에는 가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 가정을 돌보아야 했기에 성악가로서 이루지 못한 꿈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휘자로 찬양자로 예배에 시종 들며 쓰임 받는 일은 언제나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넘치는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이고 또 축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해 2013년 축복성구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 영혼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시 73: 28)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과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에 순종하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제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길 서원하고 기도하며 신학교 입학 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아내가 시험에 통과 되었고 예전에 있던 병원으 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소망 없이 울던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 니라 자고 있다 그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 기적의 순간을 붙들고 깨어 나길 기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셨다’(마 11:20) 라는 말씀을 주셔서 회개와 빠른 회복을 위한 40일 금식기도를 아내와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진행은 빨라졌고 그 마지막 40일에 아내의 출근날짜까지 정 확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6)

교회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믿었기에 늘 평안함이 있었고 환란 중에도 형통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헌신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기도의 삼경을 이루어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성도들이 있어 퀸즈장로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에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성산이요 또한 은혜의 동산입니다.

저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소리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참 소리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리고 말씀의 소리만 이 참 소리요 참 능력이며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싸움을 마치고 가나안에서의 정착을 앞둔 여호수아가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 종도 이렇게 선포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며



박세은 교수



저는 5교구 휘레스트힐 지역에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지도 덕분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때마다 순전히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분주함과 때로는 고되게 느껴지는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지치면서 신앙생활은 무덤덤한 일상이 되어 저희는 마치 Sunday 교인과 같이 그저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주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기쁨이 거의 없어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느낌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월에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3월 22일 퀸즈장로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였고 곧바로 3월 25일부터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육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김성국 목사님의 쉬우면서도 마음 속 깊이 전달되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진심으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며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분을 어떤 위치에 모셔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의 왕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의 감정에 치우치고 내 지식과 경험에 더 비중을 두고 말하고 행동해왔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도 나처럼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다시 깨닫고 있고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과정을 소개해주시고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라이드 해주신 전도사님과 새가족 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질 만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여전도회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제 새가족 교육 과정은 수료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신 천금보다 더 귀한 깨달음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을 늘 제 마음 속 의자에 홀로 앉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상에 몸을 누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부활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새가족 교육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이 과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박수영 선교사

저는 불신자가정의 사업하는 부모님의 1남2녀 중 장녀이자 둘째로 자랐습니다. 타고난 활발한 기질대로 소란스럽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로 말미암아 서울 개포동에서 좋은 교육 받으며 자랐으나 중학교 때 부모님의 사업이 점차 힘들어져 중학교 2학년 말쯤엔 거의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지하실 방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매일 울며 지낼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 때 가족들의 결정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뉴욕 부르크클린에서 살면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 동네 집사님의 전도로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중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던 시기였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기뻛고, 하루하루 새롭고 즐겁고 신나던 날들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3-4번 이상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초신자에 불과하였지만 많이 성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며 집도 이사하고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시들해졌을 무렵 그냥 평

범히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싫고 좁은 한인 타운 한인교회에서 사는 것도 답답해 미국사회에서 자리 잡고 세계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가서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당당히 서고 명예와 돈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시민권이 없었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받는 예비군으로 우선 지원을 하였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나름대로 치과의사 장교라는 목표로 공부하고 있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 이라크로 파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4개월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학교 복학을 기다리는 그 6개월의 기간은 너무나 힘들던 날이었습니다. 거칠었고, 괴팍하고, 교만했으며 나를 이해 못하는 가족들도 미웠습니다. 암전히 학교 잘 다니면서 졸업하고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공부가 남아있고 연약한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해야 하며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내 자신, 내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불꼬불 한가 비교하며 열등감에 미칠 듯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퀸즈장로교회 여름수련회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깨 등 돌렸고, 두 팔 벌리시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눈을 가렸고,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세워놓은 날 위한 목적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돌아돌아 온 탕자를 그렇게 따듯이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계속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안에서 차근차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학교를 복학하여 의료선교사를 지원하며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에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요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만하게도 베드로와 바울같이 생각되던 내가 왜 요나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의 깨끗함을 알았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에 숨겨져 있던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과 돈, 명예에 대한 나의 욕심을 하나님은 꿰뚫어보셨고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하며 반항하던 요나처럼 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하게 될 것이라 여기며 손꼽으며 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계획임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 원하시는 것은 따로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 당시 왜 그리 크게만 느껴졌는지, 왜 그리 돌고 돌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안에 자리 잡았던 내가 너무나 크기에, 나의 교만함과 삐죽한 바위들을 품은 모습들을 갈고 만지시 기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후 청년의 때, 주의 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2013년 5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으며 성장했던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다니면서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유년부 전도사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다양한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었지만 군대시절 이라크로 파병되어 중동지역의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땅을 밟으며 기도하게 하였고,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2010년 교역자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가면서 처음 캄보디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후 매년 2주 동안 단기선교로 3차례 캄보디아 땅을 밟으며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해인 2013년 1월부터 졸업 후의 진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중에 국교는 불교지만 종교적으로 문이 열려있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시엠립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상 된 불교문화, 또 1000년 이상 된 힌두교 문화가 섞여 있는 캄보디아는 대부분 집이나 사업 터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신당 같은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25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7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엄청나며 부정부패는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구의 1/3이 죽임을 당했고 문맹률이 높으며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60-100달러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인 이 지역에서 중학생 나이의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며 식당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공립학교에서 오전반/오후반으로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수준과 대우도 형편없고 수업내용도 엉망이라 제대로 된 인재들이 길러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시엠립 지역에 흙모래 길에서 누렇게 바랜 색의 옷을 입고 있고 놀거리를 찾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교회에서 사주신 20년 된 자동차를 몰고 지나갈 때 신나게 손을 흔들어주고 맨발로 쫓아오는 친구들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겪지도 않았던 TV에서 보았던 한국의 6.25이후의 힘들었던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학교가 세워졌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빈민지역 계몽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 캄보디아 땅에 파송선교사로 교회와 학교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현지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 주님 이 땅에 오심은...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노을



심의례 전도사

퀸즈장로교회 성인대학이 1989년 9월에 설립이 되어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프로그램들이 뉴욕에 많이 있지만, 80년대에는 이민자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이 없었고 미국노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영어를 못해 함께 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혹은 자녀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일터에 나가고 나면 영어를 못하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답답한 어르신들에게 영어도 배우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 서로 만나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성인대학을 담임이신 장영춘 목사님이 1989년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성인대학 담당은 이귀순전도사, 학생회장(고) 허태형 장로님이셨고, 많은 퀸장의 젊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맡아 봉사해 주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 성인대학은 일반 대학과 같이 4년제 8학기를 마쳐야 졸업식을 합니다, 한 학기라도 빠지면 그 학기를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고, 사각모를 쓰고 가족과 자녀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일반 대학 같이 거창하게 졸업식을 합니다.(졸업을 해도 계속 나오지만)

2대 성인대학을 담당하게 된 것은 제가 2004년 1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을 때, 장 목사님께서 교구장을 다시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앞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플타임 교구장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 성인대학 가을학기가 시작 될 무렵 전도사님이 타주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서 제가 성인대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주(화, 금) 2번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로 영어는 초급, 중급, 고급반과 음악, 에어로빅, 건강특강, 중국어, 한국역사 미국역사와 봄, 가을에 있는 수학여행, 가을에는 단풍 곱게 물든 산길을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즐거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각모를 쓰고 졸업식을 할 때에는 마치 박사학위나 받는 것처럼 최선의 멋을 부리고 졸업식에 임 하던 학생들...

학업이 끝나면 점심식사는 일류식당보다 다양한 부페식 음식들로 차려진 초고의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유에 따라 붓글씨, 뜨개질, 만들기 등도 있습니다.

필라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 성인대학과 교환 초청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초청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맨해튼 구경도 시켜드렸는데, 다음해 5월 우리 성인대학이 초청해서 갔는데 점심도 잘 대접받고 좋은 공연과 장기자랑이 있는 후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특별 상품을 주셨는데 우리 성인대학생 3명이 장수상을 받았습니다. 퀸즈성인대학에 나오면 90세가 넘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퀸즈장로교회를 위해 많은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말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40주년을 맞이 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황혜옥 전도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15:7)

어느덧 미국생활을 시작한지 8년, 길고도 짧은 8년을 뒤돌아보니 너무도 많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 다른 사람들이 도미한지 일 년 되었다고 2년, 3년 되었다고 하면 저는 언제 1년이 되어서 잘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8년 하면 길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짧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뜻 깊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8년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중국의 13억 가운데서 저를 택하여서 미국 땅에 인도하여 퀸즈장로교회를 예비하여주셔서 낯설고 물 설은 땅에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꿈도 소망도 없이 어떻게 미국생활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를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중국에서는 한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 짧고도 긴 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주시고 7년 동안 시련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큰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지난날을 돌이켜 봅니다. 중국의 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아버지는 교원으로, 어머니는 골수 공산당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정을 배경으로 능력 있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부러움 없이 살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한 때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절망과 애통과 원망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하며 지난날의 추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11월, 복지관을 하려고 지었던 건물이 건축한지 1개월 만에 잣더미로 변하고, 2000년 2월 구정 이튿날, 한국에 있던 시동생의 갑작스런 사망과 4월 26일에는 남편이 차사고로 강물에 빠져 사망하고 시신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생긴 그 많은 불행과 고통들, 저는 하나님이 왜... 왜 저한테서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과 재산을? 왜... 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아닌지 1년 정도밖에 안되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였고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던 사람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통하여 저는 옴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온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또 뜻이 계셔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남편과 자식을 더 사랑하였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였으며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제 뜻대로만 살아왔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과, 우리의 생사 회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고통과 고난과 불행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과 오직 십자가만의 나의 힘ियो, 능력ियो, 기쁨ियो, 평안ियो, 소망이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랑하는 중국교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민의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특별히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남편이 교회에 못 가게 말리면 이혼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간증하는 모습, 현재 그들이 구역 예배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 교육부 각 부서에서 교사로, 운전 봉사료, 경배와 찬양 팀으로, 바디워시프로,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모차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공부를 하는 신학생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국교포들에 대한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순간순간 깨달으며 그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작은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분문제나 어려운 문제만 해결 받고 떠나가지만 그들이 어느 때인가는 꼭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몇 년을 집사로 섬겼음에도 이민생활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잠시 타주로 갔거나, 중국에서 가족들이 옴으로 그들을 케어 하느라 힘들어서 잠시 못나오거나, 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싫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많은 중국교포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여주심과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따뜻한 사랑은 중국교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랑이 그 어디에선가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중국교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더욱 더 함께 힘을 합하여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미국까지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애통과 절망과 원망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연단하시다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와 중국교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이신 장영춘목사님과 김성국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세들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국학교



김경순 사모

우리는 시시초초 변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미 정부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이미 30여 년 전에 본교에서는 자녀들의 2세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퀸즈장로교회 부속 한국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한국인 2세들에게 모국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향상시키고, 한국어 및 한국 역사와 문화교육을 육성하고, 한국인 2세들이 미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주위 인근 많은 한국학교들의 교과과정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글교육을 위해 초창기 30년 역사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장영춘 목사님(교장), 김진화 선생님(교감), 심청 선생님(교무), 정영숙 선생님(서무), 성호영 선생님께서 시작하셨으며, 미주보급의 공로로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에서 국무총리상(장영춘 목사)과 한국역사, 한글교재를 편찬하여 공급한 공로로 교육부장관상(김진화 목사)을 받기도한 미주 동부의 자랑스러운 한국학교 산실인 장자 학교이기도 합니다. 본교는 2세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한국어, 한국역사, 동요 및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2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며, 미

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 한국어교육의 미래의 과제제시

1.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학습지도안 작성, 현지 내용교재개발, 교수방법, 평가방법을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외국어습득 기준에 맞춘다.
2. 한국어교육을 미국학교의 정규교과과정으로 추진시킨다.
3.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사훈련이 필요하다.
4.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한/영 이중문화인이 되게 한다.
5.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 배출이 시급하다.



*** 한국학교 행사 및 중점사업**

- 1 역사문화체험학교 운영
- 2 한영-영한 번역대회 실시
- 3 절기행사 및 민속대회
- 4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동화구연 대회, 글짓기, 한국역사 문화 퀴즈대회
- 5 교사 지도안작성대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국어를 가르치는 주말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미국의 각 급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었고 성적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의 뒷배경에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국학교 민족 뿌리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20년 후, 또는 30년 후의 미래의 주역들이며 단순히 학생들에게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미국 주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학생들은 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이로 기억해 주고 여러분들이 가르친 참된 교육의 내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의 자랑과 교사들의 사명은 철저하게 준비된 훈련 받은 교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한글 사용 능력을 파악하여 교육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잠재력을 개발되어 향상되도록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주 1회 공부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또한 2세 자녀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며 또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미국

사회의 지도자로 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심지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Korean American 2세대들 중에는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익혀 여러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 행사에서 훌륭히 공연을 해낸 저희의 아이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를 매주 기도합니다. 언어를 익힘에 있어서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배우는 언어는 실용적이지도 못하며, 언어발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1세 혹은 1.5세 부모들과 2세나 3세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어주어 크리스천 가정의 실제적인 화합에 도움이 되며, 크게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나가는 한국학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가페 유치원



박은영 집사

저희 아가페 유치원은 이번해로 제 21회 입학식을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이번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으며 저희 유치원은 교회나이 40에 그 반을 같이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유치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치원의 가을학기 등록을 받으며 유치원 자랑을 해주세요!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랑거리가 어디 한두 가지 여야죠'하는 말로 시작하여 말을 하다 보니 정말로 이렇게 좋은 유치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참으로 행운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제가 하는 아가페 유치원의 자랑은 좋은 선생님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밝고 올바르게 자라듯이 아가페 유치원의 아이들은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또한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매년 뉴욕시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저희 아가페 유치원처럼 깨끗한 학교는 뉴욕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칭찬을 자주 해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와 또 항상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집사님들과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치원의 또 한 가지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음식이겠죠. 매번 성심 성의껏 메뉴를 준비해주시는 집사님 또한 저희 아가페 유치원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집사님, 그리고 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아가페 유치원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의 Education Director로 있으며 항상 느끼는 것은 저희 아가페 유치원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유치원의 기도는 참으로 그 응답이 빨리 그리고 적절한때에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 다시 재점검을 하여 미국에서 자라는 2세로써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키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성장하는 아가페 유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아이들만을 위한 유치원이 아닌 좀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유치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곳으로 안전하고, 의욕적이며, 창조적인 환경 속에서 각 아이들의 자부심과 자신감, 또 자립심을 키움으로써 밝고 명랑하게 자라며 책임감과 서로 양보하며 단체생활에 협력하는 생활태도를 가르치는 유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저희 담임목사님인 김성국 목사님과 유치원을 설립하신 장영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유치원을 향한 앞으로의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며 기대해봅니다.



“어머, 이뻐버지셨습니다”



이양미 전도사

지난해 (2013년)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에 여전도회에서 연말연시 양로원 방문을 위해 준비한 선물과 양말을 포장할 때 일이다. 평소에 단아한 모습을 지닌 Y권사님을 볼 때마다 ‘저 권사님은 참 여성스럽게 아름다우시다.’라고 늘 속으로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여성스럽기 보단 중성(?) 스럽고, 아름답기보다는 씩씩하단 말을 많이 듣는 나에게 있어서 Y권사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우아한 당신’이었다. 그날도 Y권사님께서 여느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양말을 포장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만 Y권사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Y권사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셨지만 나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쿵 거렸다. 처음으로 “어머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라고 건네자 이번엔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 “여자가 나이 들면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똑똑하다, 잘났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뻐지셨습니다.” 라는 말이라는데 전도사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 사건 이후로 Y권사님과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이가 되었고 나도 Y권사님 처럼 ‘어머 예뻐지셨네요.’ 라는 소리를 들어 봐야 할 텐데... 라는 마음속에 희망사항이 있었다.

2013년 12월 1일부터 퀸즈장로교회에서 Full time 사역자로 일을 시작한지 만 7개월이 지났다.

요즘 들어 부쩍 바자회 때 구입한 입던 옷을 입어도, 토요일 지하 친교실에서 조영숙 집사님에게 \$10불짜리 머리를 해도 교인들로부터 ‘어? 전도사님 뭐가 달라졌네요. OO지셨는데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역자가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나 똑같지 않고 달

라졌다니 참 다행이다 싶고, 그럴 때마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지?’ 아무것도 없다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 여건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그런데, 얼마 전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아가페 특집호를 계획하며 “원고를 청탁 합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주제도 없는데 뭘 써야 할지 고민 하던 중 문득 나에게 달라진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새벽예배를 드리다가도 피곤하면 “널 새벽예배는 쉬어야지” 라고 했던 생각이 매일매일 “새벽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실천에 옮겼다. 이른 아침 시간에 교회 스케줄이 없으면 거의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예배 시간에 늘 제단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자리’가 생겼다.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시던 날부터 사모님 옆자리가 내 기도 자리이다. 가끔씩은 새벽기도 드리다 옆드려 살짝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시간 내 옆자리 이웃집이 달라지면서 그 이웃집에서 나에게 흘러 넘쳐오는 은혜가 있었다. 샘물 곁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위에 축복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새벽기도 드릴 때 한번도 ‘주님 저 OO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새벽예배 시간 내 자리를 사모할 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사항까지도 들으셨으니.....

“어머, 예뻐지고 싶으세요?”

새벽예배를 사모하시고, 담장을 넘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옆에서 일단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앞서가는 교육, 시대를 분별하는 교육



조성윤 목사

I. 깨어 있으라

신약성경은 교회를 향해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다. 이 명령은 다양하게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사용 되지만 같은 맥락(context)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즉 성경 저자들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마 24:36-44; 막 13:32-37; 눅 12:35-40; 21:34-36; 롬 13:11; 살 5:1-11; 계 3:1-6; 16:15).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한다. 예: 분별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교육이란 분야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이것에 대해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답은 ‘앞서 가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II. 앞서 가는 교육

앞서 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어떤 추세를 선도할 때 사용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이 될 때 앞서 간다고 말을 한다. 예를 들어 Hillsong Church가 기독교 음악(즉, 예배 음악)에 앞서 간다고 했다. 한 20년 넘게 Hillsong에서 나오는 예배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의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아도(호주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전통) 많은 교회 찬양팀들은 Hillsong의 음악을 흥내 내어 왔다.

요새 현대인들이 이런 뜻으로 앞서 간다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심지어 교회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앞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다음 추세(next trend)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다. 앞으로 유행할 주일학교 교육, 집회의 형식, 전도 방법, 예배 형식 등등과 같은 것들에 교회들은 앞서 가려고 몸부림친다.

하지만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진 않는다. 물론 next Hill-song, next Awana, next 전도폭발, next 부흥 집회들이 필요하지만 성경은 이 명령을 통해 유행 선도자들이 되라고 하진 않는다.

둘째로, 교육에서 앞서 간다는 말에는 다른 사람들 보다 앞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 닥칠 문제들에 앞서 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교육이 “앞서서” 그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있는 교육은 예방적이다. 대상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세상 죄악들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앞서가는 교육이며 깨어있는 것이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고 군복을 입고 무기로 무장함과 같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를 예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를 안 다루어도 그다지 문제 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사항으로 예방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예방적인(preventative) 것보다 반동적일(reactionary) 때가 훨씬 더 많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교육에 가장 많은 portion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임시변통 하는데 전문가들이 됐다. 깨어 있으면서 문제를 예측하고 바른 교육을 할 때는 드물다.

어떤 것에 예방적인 교육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예를 들겠다.

1)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교육

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질서이다.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것을 일찍부터 교육해야 한다. 집에서만 이 교육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사용 절제를 시켜야 된다. 많은 경우에 한 쪽에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는 공터에서는 자녀들이 자유분방하게 된다. 교회 공모임(예: 예배, 성경공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시켜야 된다.

이 교육은 나쁜 습관 혹은 중독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요새 컴퓨터 중독성을(예: 게임, SNS, 야동) 치료하기 위해 많은 교육과 투자를 하는데 예방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중독성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2) 성교육

여기에서 말하는 성은 성관계, 자위행위, 야동, 성별 즉 동성애, 남녀관계 등을 말한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미디어에서 성을 먼저 접한다. 성 교육은 학교에서 먼저 배운다. 하지만 자녀들이 세상에서 배워 온 것을 올바르게 잡아 주고 다시교육 시키는 것보다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정과 교회에서 호흡을 맞춰 성경적 성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 특히 성적인 것으로 육체나 정신적인 면에 해가 갈 수 있고 또 실수로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 성에 관해 먼저 소개하는 것에 대해 절대 수줍어 할 필요가 없다.

3) 혼전교육

두 청년이 한 몸이 될 때 교회에서는 많은 축하를 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 무엇이며 이혼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며,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결혼이란 것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혼일 때도 교육이 필요하고 짝을 찾아서 결혼 준비할 때도 결혼 예비 상담이나(premarital counseling) 다른 모양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 예비부부를 교육하면서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커플에게 지혜롭게 조언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성경적 결혼관이 없어 결혼 후에 많은 아픔과 실수들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는 결혼생활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무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삶에 다음 단계를 신앙적으로 준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성도들의 삶에 앞서가면서 예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엡 4:12).

III. 두 번째로 이 글이 제시 하고자 하는 교육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시대 분별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할까?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시대 분별하는 것을 날씨 분별하는 것과 비교한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날이 좋을지 곳을지를 분별했다. 시대 표적을 분별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

인들을 책망했다. 만약 이 본문이 기반이 된다면 “시대 분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다. 날씨를 분별하듯이 믿는 자들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 할 줄 알아야 된다(마 16:3).

교회는 여러 이슈들과 전투하고 있는 중에 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오래전부터 진화론과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진화론과 토론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때 당시 아무도 창세기를 도전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과학과 철학이 성경이 소개하는 창조 원리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교회는 창세기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늦어서 창조론은 학교나 사회에서 후퇴되기 시작하고 공적 영역에서 봤을 때 교회는 이미 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예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논쟁보다 더 핫한 이슈는 동성애이다. 이것도 교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믿는 자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했고 교회는 또 다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다가가기보다 완전 적으로 보며 놀림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정치 영역에서 교회는 이 싸움도 이미 졌다.

그래도 교회는 앞으로 진화론이나 동성애와 같은 여러 이슈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싸움에만 집중할 뿐 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여 다음 이슈도 예측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싸우려고 하니 실수도 범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음성만 높이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깨어 있으면서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혜롭게 파악하여 준비해야 된다.

“다음 이슈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늘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통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의 소통이란 것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있고 그것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 이루어짐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졌다. SNS 어카운트만 있으면 내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들려질 수 있다. Facebook으로 사람들이 연결하면 ‘Friend’ 라 하고 Twitter는 ‘follow’ 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audience가 생기는 것이다. 원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만큼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다. Twitter를 통해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담 (engage)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도전 할 수도 있다. 운동선수를 tweet 하면서 선수의 실력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선수 뿐 만 아니라 그 선수를 follow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의 이론에도 도전 할 수 있다. 연예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소통 통제 불가능은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를 SNS 에서 나눌 때 통제가 없어서 삼시간에 퍼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우매한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아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고 이제는 SNS를 통해 그 생각의 시비에 관계없이 표출할 수 있는 강단(platform)을 가지게 되었다. 즉, SNS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터를 마련해준다.

사회는 SNS의 긍정적인 사용과 컨트롤을 고민하고 있다. 예전 같이 원하는 대로 책임 없이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회사나 학교 같은 속한 기관에서 그 기관에 해가 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도 SNS를 통해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 받은 사역자들 보다 음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다. 심지어 신학과 말씀 해석에도 도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질서 없이 감정적으로 가거나 사람의 좁은 선입견으로 이어질 때에는 교회에 많은 해가 될 수 있다. 교회의 덕과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지 않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비난하기 위한 이유로 소통하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말씀 해석으로 올려진 글이라든지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올린 잘못된 성경적 이론 같은 것들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필터 과정 없이 읽혀지게 되면 복음이 가리게 될 수 있다.

사회가 아직 이 이슈(열린 소통)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도 이것에 대한 바른 의견 낼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이슈는 무엇일까?” 다시 말한다. 이 질문에 대해 늘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된다. 즉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

IV. 결론

교회가 계속 반동적인 교육만 한다면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아진다. 반동적인 교육보다 예방적인 교육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교육이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미 지난 것에 교회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우리는 세

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롬 12:2).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어느 논쟁이든, 어느 싸움이든, 어느 토론이든 가담(engage) 할 준비가 돼야 된다.

V. 우리 교회 퀸즈장로교회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년 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뉴욕을 향한 꿈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다. 그 때 장 목사님께서서는 필요한 가르침과 영적 교훈들로 성도들을 무장 시켰다. 이어서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또 이 시대에 맞는 필요한 말씀과 신앙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귀한 목사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 교육면에서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며 차세대가 앞으로 겪을 이슈들을 미리 파악하여 성경적인 답을 주기 위해 연구와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삶 가운데 예방적인 교육을 하며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무장 시켜야 한다.

우리는 군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적절한 무기도 주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내보내는 무책임한 군대조직과 같이 되지 말자.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앞으로의 40년을 이루어 나가자.



황금률의 진실



김재형 목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14절)

마태복음 7장 12절-14절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잘 알고 있고 이야기 하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황금률인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거나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접해야 하는 목적이 여전히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목적은 나의 이익인 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손해를 보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찬양도, 만족할 만한 것을 드린 적이 없으며 또한 드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필요한 줄도 몰랐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너무나도 큰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닮아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대의 진정한 황금률, 하나님의 법은 내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 보는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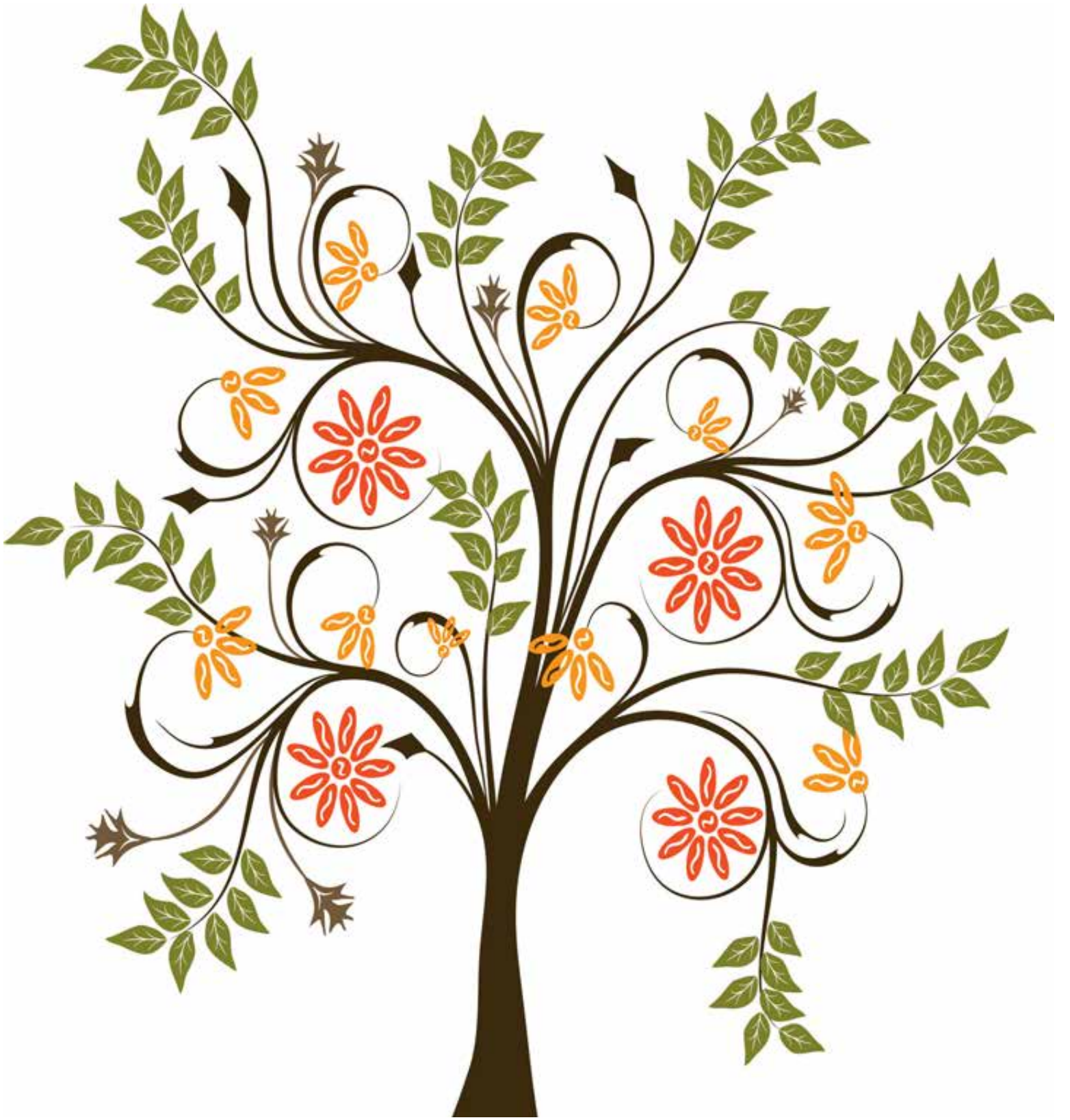
여기서 나온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접하심을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황금률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며 마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률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셨던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률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죽음



오인수 목사

조현문의 “내가 재벌을 떠나는 이유”

지난 8월 10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계열 회사의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조현문 변호사는 지난 6월 10일 효성 계열의 부동산 관리회사(주)신동진의 최 대표를 고발했는데, 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자연스럽게 조 변호사의 형제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에게 겨워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효성 주식을 팔고 완전히 떠난 지 1년 반 만에 일어났습니다.

조현문 변호사는 1998년 미국의 한 유명 법률회사에서 일하다가 가족의 귀국 요청을 받고 1999년에 효성에 들어왔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고, 2006년부터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중공업 사업 그룹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뿌리 깊은 부정을 발견했고, 부정비리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부정을 색출하고 관련자들을 엄책하고자 문제점을 조석래 회장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형(조현준 사장)이나 잘 보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불법 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진언했으나, 조 회장은 “내 회사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형의 자리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냐? 차라리(회사를) 나가라.”라고 사실상 파문 선언을 했습니다.

조현문 변호사는 2011년 9월에 회사를 떠났고, 2013년 2월에 가지고 있던 효성 주식 대부분을 팔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의 기자는 “돈이나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내 불법행위를 들추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 변호사 부부는 독

실한 기독교 신자다. 조 변호사는 보유 중이던 효성 계열의 두미종합개발 지분(49%)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기자가 보기에 그도 이렇게까지 개혁을 외친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요,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재벌 50년 역사에서 재벌 안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사람은 조현문 변호사가 처음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영역에서 이루는 것? 쉽지 않다, 아니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야 하는데, 크리스천으로 삶의 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는 선원들의 직업윤리 상실, 선박 불법 증축, 화물 과적, 도덕 불감증, 그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물질 지상 주의적 발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수장인 유병언과 그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네의 세상’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나라가 보여준 총체적인 부실은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영웅을 기다리는 국민은 교황과 이순신에게 그렇게 열광했는지도 모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다시 핏빛으로 물들었고,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주변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수많은 사망자를 낳는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룹 총수의 아들도 개혁하면 쫓겨나는데… 참 쉽지 않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치권에 크리스천이 많아지면 될까요? 우리나라 19대 국회 의원 기독교인 비율이 37%라고 하는데 이는 평균 기독교인 비율 1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국회개원 기도문을 읽고 세웠던 1948년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더 타락했고, 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창6:5) 보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노아의 때에 근거하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진대, 그러한 세상의 방향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요?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씨뿌리는 자의 비유(1-23)에서는 우리가 밟고 모든 밟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24-30)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의 때, 심판의 때까지 함께 두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 (31-32)에서는 천국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결국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로 나라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누룩 비유(33)에서 또한 천국을 작은 누룩의 놀라운 폭발력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다섯 번째 보화 비유(44)와 여섯 번째 진주 비유(45-46)를 통해서 천국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그물 비유(47-50)를 통해 천국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처음의 천국 말씀 씨는 작아 보이지만 좋은 땅에 심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크게 자라서 그들과 거처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해

보여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가치를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얻으려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진짜와 가짜의 차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것과 상당히 관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곳이 천국이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성품과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처럼 강한 것에 임하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것이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 11:3)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5)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용서, 구제, 희생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씩 재현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 맺는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과 관련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숨이 멎고 죽을 때 들어갑니다.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뤄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한가운데서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

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 12:11).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죽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B. C. 와 A. D.가 나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들이 지금도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사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막 8:34)

부흥이 답이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대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이뤄지는데, 개인의 삶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과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역시 죽음으로 이뤄집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부인이 죽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는 부흥이 죽는 것입니다. 부흥은 Revival,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야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부흥의 때에는 항상 죄와 악으로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

기 부인하며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도시 전체가 초상이 난 것처럼 곡성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에 울고 울고 울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시가 깨끗해졌습니다. 도박과 범죄율이 줄고, 윤리적으로 건전해졌고, 구제와 자선 사업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한 도시에 머물지 않았고 나라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집니다.

당연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모든 죄를 불로 태우시고 바람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 7:14)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 ‘부흥’이란 답이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고 허무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실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더 온전한 대답이 아닐까요?

참된 부흥의 영향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흥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높이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끕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특히 5번의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사회적으로 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부흥 때의 현상들을 보면 실제로 구제와 자선,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부흥이 임했으면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평생에 걸쳐서 돈을 버는 대로 구제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가 죽을 때 6파운드를 남겼는데 이는 자신의 관을 운반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매주의 예배 때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금을 했고, 3개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여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교육 활동에도 힘썼고, 교도소 개혁 활동도 하고, 여성 지위 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진력했으며 노예 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부흥이 임하자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때의 부흥의 유산 중 하나는 토착민들과 하층 계급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육의 기회가 생긴 것과,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화해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의 때에는 사람들과 도시가 회개하면서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폐업하고 도덕적 윤리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평양 대 부흥 때의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 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원산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하디의 회개로부터 강하게 붙은 성령의 불은 평양 대 부흥을 거쳐서 서울,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서에 이 부흥은 오순절 이후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라고 전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나열하기에는 성령이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많기에 거두절미하고, 이 부흥은 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흥의 때에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국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광복에까지 이르는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 조직적으로 서나 사회 운동으로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부흥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이 답입니다.

부흥은 죽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꿉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다시 읊조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치유와 회복



배인구 전도사

언제부터인가 ‘웰빙’ (Well-being)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의 먹거리와 삶의 패턴과 관심을 바꾸는가 싶더니 어느덧 웰빙에서 ‘힐링’ (Healing)으로 그 열풍이 옮겨가 멘탈케어, 요가, 명상, 스파, 힐링도서, TV 프로그램, 음악, 관광 등 새로운 사회, 문화 코드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된다.

가히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힐링’이란 무엇일까? ‘웰빙’이 좀 더 좋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을 위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면, ‘힐링’의 의미는 육체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정신의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향간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TV 프로그램 ‘힐링캠프’는 출연자들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삶의 솔직함을 통한 시청자들의 공감과 위로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코드가 우리 크리스천들과는 무관할까? 성경적이지 못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힐링’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며, 이미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참 ‘힐링’ (이하 치유)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치유의 약속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치유는 국어사전에서 ‘병이 낫는 것, 또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라고 아주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질병이나 안팎의 충격과 타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 그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상태를 본래의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나 질병을 권능의 손길로 고쳐 주심으로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담의 타락이전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며, 창조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출 15:26, 렘 30:17, 시 39:13, 마 4:24]

구약성경

라파 (raphe, raphah, 영 heal), 본래 의미는 ‘(꺾매어서) 고치다,’ ‘치료하다,’ ‘낫다 (~게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 의 뜻이다. [창 20:17, 출 15:26, 왕하 8:29, 9:15, 대하 22:6, 전 3:3, 사 38:16, 렘 8:22, 14:19, 렘 33:6, 46:11, 51:9, 호 7:1, 말 4:2, 신 28: 27, 사 58:8]

신약성경

‘데라퓨오’ (therapeuo; 영 heal; therapy) ‘therapon’ (시중)에서 유래; ‘시중들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는 (병에서) ‘고침 받다,’ ‘치료하다,’ ‘고치다’ 의 뜻이다. [마 4:23, 24, 8:16, 9:35, 10:1,8, 12:10,15, 17:16, 19:2, 24: 45, 막 1:34, 3:2,10, 눅 4:23,40, 5:17, 6:7, 7:21, 9:1,2,6,11, 10:9, 13:14,32, 행 6:14, 10:38, 고전 12:9, 30, 계 22:2]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인간이 범죄하였기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고 [롬 5:12, 6:23], 따라서 죄가 질병의 원인이며 치유는 죄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5:3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치유는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정한 치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병자의 죄 문제와 연관을 지었고 (요 5:14),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면 대부분 고통당하는 영혼의 구원과 관계를 가진다. 곧 주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현상적인 모습으로는 육신의 치유로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러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의 치유는 구원과 땀해야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말할 때, 세상 육신과 마음의 치유뿐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을 반드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왜 치유가 필요한가?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나, 교역자들의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인격과 삶은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없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왜 치유에 열광하며 반응하는가?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치유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웰빙 열풍에서 치유 열풍으로 옮겨온 이유는 사람들이 치유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지만 웰빙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힘듦, 어려움,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치유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1)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출애굽기 15:26 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 치유가 필요하다.

요 15:16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빌 1:11, 요 15:8, 마 5:16, 벰전 2:12]

열매는 신앙 (믿음)의 상태를 말해준다.

진정한 성도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된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믿음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책임을 지니고 있다. 치유를 통한 변화된 인격과 삶 속에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성도로서의 웰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치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마 7:16-20, 7:21,24-27, 21:43, 요 14:15, 14:23, 롬 2:13, 딤후 1:16, 약 2:17,22, 벰전 1:16-17, 요일 2:3-4, 요일 3:8]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열매로 판단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천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당연한 결과다. 열매는 크리스천의 존재를 정의하는데 관련 있고 영적은사에 앞서 성령의 열매가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마 7:22-23, 살후 2:9-10]

성화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곡식을 심으려고 가보니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에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께서도 마 13:3-8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상처들(길바닥처럼 굳은 마음, 내 마음 속의 돌덩어리, 가시떨기)을 치워내야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전 3:9, 마 13: 3-8]

영적 성숙을 준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것은 먼저 우리 중심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치유한 다음에 온몸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를 깨끗케 한다는 뜻이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쓴 뿌리, 쓴 물,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은 모두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며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우리 안에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이 있어야겠다.

-나가는 말-

먼저 내가 한어중고등부를 맡으며 제일 먼저 세운 교육목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었다. 치유와 회복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도 없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큰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조금은 길더라도 확실하게 잡아나가자는 마음으로 늘 사역장에 뛰어든다. 영혼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 이 글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 깊이 있는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화되어져 가는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한다.



영아기의 신앙 교육과 교육 실태 및 비전



이명옥 전도사

I. 서론

아직 엄마 품안에 있는 영아들, 언어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떤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고, 과연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지, 어떻게 가정에서 그 교육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것과 지금 저희 교회 영아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내용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영아부의 교육 방향과 비전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아기를 구분하는 나이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희 교회학교에서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영아를 위한 영아부가 따로 있고 이들의 나이는 출생 후 2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짧게는 15개월까지 혹은 18개월까지로 보는 자들도 있고, 넓게는 3세까지 보는 견해도 있기에 영아부의 나이 구분은 적당하다고 본다. 필자가 영아부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큰 아이를 낳고 아기 엄마로 영아부에 갔을 때-약 30년 전- 이었다. 당시에도 예배 드리는 부모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는 babysitter의 모양새로 영아부가 이미 있었고, 그 중 몇 섬기는 엄마들의 헌신이 있어 돌아가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찬양하고 돌보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함께 교사로 함께 하다 영아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신 황은애 권사님은 우리 영아부의 산 증인과 같다. 따님 황진선집사가 영아부 1기 졸업생이고 지금은 남편을 따라 다른 교회서 섬기지만 교육을 전공하고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헌신하며 섬기는 교사들이 있었지만 차츰 영아들이 늘어나고 영아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첫 영아부 담당 교역자로 김옥대 전도사님이 오시게 되고, 그 후 몇 분의 영아부 담당 전도사님들이 오시므로 영아기의 신앙에 대한 교육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몇 명의 영아부 지도 교역자가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본인이 신학을 하고 다시 영아부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영아부에 갔을 때는 전임 사역자들의 잘 준비된 교육 환경이 자리 잡

고 있었다.

영아부의 아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며 떠들고, 천방지축 울어대는 환경에서 과연 예배드림이 가능할까? 영아부를 와서 함께 예배드려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떨치지 못한다. 그 나이의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쁨 받으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웅얼이 같은 말 속에서도, 아직 말하지 못해도 그들의 얼굴과 몸짓 가운데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영아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영아교육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자.

1. 영아기란?

영아기, Infancy는 라틴어의 'infantia'에서 유래한 말로 '말을 못하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어린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육적인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생후 1세에는 출생 시의 3배, 2세경에는 출생 시 체중의 약 4배가 되고 신생아의 근육조직은 약 39% 정도가 수분으로 출생 후 1년까지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다. 차츰 수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근육섬유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여 점차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두미발달 원칙에 따라 머리와 목 쪽의 근육부터 발달하고 점차 몸통, 팔, 다리의 근육으로 발달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아이를 돌보는 손길에 유의해야 한다.

이 영아기는 신체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을 볼 때도 아직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다루어지는 손길과 자라는 모든 환경과 오감을 통해 자리 잡는다. 이 영아기에는 입력되는 모든 것에 의해 나중에 그 입력된 것이 언어와 생활로 표현된다. 이것이 자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가치관으로 굳어지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진 아이 혹은 불안과 내성적인 관계의 아이로 자라게 된다. 이 영아기 시기는 컴퓨터를 본다면 입력 시기와 같다. 좋은 자료,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야만 제대로 된 것을 출력하는 것과 같다. 이들이 말을 하지는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들의 웅얼이 속에서도, 엄마의 젖을 먹으며 부요한 하나님을 향해 발가락을 꼬지락 거리며 만족 해 하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온전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딤후 3:14-1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2. 언약 사상 안에서의 영아 교육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이며 계약이다. 사람은 어떤 계약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나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세상의 약속과 달리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걸고 한 생명의 언약이다. 또한 이 약속은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으로 영아 교육에 있어서도 이 약속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 이어져 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사상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며, 핵심이 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

신약에서도 이 언약의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 중에도 잘 나타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눅 1:54-55)

이 언약 사상은 영아 교육의 근거가 된다. 이 이유는 언약사상이 유아세례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1-14)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유아 세례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주는 유아세례는 형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신실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더욱 자각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후로도 계속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 언약을 기초하여 영아기 때부터 이 언약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과 공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가르쳐야 한다.

3. 영아 교육의 성경적 근거

영아들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나 내용을 깨닫는 지성적인 면에서는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신앙 교육에 영아가 제외된다고 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모든 자녀를 신앙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신명기 6:4-9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교육' 바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실행하여 모든 집의 문들 귀퉁이에 작은 네모 상자에 담은 이 말씀을 붙여 놓고 있다.

1) 구약에서의 영아 교육

신명기 4:10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또한 신명기 31장 11-13절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찌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언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찌니라'

여기에서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대상을 '백성의 남녀, 유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유치'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KJV이나 RSV에서는 'little one'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처음 사사가 된 사무엘도 '젖을 떼 아이'로 성전에서 자라며 신앙 교육을 하도록 어머니 한나에 의해 보내졌다. 젖을 떼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요즘에는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는데, 사무엘의 경우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2-3살 나이였으리라 본다.

2) 신약에서의 영아교육

디모데가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영아기 때부터 입을 알 수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16) NIV 번역에서는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로 번

역하여 갓난 아기때(infancy) 부터 신앙의 교육으로 키워졌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기로 자랐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눅 1:41-:44) 태중에서 부터의 부모의 성령 충만이 태아에게, 영아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눅 18:15),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마 19:13)

영아기가 비록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이지만 영아가 양육자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신뢰감과 희망, 신앙적인 동기 부여의 근간이 되는 시기가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싹 띄우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 이 시기의 신앙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단계이다.

II. 영아 교육의 현실

위와 같은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의 본 교회에서 영아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 교육 방향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부서가 영아부이다. 영아부에서는 부모가 함께 하므로 부모의 신앙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자녀에게도 신앙 교육의 효율성이 비례하게 된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 교회로 나오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이 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복된 교육의 현장이다.

이 아이를 데리고 또래의 아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영아부의 표어가 ‘축복이 흐르는 영아부’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이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흘러가고 또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태어나 그 사랑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보고 들으며 오감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영아부에서의 교육 과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매 예배시간마다 설교 전에 아기를 향한 들려주는 부모의 축복 시간이 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인지 익숙하지 않은 부모도 적지 않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익혀 나간다. 이런 축복의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혀 주실 줄 믿는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은 말을 듣고 자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축복의 말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길러주는 기초가 된다.

2. 영아 교육의 실재

영아부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영아와 그 부모이다. 영아기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동반이 되지 않으면 교육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의 신앙 성장이 곧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모의 교육과 영아의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1) 부모 교육

영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는 거의 절대적이다. 아이를 돌보는 면에도 그러하지만 영향력을 주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어떤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가는 영아들의 앞으로의 자람과 그 방향의 기초를 놓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구별된 환경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아기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며, 어떤 것을 느끼며 자라나가 하는 오감을 통한 환경 교육이 거의 부모의 품에서 보내어지기 때문이다.

a. 학부모 서약식을 통한 부모 교육

이를 위해 5가지 구별된 것을 서약한다.

첫째는 날의 구별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후 다음 날을 지금까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날은 우리를 위해 주신 복된 날이다. 이 날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가 구별된 날을 지키는 부모이다.

둘째는 시간의 구별이다.

정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일정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일은 깊이 박히는 못과 같다. 일찍 자극을 줄수록 교육의 효과는 크다. 신앙의 훈련은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후에 이것은 좋은 신앙 습관이 되어 진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한 좋은 습관이 이미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포기하거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치관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말의 구별이다.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 가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말을 배우는 시기인 1살에서 2살 사이에는 부모의 말은 사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시기에 특히 존댓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꿈을 심어주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의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식물이나 생명체가 아니라고 여기는 물의 경우에도 말의 결과가 놀랍게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NIV ‘creating praise on the lips of the mourners in Israel. Peace, peace, to those far and near,’ says the LORD. “And I will heal them.”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NIV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넷째는 물질의 구별이다.

갓난아이에게 무슨 물질의 구별이 필요 하느냐 생각할 수 있으나 물질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장 귀히 여기며 가치를 두는 도구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나의 것을 구별하여 쓰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빠른 것이 아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아가에게 보여주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아기를 지키시고 키워주신 것인가를 들려주며 구별된 헌금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것을 예배 시간에 아이와 함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에 대한 어떤 선입관도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다.

다섯째는 꿈의 구별이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된 자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한 큰 꿈들을 꾸다. 나의 부족한 면이 이 아이에게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혹은 이 아이에게 놀라운 재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꿈꾸며, 그 꿈이 펼쳐질 생각에 혼자 흐뭇해하기도 한다. 아이의 발짓, 손짓, 어려서 연필을 잡는 모양새, 음악에 박자를 따라하는 감각 등이 보일 때 부모는 원대한 꿈을 맘껏 꾸게 된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우리의 꿈은 달라야 한다. 부모의 맘과 소원이 담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모세가 어렸을 때 그 부모는 이런 결단을 하였

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의 환경과 가치관을 넘어선 부모의 아름다운 꿈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르람에게 꾸어졌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어야 하는 환경이었고,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음이 따라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모는 죽을 아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런 꿈이 있는 부모는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b. 말씀과 기도 교육

영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므로 영아부에서는 매 주 일 주보에 꿀 송이 양식이 시편과 잠언을 반복하여 한 장에 한 절씩 암송 구절로 나간다. 이 암송은 반별로 돌아가며 부모가 설교 전에 함께 암송하고 이 암송한 구절을 모아 꿀 송이 퀴즈대회를 한다. 양육에 지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이 이 꿀 송이 퀴즈대회를 하며 반 별로 모여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외우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쓰도록 강조한다.

금년부터는 각 가정에 매 주일 나는 설교의 말씀을 요약하여 각 가정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 메일이 잘 들어갔는지 읽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지, 매 주 각 가정들 돌아보며 확인하고 권면하고 있다.

기도는 매일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아직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도 있다. 이들을 위해 매년 초가 되면 반별로 기도 주간을 갖는다. 이 기도주간에는 아이와 가정의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받아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와 부장, 담임은 이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 아기의 이름으로 기도편지를 발송한다.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가정들은 이 기도편지를 아가들에게 꼭 읽어 주도록 하고 있다. 기도 편지를 읽으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익히는 좋은 기간이 된다. 가끔 심방을 가보면 기도 편지를 냉장고나 벽에 붙여 놓고 있는 가정을 본다. 전체 아이들에게 손 편지를 일일이 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할 힘을 주신다.

c. 자가 점검표를 통한 부모 교육

매년 첫 주가 되면 부모들의 ‘학부모 서약식’과 함께 일 년 동안 아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여러 항목으로 표시된 매일 자가 점검표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매일 가정예배 드림과 기도, 꿈을 들려주거나 vision statement를 들려주는 일을 표시하게 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출석과 헌금 드림의 항목이 추가되어 점검케 한다. 일 년도 이 점검표를 매일 표

시하며 잘 양육에 함께 한 가정에는 시상도 하며 격려하고 있다.

v이 새해 첫 주에는 또한 아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부부가 준비하게 하고 이를 vision statement로 만들어 매일 들려주도록 하고 있다.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예쁜 액자에 담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반복되는 매일의 일과가 될 때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자라게 되고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

가정예배를 위해서는 매주 주보에 가정예배 모범을 심고 있다. 두 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가들에게는 반복되는 일도 아주 중요하므로 같은 본문과 내용을 반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 예배 지침서를 만들어 처음으로 아가들과 예배드림이 어색한 새내기 부모에게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부모들에게도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아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BIBLE song 시간에 들고 하는 BIBLE picket을 한 번씩 만들어 아가들과 함께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있다.

d. 심방과 반 모임을 통한 부모 교육

매년 새학기가 되면 반 모임과 함께 각 가정을 심방한다. 이 심방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정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교회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양육에 지쳐 주저앉은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기도하며 문을 두드린다.

주일에는 개인적인 신앙 상담과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일에 시간적 제한이 있어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담임들도 함께 동행 하면서 더욱 좋은 주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별히 아가들에게도 심방은 놀라운 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갓 난 아가들이라도 집에 찾아가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다음 주일에 더욱 밝은 모습, 기뻐하는 모습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를 보게 한다.

e. PTA 활동을 통한 부모 교육

영아부의 PTA는 무엇을 받는 일보다 채우는 일에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아이들의 양육에 빠듯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나 교회에 대한 책임보다 좀 더 본인과 학부모 간에 신앙생활에 서로 힘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의 PTA에서는 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아부의 facebook 계정을 열어 서로 신앙적인 격려와 아이들의 모습을 올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도전받는 일을 하고 있다.

새 학기에는 새로 반이 편성된 후 class parent를 뽑아 담임과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PTA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매년 봄, 가을의 새아가 환영회를 여는 것이다. 그동안 새로 태어난 아가들과 부모, 새로 영아부에 등록된 아가와 부모들을 초청하여 영아부에서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과 교제를 나누고, PTA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양육의 고민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환영회는 처음 영아부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부모와 아가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일 예배 시에 다 다루지 못하는 구체적인 신앙 양육에 대한 말씀도 듣고, 아가들과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시간도 가진다. 각 가정에서 가져온 아가 용품들도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구별된 교육이 영아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진다고 확신한다.

2) 교사 교육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영아부를 교회학교에 주었고, 교사들은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함께 교육의 사명을 맡게 하셨다. 이제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오는 첫 교회학교의 걸음은 많은 기대와 함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설레임이 함께 하는 걸음이다. 이 일에 우리 영아부에서는 교사들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먼저 아기들을 키워낸 부모들이 주를 이루는 교사들로서 그 책임은 실로 무겁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첫 발을 디디는 부모에게 언니와 같이 때로는 엄마와 같이 교육을 옆자리에서 함께 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신앙 상담과 인생 상담도 함께 하면서 양육에 지친 엄마, 아빠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기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은 끊임없이 훈련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매 년마다 2H/10/10/10이란 신앙의 결단을 한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기도를 기억하며, 힘든 환경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은 신앙의 자세를 본받고자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2H는 Holy Habit은 첫 글자를 따고, 매일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교사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억하고, 감사 노트에 매일 10가지의 감사를 적으며, 10분 이상 영아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 나갈 때 조금씩 교사들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갈 것이고, 이런 모습이 부모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될 줄 믿는다.

교사들은 10가지 교사 십계명을 매년 연말 기도회를 통해 서약하고 실천한다. 본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사명에 대한 서약을 담고 있다. 성경문답서와 철야 기도회, 매주 목요일 개별 교사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외됨 없이 함께 가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자칫 주는 것에 치우치다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주 교사회 시간에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금년에는 소요리 문답을 다루며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고 있다.

이번 9월 철야 기도회 이후부터 교사들의 말씀 나눔인 QT를 시작하였다.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어떻게 그 말씀의 맛을 보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는지를 나누게 되면 서로 신앙의 도전이 되고 힘을 얻을 것이다.

또한 매월 월례회마다 그달의 기도짜를 세 명씩 정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며, 중보하며 함께 신앙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며 완전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사랑, 희생과 기도로 나가고 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3-14)

교사 심방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주간을 하여 교사 한 사람만 아니라 이를 위해 돕는 손길과 가정을 위한 기도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새벽에는 교사 한 사람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참 감사한 시간들이다.

3) 조부모 교육

하나님께서서는 부모에게도 신앙 교육을 명하셨지만 또한 조부모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 6:2)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부모 다음은 조부모일 것이다. 부모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칫 무분별한 사랑이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영아부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 년에 한 번씩 초대하여 ‘Grandparent’s Day’ 예배를 드린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므로 손자, 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교육하고 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믿음의 교육을 바로 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어린 손자, 손녀에게도 조부모로서 신앙 안에서의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조부모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 안에서의 참된 신앙 교육에 큰 몫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

조부모가 함께 있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는 교회의 어른들을 초대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 아직 본인이 실질적인 조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미에서 기꺼이 참석하여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을 통해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과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속하여 기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신앙의 조연자로 함께 하는 모습이다. 우리의 자녀 뿐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뿌린 사랑의 손길과 기도의 눈물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자세라 하겠다.

3. 설문지를 통해 본 영아부 교육 진단

영아부 부모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를 보며 현재 영아부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 현실을 진단해 보았다.

1. 말씀 교육

- a. 아가 성경이 있다(60%), 아직 없다(40%),
- b.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18%),
가끔 듣는다(53%),
집에서는 거의 듣는 일이 없다(15%).

2. 기도

- a. 기도 손을 한다(58%), 아직 못한다(42%).
- b. 기도송(예배시)을 할 수 있다(27%),
아직 못한다(65%).
- c. 기도편지를 읽어 주었다(2%),
못 알아들어서 안 읽어 주었다(36%),
모아 놓았다(27%).
- d. 아빠(엄마)가 아가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67%),
가끔 한다(24%), 아직 안한다(7%).

3. 찬송

- a. 집에 아가 찬양CD가 있다(67%),
집에 아가 찬양 DVD가 있다(38%).
- b. 자주 들려준다(33%), 직접 불러 준다(37%),
함께 부른다(28%), 가끔 부른다(2%).

4. 예배

- a.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4%), 일주일에 1번 (2%), 일주일에 2번 (7%), 일주일에 3번 (4%), 일주일에 4번(5%), 일주일에 5번(5%),
아직 한번도 못드렸다(24명/44%),
- b. 주보의 가정예배를 이용한다(16%),
엄마아빠의 가정예배 모범이 있다(30%),
- c.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일정하다 (13%),
일정하지 않다(64%)
- d. 주일 예배시 헌금을 집에서 준비하고 아이에게 말해준다(27%),
부모가 혼자 준비한다(69%)
- e. 주일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구별한다(87%),
평소 입는 대로 입힌다(11%)
- f. 영아부 예배에 와서 먼저 아가와 함께 기도한다(4%)
그냥 예배시간까지 기다린다(47%)
- g.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온다(55%)
찬양 시작한 후 온다(35%)
예배 도중에 온다(9%)
- h. 집에서 오는 거리는 대개 10분 (25%), 15분(18%),
20분(20%), 25분(1%), 30분(13%),
40분(9%), 45분(4%), 1시간(7%)
- i. 교회 parking에 힘들다(33%),

항상 자리가 있다(49%).

- j. 분반 공부시 가장 집중하는 때 간식(5명)
만들기(8명), 찬양(5명), 선물(1명),
coloring(1명), 그림 성경 볼 때(1명), 말씀(1명).
- k.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45%),
영아부 오면서 사회성이 좋아졌다(27%).
- l. 설교 시간에 아이가 집중한다(36%),
돌아다닌다(36%).
- m. 꿀송이 암송은 항상 외운다(0명),
우리 반일 때만(55%), 한 적이 없다(24%).
- n. 부모의 예배시간 1부(5%), 2부(16%),
3부(29%), 4부(9%), QPAM(9%).
- o. 부모의 예배 시간은 따로 없고
영아부 예배만 같이 드린다(17명/31%).
- p. 주일 대 예배 외 드리는 예배
오후예배(20%), 수요일예배(22%)
토요일새벽(12명/22%), 구역예배(24명/44%).

5. 행사

- a. 일 년 동안 영아부에서 받은 편지는 0통(5%),
1통(4%), 2통(13%), 3통(11%), 4통(9%),
5통(18%), 6통(4%), 10통(2%), 20통(2%),
많다(5%).
- b. 기도 주간에 가장 좋은 점은
찬양 말씀 기도 할 수 있다
같은 반 가정과 더욱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응답에 대한 설렘이 있다
더 기도하려 애쓴다
많은 사람들과 기도를 같이 드림으로
응답이 빠른 것 같다
전도사님 권사님 선생님의 편지에 정말 감사하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든든함
우리 가정을 위해 모든 사람이 기도해주어 좋다
그때만이라도 기도를 생각한다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대화

위로와 용기를 주심

- c.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55%),
아직 잘 모르겠다(22%).
- d. 선교 저금통을 잘 활용한다(55%),
대부분 즉석에서 내게 한다(18%).
- e. class mother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38%),
누군지 모른다(4%), 한번도 없다(36%).
- f. PTA 모임에 참석한다(33%),
아직 한번도 못했다(47%), 가끔(4%).
- g. Grandparent's Day에 오신 분이 있다(60%),
없다(11%), 교회어른과 연결되었다(11%).
- h. 부모가 성경 문답서를 매주 한다(11%),
가끔 한다(31%), 안한다(47%).
- i. 학습놀이에 효과가 있었다(29%),
부모가 참여했다(36%), 잘 모르겠다(22%).

6. 관리

- a. 주일예배 빠지면 꼭 그 주에 담임이 연락한다(65%),
가끔한다(11%), 한번도 안한다(5%).
- b. 주일예배 빠지면 class mother가 연락한다(13%),
가끔한다(20%), 한번도 안한다(36%).
- c. 심방을 받은 적이 있다(75%), 없다(9%),
심방 오는 것이 부담이다(2%).
- d. 심방을 통해 영적도전을 받았고 힘이 되었다(60%),
별 변화가 없다(9%).
- e. '엄마아빠 이렇게 키워주세요'를 가끔한다(35%),
어디 있는지 모른다(22%), 받은 적이 없다(13%).
- f. 연초의 부모 서약서를 보며 약속을 이행한다(20%),
생각뿐이다(47%), 없다(7%).

7. 교육

- a. 영아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아이에게 효과 있
는 것은?(높은 %순으로)
찬양, Bible song, 전도사님의 설교말씀, 분반공부/
만들기, 예배, 학습놀이, 사회성, 독립성, 공동성 성장,
찬양 성경구절 암송, 기도, 발도장 찍기, 입체적 학습

교재 사용, 예배송

- b. 부모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효과 있는 것은?(높은 % 순으로)

말씀, 꿀송이 말씀 암송, 가정에서도 믿음생활, 예배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Vision Statement, 기도 주간, 분반공부, 특별연극, Bible song, 집에서도 기도하는 걸 생활화해야겠다는 자극

- c. 우리 아이의 영적 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높은 %순으로)

부모의 기도, 엄마아빠의 노력, 가정에서 본보기가 되는 부모의 믿음 생활, 성경말씀 암송,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성장, 가정예배의 실천, 말씀에 의한 시청각 자료가 필요, 예배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만큼은 영아 부 안에 있어야 함, 더 많은 성경읽기, 말씀, 가정에서 형제랑 사이좋게 지내며 건강하고 잘 울지 않기, 부모의 성령 충만

8. 교제

- a. 영아부의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62%), 만나서 좋은 정보를 얻는다(29%), 가끔 밖에서 만난다(29%),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분이 있다(27%), 서로 기도해 주니 좋다(15명/27%), 아직 서먹서먹하다(18%), 영적 도전이 된다(6%), 아무도 없다(7%), 상처가 있다(2%), 한번도 만난 적 없다(2명/4%), 외롭다(0명).
- b. 걸음마를 통해 좋은 자료와 도전을 받는다(55%),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16%), 걸음마에 원고를 낸 적이 있다(33%), 아직 한번도 없다(24%).
- c. PTA와 연관되어 일한 적이 있다(33%), 없다(45%), 연락이 오면 기꺼이 하겠다(7%).

III. 영아 교육의 비전

앞으로 영아 교육은 어떤 방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을 살펴보

며 영아 교육의 비전을 갖도록 한다.

1. 모세 -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모세의 영아기는 상당히 극적이다. 애굽에 통치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왕 바로는 저들의 창성하고 중다하여 점점 강성해 지는 것을 막고자 산아 제한 정책을 쓴다. 이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모든 태어난 남자 아이에게로 한정되었다. 즉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출1:16)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낳았고 그를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보는 시각이 남달랐다. 나일 강에 악어의 먹이로 내버려질 아이로 보지 않았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히 11:23)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녀는 아름다운 아이일 수밖에 없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로의 명이 천하를 벌벌 떨게 해도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의 영아기는 믿음의 특별반에서 키워진 것이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에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 이를 바라보는 아빠 아므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키웠을 것이다.

이 시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잣대로 잘 생겼다, 못 생겼다,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콧대는 엄마를 좀 닮지, 코가 죽었어... 이같은 말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현실이다. 하나님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언어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가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지금은 없기에 그러한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언어가 바로의 명령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 있다. 이들의 정체성을 길러주는 말을 듣고 자라야 하는 영아기에 세상의 잣대를 심어주기 바쁜 부모들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 뿐 아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한 마디씩 던지는 주위 사람들의 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모세는 이런 영아기의 부모의 믿음 교육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에 장성하여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4-26)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더 귀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이 시대의 모세를 길러내는 일은 영아기의 모세를 키운 부모와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키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적 언어 순화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가치를 삭감시키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2. 사무엘 -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교회 중심의 자녀로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다. 한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이 있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삼상 1:11)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에도 기도한 한나의 마음이 들어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며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다짐하며 키웠을 것이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켰다. 이제 막 젖을 떼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이다. 곧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잠시만 눈을 돌려도 어른거리고 눈에 밝힐 그 어린 것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엄마인 나보다 더 잘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의 자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

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삼상 2:26) 세상의 모든 부모가 바라는 아름다운 자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모습이었다.

영아기의 믿음의 씨앗은 부모로부터 뿌려진다.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데려오는 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말하지 못해도 부모의 신앙의 모든 걸음을 다 보고 배우는 시기가 영아기이다. 젓을 먹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먹이는가? 하나님이 엄마에게 담아 주신 맛있는 맘마, 하나님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란다. 젓 먹이는 시간도 중요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아직 영아부에 데려오지 않는 부모도 있다. 좀 걷기 시작하면 데려올게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엄마의 품 안에서 하는 신앙 교육이 어떤 시기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아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이심을 알려 주는 교육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항상 이어져 나가야 한다.

3. 디모데 -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

디모데에게는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딤후 1:5)

대개 할머니들이 손자나 손녀를 보게 되면 자기 자녀를 키울 때와는 다른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생겨난다. 이 사랑이 한 곳으로 넘치게 되면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일로 인해 가끔은 교육을 위해 며느리나 딸과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공통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젓먹이인 영아기를 말한다. 어린 아기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 함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바울은 그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겠지만 디모데에게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을 본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왔음을 또한 알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 믿음의 자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에게 이어졌고 그 믿음을 보며 자란

디모데에게 있어 꽃을 피운 것 같이 믿음의 교육은 세대가 함께 해야 한다. 교회 학교 한 부서만 그 교육을 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하고, 온 세대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 낼 수 있다. 우리 세대의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어른들은 교회학교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가정에서, 뒷세대가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되었으니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돌아서면 세대의 함께 하는 교육, 믿음의 세대는 이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함께 하여야 한다. 내 자녀의 아픔만 해결되었다고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아픔에도 함께 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 저들이 잘못하면 부모대신 바른 길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대신 회개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일이다. 이런 세대를 이어가는 교육을 위해 교회학교 전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나 부서에서 조부모를 초청하는 예배, 혹은 조부모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아부가 영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음을 감사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구별된 믿음의 양육을 위하여 좀 더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설문지를 통해 지금의 신앙 양육을 진단해 본 것 같이 부족한 면을 채우고, 가정과 교회의 교육이 하나 되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신앙 교육은 주일의 한번 나들이 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그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복되는 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계속 점검하고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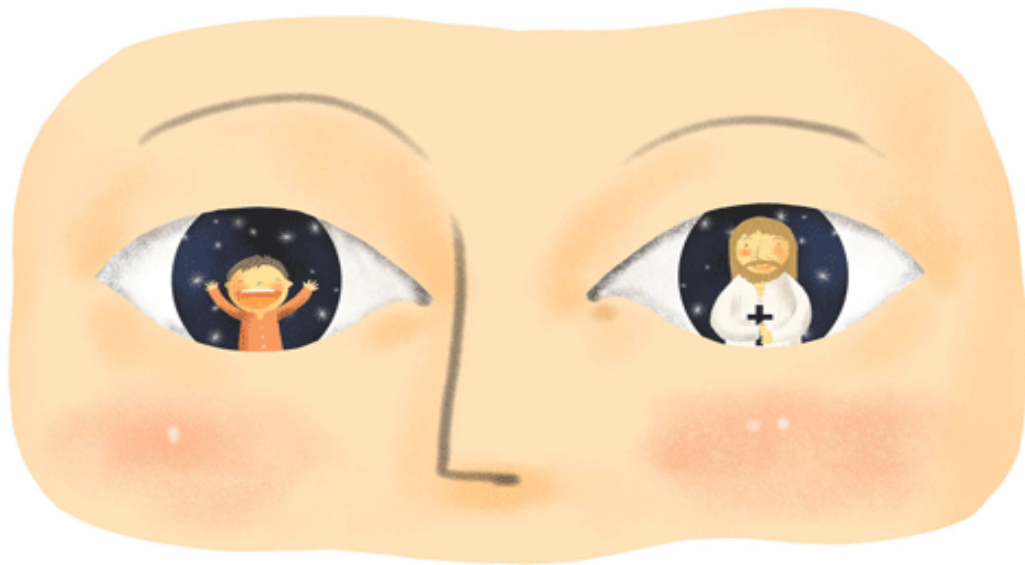
1. 주중 영아 교육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실질적인 신앙 양육의 교육이 어렵다. 주중에도 부모가 아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양육에 지쳐 신앙적인 면에서 기력을 잃어가는 부모에게 더욱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어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인 장소 확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심방을 통해 비록 영아부의 나이가 2세까지이지만 개월 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신생아의 시기와 이제 이유식을 하고 기어 다니는 시기, 일 년 정도 되어 걷기 시작하고 분주하게 엄마를 바쁘게 하는 시기등 이런 시기와 연령에 맞는 주중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더욱 효과적인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대 교육

조부모와 부모를 교육하는 일도 필요하다. 디모데를 길러낸 어머니 유니게나 할머니 로이스와 같은 믿음의 교육을 하도록 ‘로이스 학교’, ‘유니게 교실’을 운영하는 일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몰라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일에 급급한 부모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의 중요성과 이 귀한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긴급성을 알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사회적인 교육에 기대는 시간은 점점 빨라져 한 살만 지나도 종일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힘들어 어디에라도 보내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살 아이의 손가락은 분주히 youtube의 영상을 찾아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더 가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투자하는 부모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도 주 중에 다시 헌신 하여야 하고, 교사가 부족할 때는 교회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오랜 속담 중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우리 교회학교 교육으로 연결해 다시 말한다면 한 아이의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바꿀 수 있겠다. 신앙의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으며 이 일은 정해진 공간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마음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부서만이 아니라 온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겠다. 내 아이 하나가 잘 되는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나의 아이 곁에 있는 친구들, 이들이 자라는 그 동네, 그 학교, 그 사회, 그 나라를 품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저들을 키우는 부모를 향한 모습이 때로는 어른들의 눈에는 미숙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아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나갈까 생각만 해도 이런 모습은 소망이 넘치게 한다.



변화된 삶, 변화시키는 삶

Changing Lives



박성권 전도사
David Park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19:6b)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변화를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안전지대 안에 편히 있을 때에 또한 편한 일상의 생활 안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익숙하게 있을 때엔 모든 일이 어제와 같아서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빠지거나 일상적이지 아니라고 생각될 때 충격으로 받아드리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벌 받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역사에 방향을 다 지배하심을 믿고 모든 일이 선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18:1)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두 번이었습니다. 첫째는 중등부 7학년에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받게 된 것과 또 두 번째 전환점은 하나님의 일을 향한 부름을 받고 저의 인생의 사명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 사명

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Rev. 19:6b)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b. 13:8)

No one likes change. Especially, when they are comfortable in their own comfort zones; their own routine. The familiarity of our daily routine keeps up thinking that since everything is the “same-old, same-old” that “All is well.” But when one thing is out of place or is not what we expect to be “normal”, we react with shock and think that something must be wrong. Sometimes we even think, “Is this a punishment from God?” As believers in a God who is sovereign and in control of His creation and in the entire course of history, we must have faith that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good. He who even names all the trillions of stars in the universe, surely has something good in store for me. As the psalmist says,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Ps. 118:1)

There were two great turning points in my life. First, as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Lord and Savior just as I entered the seventh grade in junior high, then, it was a turning point as I accepted His call and assignment

중에는 우리 교회의 젊은 청소년들을 중등부 사역으로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 마다 출석 잘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 인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대학교 마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출세하고 주일 성수하고, 찬양대에서 서며, 십일조와 선교를 돕고 여러 행사를 통한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풀타임사역으로 사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제일 위대한 선지자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또한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일과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온 세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자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온 세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역의 부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저의 계획이 아니었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고생했습니다. 저의 계획과 인생의 답도 제가 다 알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작정하신 일로 의도하신 일들을 겪게 하면서 저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요?”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for my life. One of which is to serve the youth of our church through the Junior High ministry.

Growing up in the church, I had thought that being faithful in attendance was all that was necessary to be a Christian. Later, after college, marriage, children and career, I thought that weekly attendance, singing in the choir, tithing, contributing to the missions, and serving the various ministries was the “normal” thing for a Christian to do and, of course, it was within my comfort zone.

Yet surely, we are all called for something greater.

While not all of us are called to full time ministry, we are all called to minister all the time. Our purpose is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preached. And from the greatest evangelists who travel the world to the most modest act of defending the faith by striving for holiness, all of what we do for Christ is a message to the world. Our answering His call, to carry one’s cross and to follow him is a way to witness Jesus. May our passion to be the love of Jesus to each other and to the world be our testimony that we trust in God.

I hesitated for many years when I first felt the call to ministry. I was sure it was not a part of my plan and I struggled because of stubbornness to not accept God’s will. I had my own plans and own answers to life’s questions. But the pull towards what God had originally intended for me caused my knees to break into prayer and ask why all the events were happening the way they were in my life.

그 후부터 “이것을 위하여 저를 만드셨습니까?”라는 질문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삶을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체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느 곳에서 섬기시고 계시던지 바로 그 곳부터 변화시키는 복음의 변화된 삶 자체로 보여 주어 전합시다. 여러분의 간증이 설교입니다.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 또 비종교적이며 세속적인 뉴욕에서도 불구하고 사십년 동안 복음을 들고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게 된 것은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한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삶이 저의 모범이 되었고 이 사명의 부름을 가지고 삶의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a)

아멘!

I received, since then, many answers in many occasions and in many different divine ways, God's answer to the question, "Is this what you made me to do?" One of which was Jeremiah 1:5,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God has changed my life. With His Word and various men of God, He has given me the glorious opportunity to take part in His kingdom to change lives. Wherever you are in your Christian faith and wherever you are in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e gospel that has changed you, is the gospel you preach by your changed life. Your testimony is your sermon. The Gospel is the power by which lives are changed.

After our church has persevered through forty years by impacting and changing lives with the Gospel, within a corrupt world and a increasingly secular environment like New York, I have witnessed pastors, elders, kwon-sas, deacons, and all Christians alike from our blessed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boldly proclaiming the message of Jesus. Theirs is the life that set the example for me and encouraged me to answer this call and take part in changing lives by declaring,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Rom. 1:16a)

The Son of Life has changed my life.



Unique Narrative



배형민 전도사

There is an increasing school of thought in our circles today that pushes a narrative of uniqueness concerning our youth. This narrative says that, the youth of today are facing challenges on an unprecedented level. They face open opposition, criticism, and even mockery of the Christian faith from their peers, and their authority figures. One needs only to look at the explosive popularity of films such as, *God's Not Dead*, to see the prevalence of this narrative.

In the 2014 film, *God's Not Dead*, a brave young Christian student dares to take a stand against his philosophy professor, who is determined not only to remain a committed atheist, but also to ensure that all of his students are also atheists. Indeed, the professor belittles, and mocks his Christian colleague, while openly challenging any student who would dare disagree with his premise, "God is dead."

There are dozens of films, e-mail chains, and anecdotes that continue to press this narrative of unprecedented Christian oppression at the hands of the secular worl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our youth. "Our youth today are facing temptations, and oppressions unlike ever before, indeed our very Christianity and faith are being persecuted at every level at an unprecedented scale!"

It is my belief that this narrative is both false and unhelpful towards our youth, and that we must not lead our youth ministries, our families, or even our lives with this misleading paradigm.

The idea that Christians are facing oppressions, persecutions, and temptations on a never-before-seen scale, I believe, is a false one. We continue to hear the supposed existence of philosophy professors who openly mock Christianity, and science professors who actively attempt to “disprove” God. However, is this truly the case? Indeed, there can be no doubt that a vast majority of scholars in the world of academia, particularly those in areas such as science, are self-professing atheists. However, it is in truths like these, that we see where this faulty narrative is born. The narrative in its simplest form is usually born from this line of logic:

Most scientists today are self-professed atheists, Richard Dawkins is a prominent scientist who is a self-professed atheist, therefore all atheist scientists must be like Richard Dawkins.

By playing a game of association, we begin to construct in our heads a sort of bogeyman science professor and teacher, with all the vitriol and venom of a figure like Richard Dawkins who roams the halls of our children’s schools. We imagine them to be in the classrooms and lecture halls of our children. However, this simply is not the case. There are a vast majority of self-professing atheists who truly wish to disassociate themselves from the agenda of men like Dawkins, as a result, even within such communities, they have begun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atheists and anti-theists.¹

We must acknowledge this kind of fear to be both unfounded and unhelpful. We do the youth of our churches and our children no favors by exaggerating the hostilities of society. I believe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perpetuation of such a narrative is unhelpful and even harmful.

First, it constructs a society in the minds of our youth that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he real world. In this world, anybody who is not a Christian harbors deep resentment towards God for some past wrong, and is out to attack and indeed convert (or perhaps unconvert) anybody who is not an atheist. However, as our youth age, and begin to interact with those outside of their families and their churches, they begin to see that the world is not the way it was described to them. As they go off to college they begin to meet atheists who seem to bear no ill will towards Christians or God, contrary to what they had been led to believe. They meet atheists who are kind, respectful, charitable, and un-judgmental towards the beliefs of others, and very quickly their Christian worldview begins to erode.

¹ Atheists would be those who don’t believe that God exists, while anti-theists would be men such as Dawkins, who actively work and argue to disprove God.

Therein lies the danger. As they begin to realize that what they had been taught concerning atheists does not comport with the reality before them, they begin to question other things that they had been taught. They begin to see that not all atheists are atheists because they were once Christians, who because of some unanswered prayer, became atheists who hated God. But rather, there are some atheists who are atheists simply because they were raised as such. They had never known any other life. They had never even thought to ask themselves the question, “Does God exist?” Because they had never even begun to seriously wrestle with even the very idea of God.

Some of the most common refrains I hear from Christians who have become atheists ar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tuff anymore,” “I just realized how crazy it all seemed,” or “I just realized that its no different from Santa Claus.” We must not teach our youth some version of the Gospel, or a Christian worldview built upon our narrative of uniqueness, but rather we must present to them the robust and gloriously risen Christ, who dies to redeem a sinful and broken world that is still restrained by the mercies of common grace.

Second, I believe that the perpetuation of such a narrative is unhelpful because it fails to raise up effective evangelists and apologists. Our youth have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unbelievers in a way that pastors can only envy. Indeed, they interact with them on a daily basis: at school, in the halls, and in their extra-curricular activities. If our youth believe that all atheists are out to convert them, or are bitter souls who have rejected God because of some misguided understanding of His nature; our youth will never be winsome and effective evangelists. They will be too intimidated to share or even reveal their faith for fear of mockery or rejection. For those who are bold enough to share their faith with their peers, will find their attempts largely unfruitful. They will insist that their atheistic peers are atheists because they must “hate” God for some reason. “Why do you hate God?” If their peers deny hating God for any particular reason, and alternatively explain that they simply had not even begun to pose the question of God to themselves. Our youth may reject the confessions of their peers, and perhaps rather pig-headedly inform them that they must indeed hate God.² We must train and equip our youth to be effective and helpful apologists, teaching them to be winsome, gracious, and attentive to what others tell them, or else we do a disservice to the kingdom of God.

² I do recognize that all unbelievers in some sense “hate” God, as per Romans 1, but maintain that there must be a difference of some kind between the “hatred” I speak of here, and the “hatred” spoken of in Romans 1.

Third, we teach our youth an Us-VS-Them mentality. All Christians are on one team, while the rest of the world is on the other, and the former must prevail over the latter. Such a mindset only encourages our children to be ungracious and combative towards un-believers, and overly gracious towards nominal believers. This makes our youth defensive, withdrawn, and unappealing to the world.

The Gospel on the other hand paints a picture of Christ-VS-Sin, not Us-VS-Them. Indeed much of Scripture describes all humans as being in need of the grace and mercy of God. Christians are to love their unbelieving neighbors, that they might win them over to Christ. This is not to say that Christians and unbelievers have no real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ut rather that we must encourage our youth to begin thinking along the lines of Christ-VS-Sin, as opposed to Us-VS-Them. Else, they will begin to see all unbelievers as enemies to be fought, rather than neighbors to be invited to the feast.

I want to acknowledge that the challenges of our youth today are indeed different, than those that were faced by the previous generations of Christians. In our technological world, filled with social media, our youth today are being challenged in new ways. The advent of sexting, “hook-up” culture, and a casual attitude towards sex and alcohol are real challenges that we as the church and those who labor in it, must address head-on. However, we must realize that while the method of sin may be new, and different, the struggle and sin, remain the same. Our children are faced with the same age-old temptations, e.g., sex, pleasure, power, envy, anger, insecurity. If we look behind the method of sin, we see the same sins that Christians have always wrestled with. What is sexting? Is it not a new manifestation of perverted lust? What is online bullying? Is it not the product of vicious pride, and lack of compassion? Aren’t the struggles of our youth, the same as the struggles of the saints who have come before us? Do they not still struggle with the temptations of power, lust, attention, acceptance, fame, etc?

Indeed, the opportunities to sin have certainly become “easier” for our youth, and those temptations have crept into our homes by way of technology. But praise be to God for we have a Savior who mercifully died for those sins of His people! I am not saying that we do not need to re-examine our approach towards the youth, or to take new measures and means to guard our youth from sin. Rather, I am saying that we ought to take heart, though the method is new and unprecedented, the sin is the same, and we have the same Spirit, the same Savior, and the same Sovereign Lord who promises freedom from such sin!

I also wish to acknowledge that indeed, compared to just a few decades ago, Christianity is very quickly becoming rendered foreign, backwards, and incompatible with society. Our morality and presuppositions are no longer the assumed norm, but rather the backwards and unwelcome guest. However, this should not cause us to panic and retreat from the world, but rather should spur us on to rejoice and to engage with the world! We need only look to our forefathers in the faith or to the early Christian church to see that this is not new. We can take heart, though we may be pushed to the fringes of society, our spiritual forefathers began at the fringes of society, and Christianity eventually came to irreversibly change the world. As we are pushed to the outskirts of our culture, and as the world continues to see us as foreign and backwards, we can take heart. For they also thought the s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f the early church. We can continue to press on, knowing that our God is sovereign in all things and that Christ has won the victory! We share the burden of circumstance with those early laborers who built the church, and the Church will never fall as she stands upon the rock of Christ!

But what then is the new spirit of unbelief in our current age? If all atheists are not anti-theists, than what are they? It is my belief that a vast majority of atheists are not atheists because they have rejected Christ but rather for reasons relating, but not limited to, ignorance and opportunity, and/or aesthetics.

I believe that many people who are atheists today, are atheists for reasons of ignorance. They simply have not wrestled with the true Gospe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ny atheists have never wrestled with a full and robust Christian doctrine, but rather they have only encountered a distorted and fundamentalist strawman version of Christianity. This is evidenced by their supposed “arguments” against Christianity. Critics are quick to criticize orthodox Christianity by pointing out the supposed inconsistencies or absurdities in the Bible. They reference the Levitical laws when they feel that Christians are trying to press their religion upon others too zealously. Referencing Leviticus 19, they cry hypocrisy to Christians who would dare condemn the sins of society, and yet continue to wear clothes made of more than one fabric.

The simplicity of their argumentation betrays their ignorance. These atheists have not rejected Christianity, or God, but rather they have rejected the product of their imagination. Their reliance on the Old Testament purity laws as their defense against Christians reveals that they truly do not understand even some of the most basic con-

cepts of orthodox Christianity.

It has long been said that Europe is the pioneer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atever Europe's culture may be like, you can be sure that the British are a decade or two behind the mainland of Europe, whi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mains a decade or two behind the British. When one examines the lives of European atheists, one inevitably encounters a purer form of ignorance.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European youth who are not only unfamiliar with the very basics of Christianity,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very basics of Christ Himself! I have found that they often don't know that Orthodox Christianity teaches that Christ was the Son of God, who came and died for the sins of humanity, that they might be reconciled to the Father, through penal substitution. Far from rejecting this truth, they've never even heard this truth. All that they've heard regarding Christ, the God-Man, is that there was once a man named Jesus, and He was a very good, and kind man. Indeed, these European atheists are hardly out on the streets prowling for Christians, that they might disprove God. Rather, these European atheists are walking aimlessly around the street, completely unaware of the very basics of the Christian doctrine!

In these senses there is a spirit of ignorance in the atheism of the modern day. Part of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se atheists have never even had the opportunity to hear the Christian doctrine. Either because orthodox Christian churches and teachers are an incredible rarity in their contexts, or because they've become so turned off by the fundamentalism that surrounds them, they've refused to listen to any other Christian or Christian teaching since then. This kind of atheism is not born out of deliberate and personal hatred for God, but rather a passive ignorant disconnect from the God of Scripture and the Bible! We must let this understanding shape our witness, and the witness of our children! More often than not, these atheists are open to discussions about the Orthodox Christian faith, provided a Christian does not lose the battle of acceptability with them.

In order to open the door to discussion, it is important for a Christian to be "acceptable." Our evangelists must not be seen as backward, or hateful, or angry. We must be seen as hardworking, gracious, loving, kind, gentle, etc. We must also be seen as different. Therein lies the opportunity of our witnesses. We cannot be seen as "hateful" or "backwards" or even "strange," or else we lose credibility to our unbelieving neighbors. Our youth must be seen as different by their peers, but not in an unapproachable way.

Our youth must be curiously different, and yet still be respected and accepted, this acceptance by their unbelieving peers, gives credibility and weight to the witness of our youth. I believe that atheism is seeing a resurgence in the popular culture because of its aesthetic acceptability. I once heard it pointed out that, as Christians we have not lost the battle of reas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only battles that matter in our societies today, are the battles of aesthetics. What do I mean by this? I mean that as Christians, we have represented ourselves, or allowed ourselves to be represented, in an aesthetically unpleasing way.

I am not saying we should put better looking pastors on our brochure and book covers, nor am I saying that our church buildings are simply too outdated and unattractive, and that we should all renovate our churches. What I mean by losing the battle of aesthetics, is that we have failed to show the beauty of the Christian Life.

When the world sees Christians they tend to see, whether justified or not, the very worst we have to offer. They see examples of churches such as the Westboro Baptist Church picketing funerals, or they hear Pat Robertson and Jerry Falwell claiming that natural disasters along with the deaths and devastations that they bring, are the outpourings of God's wrath upon the world, for its position on homosexuality. When unbelievers look at Christian churches, or think of Christians, particularly orthodox and evangelical Christians, they tend to think of the Westboro Baptist Church, commenters, televangelists, or angry hellfire and natural disaster homophobes.

We are seen as predatory, divisive, gossiping, bitter, superstitious, and hateful people. The world hears stories of pastors having affairs with their secretaries, or pastors cheating on their wives with a homosexual partner, and eventually all they see about us is lying, hypocritical, hate. If we compare this with the perception and portrayal of atheists today, we see a stark contrast. Atheists are seen as cool, objective, intelligent, and even moral, while Christians are seen as foolish, backwards, stupid, hateful, and hypocritical. The more Christians push this false narrative of atheists, the more we start upset and frustrate our unbelieving neighbors. Our youth, and those we teach, will continue to react defensively, and ultimately we will continue to lose credibility before our unbelieving neighbors.

We must reclaim our stake in the aesthetic battle! Part of the problem is that not enough atheists know enough godly and kind Christians. However, part of this problem

is the fact that our godly and kind Christians, are not revealing their faith filled lives to their unbelieving neighbors. Often, Christians fail to do so, because they are unsure of how to show their faith to their unbelieving neighbors. As leaders in the church, as leaders of the youth, we must train and equip our youth to show Christ to their peers. To show their peers that Christians are loving, patient, kind, and hopeful people. We do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nor are we racked with fear or guilt. On the contrary, we are filled with hope, mercy, and love, because of the hope that we have in Christ. We must continue to train and equip our youth that they might show all the beauties of the Gospel in their lives. As they do so, they will shine light upon the darkness of the lives of their peers, revealing the hypocrisy in the lives of their neighbors, and illuminating them with the light of Christ.

We must continue to provide robust training to equip our youth, not indoctrinating them with a cleaned-up and simplified view of the world and the Scriptures. But rather we must train and raise them with all the robustness of Scripture, and bring them up to be effective witnesses for our Lord Jesus Christ. God is indeed, not dead, and we must raise our children up in the living truths of the living God, that we might reclaim His dead and dying people.



<시>

갈멜산



오차인 전도사

멀리서 바라본 네 모습

웅장하고 포근하게 만 보이던 네 모습

굽이굽이 돌아

정상에 서보니

하늘과 맞닿았구나!

멜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한 단 한 단 일곱 개의 돌무더기를 쌓을 때에

멜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그리고 기다리셨던 것을

나의 갈멜산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을 새벽 부흥회

단풍이 온 세상을 물들일 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가을 새벽 부흥회가 열렸다. 한 주간의 새벽마다 “회심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펼쳐졌다. 강사 김성국 목사님은 부흥회 전날(10월 19일) 주일 “거듭남”의 주제로 말씀하셨고 거듭남은 회심과 부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시간 시간 회심과 그 열매로써 삶의 모든 분야에 회복과 외치셨다.

편집부

10월 20일 (월) 주제: 회심과 개인의 부흥

본문: 사도행전 16장 13-15절, 디모데후서 3장 14-15절

‘부흥’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 축복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가정과기업의 부흥은 오랫동안 간구했던 것들이, 막혔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이다.

‘회심’이란? 한 번의 회개 사건 일수도 있고, 일생 전체에 있어서 계속 돌이키면서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가는 것이다.

디모데형의 회심은 모태신앙인 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받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확신에 거하며, 피해야 할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삶 전체 가운데 매일매일의 회개이다.

루디아형의 회심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한 지점에서의 절절한 회개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심과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변화 되어야 한다.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리고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개인과 기업의 변화가 온 성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것이다.

10월 21일(화) 주제: 회심과 가정의 부흥

본문: 창세기 35장 1-15절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린다. 가장이신 여러분들은 오늘 당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라. ‘당신 가정의 행복지수를’

본문의 야곱은 가장이었다. 그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왜냐하면,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린 야곱이 벵엘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야곱의 딸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벵엘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서원의 자리로, 다시 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축복이 임했다. 우리 모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도 얻고 다른 것들도 얻게 될 것이고, 나 자신도 살고 축복이 흐르는 가정도 세우게 될 것이다.

10월 22일 (수) 주제: 회심과 기업의 부흥

본문: 호세아 10장 12-15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루 온 땅을 찾아 복을 주신다. 변화 받은 사람은 언어, 생각,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의 회심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를 심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하다 .

10월 23일(목) 주제: 회심과 교회의 부흥

본문: 사무엘 상 7장 1-11절

경주마의 가림막은 목표에서 이탈하지 말고 똑바로 가라고 씩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궤가 다시 들어간 날부터 20년동안 기랴여아림에 있는 동안 평안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였지만 그들이 한마음이 아니라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다른것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겠다는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미스바의 대 성회를 갖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전심으로 구하자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변함이 없고, 삶이 없는 기도가 되지 말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교회의 두려움이 끊어지고 물러날 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응답의 실체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이다, 최후승리는 십자가에 있다.

10월 24일(금) 주제: 회심과 나라의 부흥

본문: 역대 하 7장 11-18절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해야 할 것 회심은 꼭 필요하다. 회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은혜가 없고 부흥이 없고 축복이 없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필역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며 응답을 받은 내용이다.

회심은 악한데서 떠나는 것이다. 염려와 근심도 상처도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죄이다. 우리가 회심하고 기도할 때 미국이, 한국이 온 땅이 회복된다, 부흥된다, 우리의 꿈은 가정의 회복, 기업의 회복, 온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열방에 대한 부흥을 회복하고 겸손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담대히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진정한 교회 회복은, 기도하여야 하고, 나가야 하고, 세워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증표가 되어야 한다

10월 25일(토) 주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본문: 시편 85편 1-13절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집단적이고 공동체가 함께 잠깨우고 일어나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신이 소생되는 것이다. 우리가 잠자고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죄를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자의 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님의 보혈 덮어주고 십자가의 그늘아래 피해 갈 때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 품에 피하고 돌아가야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주님과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며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 가는 것이 부흥이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공훈과 다시의 축복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야곱의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자, 요셉은 전능자의 팔이 함께 함으로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받는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교회를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용서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자가 되어 끝까지 사랑케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변화되어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 받은 가지가 뻗치는 자가되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온 땅에 부흥에 대한 절박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 내시사 기필코 복을 주실것이다.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앞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되자.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끊임없는 부흥에 출발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제목을 통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축복이 다시 쌓이고 쌓이는 하늘과 땅이 다시 터져나는 가족과 교회와 민족이 되자.

마지막 시간에 "야곱의 축복"으로 찬양을 하며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온 교인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교회에 부흥과 우리의 회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믿음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직원 가족 수련회



박선해 사모



10월 13일 콜럼버스 데이, 오전 9시, 퀸즈장로교회 교직원 가족 모두 교회에 모였다. 모이자마자 모두를 위해 바구니가 준비되어있었다. 아침 식사와 교직원 가족 수련회에 갈 장소까지 운행 중에 먹을 간식이 여러 종류대로 세밀하게 귀한 전도사님들의 정성어린 사랑으로 담아서 있었다. 따끈한 사랑을 느꼈다. 우리가정은 애들이 많은 덕에 제일 반가운 것이 먹을거리 간식바구니였다. 참 오랜만에 받아본 바구니라 처음으로 교직원 가족 수련회를 가는 나에게 참으로 감격 이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의 기도로 출발! 우리 차는 늘 아이들에게 인기 짱! 커스텀 벤이라 크고, 아이들이 많아 우리차로 아이들이 다 몰렸다. 저희 가족은 늘 토요일 새벽에 펜에서 올라오는데 차에서 자는 나는 목에 담이 걸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픔을 안고 떠났다. 일 년 반 동안 이런 아픔이 없었는데... 가는 길목마다 아름다운 경치에 단풍들이 제 각기 색동저고리를 입히운 것 같았다. 산으로 올라가며 커브를 돌때마다 아이들은 롤러 코스를 탄 것 마냥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는 차멀미가 시작되

었다. 우웩! 목은 끝인데 속은 출렁출렁 거렸다. 한 시간 후에 세븐 레이크 공원에 도착했다. 말만 들었던 이곳에.... 너무 아름답고 바비큐 하기에는 딱! 알맞은 장소였다. 부지런하신 우리 권장 전도사님께서 미리 장소를 맡기 위해 뉴저지에서 아침 7시에 달려 오셨단다. 역시 권장의 열정은 어디서나 언제나 볼 수 있다. 교제에도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님이 다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의 위를 기쁘게 해줄 맛있는 불고기와 입에 녹는 삼겹살을 굽기 위하여 차콜을 불 피우기 시작하였다. 비가 올 거라는 예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빗겨갔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너무 추워서 또 하나는 차콜에 불이 나갈까봐 우리는 몸으로 바람을 등지고 마음으로는 서로에게 가깝게 훈훈한 사랑의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불하나씩 목에 걸고 수퍼 보이와 수퍼 걸로 유니폼을 삼고 축구도하고 도토리리를 주워서 불에 굽기도 하고, 도토리 던지기 싸움을 하며 고기 구울 때까지 마냥 흥투성이에 찬바람을 맞으며 코를 흘리곤 했다.

드디어 고기 굽는 데에 일가견이 있으신 전문가-전도사님의 말씀이 차콜이 안 좋다고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인식한 다른 보조 고기 굽기 전도사님들이 새로운 차콜로 다시 깔았다. 다시 처음서부터... 그냥 소고기 회로 먹어야 할까? 인내심을 가지고 보조 고기 굽는 전도사님들은 열심이 뒤집으셨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여 주셨는지 꼭 우리가정만을 위

하여 오늘이 있었나 할 정도로 세심한 준비와 배려하심을 느꼈다. 추운 날에는 뜨끈한 국물! 역시 컵라면이 가장 인기 폭발! 라면국물 한 모금에 불고기 한 점, 또 라면 국물 한 모금에 삼겹살 두 점!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김치 삼겹살 불고기소스 볶음밥! 밥을 막 비비고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춘 목사님과 장미은 사모님께서 오셨다. 참 시간을 잘 맞추어 오셨다. 고슬고슬하게 볶아진 밥을 한입에 넣었다. 역시 꿀맛이었다.

장영춘 목사님께서서는 몸이 불편하신데, 추운바람에도 교역자를 향한 사랑에 달려 오셨단다. 몸에 안 좋은 사발면을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 찬바람 맞으실까봐 모두가 보살펴 드렸다.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되었다. 이명옥 전도사님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란 시를 읊어 드렸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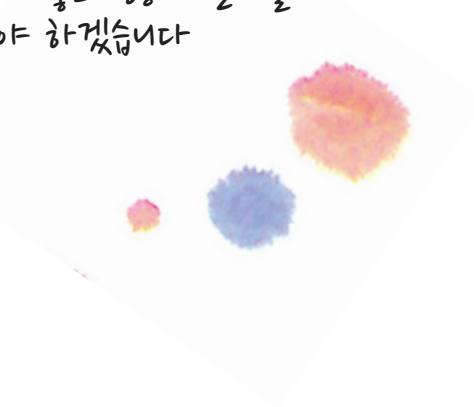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퀸즈장로교회 교직원의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야외 퀸장 교직원 가족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앉았다. 은혜로운 우리 김성국 목사님의 자연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과 찬송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예배를 마치고 오인수 목사님께서 교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셨다. 설문지에는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교직원으로써 가족에게 미안했던 점”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 놓았다. 이구동성으로 사모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역하면서 돌볼 수 없었던 상황과 못해주었던 어려운 상황에도 온 가족 모두가 사역자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아들, 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되어 주심에 교역자 모두 미안함과 감사함을 털어 놓았다.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특별히 우리 김명자 사모님을 향한 우리 김목사님의 사랑과 배려와 헌신이 무엇인지 간증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고, 우리 모두 한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었다. 눈물 머금으며,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까지 운전하며 달려 가야하는

가족들에게 저녁을 먹여 보내고자 하시는 속 깊은 배려를 유감없이 또 한 번 발휘하셨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예에!!! “ 난 짬뽕! 넌 짜장면!” 하며 뉴저지로 향했다.

참으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한분 때문에 한 가족이 되어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감싸 안고, 보듬아 주고, 영육을 먹여주며, 힘을 실어주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몸인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천국이였다. 교직원 가족들이 주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주신 하나님 우리 아바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

함께 한 40년, 비전의 40년 그 곳을 향하여!



제8회 태아교실을 마치고



이유탉 집사

어느덧 아내가 임신 30주차일 때 때마침 영아부 주최 태아교실이 있다는 것을 교구 전도사님께 전해 듣고 곧바로 신청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태아교실을 알아보고 있을 때여서 더욱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첫날 영아부실에 들어서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영아부 앞 복도를 지나치기만 했는데 막상 영아부실에 들어서니 정말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태아교실 첫째 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시편 127편 3절의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니라”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면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 아내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떨떨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구나...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까지..

주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니 많은 축복과 격려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이가 애를 키우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지요. 주위에서도 제가 아빠 되는 게 좀 불안이 되나 싶어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기쁨이(아기 태명)를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2주 동안 2번에 걸쳐 진행된 태아교실 기간 동안 정말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태교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 특히 성경적 태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태교를 배웠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



님께 순종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을 배웠고 또한 아내를 위해 미역국과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아기가 태어난 후에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너무나 값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태아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실천하기에 좀 낯선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배에 데고 매일 저녁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에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천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쁨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아빠가 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내의 첫 출산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가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처럼 저희 품에 기쁨이를 주신분이 하나님이시니 해산 또한 순조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태아교실 마지막 날에는 영아부에서 마련해주신 맛있는 만찬과 태아교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신 김성국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받은 고마운 선물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태아교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주신 영아부 선생님들, 조명옥 권사님과 이명옥 전도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8회 태아교실 참가기



박수연 집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하에 제 8회 태아교실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목사님, 영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6회 태아교실 참석 후 너무 좋은 태아교실을 다시 한 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둘째 아이 때도 8회 태아교실을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시작으로 태아교실을 시작하신 이명옥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큰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사님의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부모님들의 교육과 기도의 삶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3월 6일 기대 중 시작한 태아교실 첫날에서는 성경적 태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자세히 배웠습니다. 성전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처럼, 구별된 가치관의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을 본받아 이러한 자녀를 기르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태아가 기억을 하는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 말씀을 들려주면 태아가 뱃속에서도 듣는다는 전사님의 말씀에 저의 부부는 배위에 손을 얹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배웠습니다. 강의 후에는 영아부 선생님들께서 “남편과 함께 끓이는 미역국”란 주제로 남편에게 요리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니 좋은 영양과 함께 태아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미역국을 통하여 태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알려지 전문 의사선생님께서 알려지의 원인과 규명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 기도 중 기대되는 두 번째 태아교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선생님께서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주신, 상콤한 딸기와 스윗크림 디저트 와 쿠키는 자칫 임신으로 피곤해 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up 시켜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체조를 통해서 몸이 릴랙스 되면서 태아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권사님의 생생한 산후조리가이드로 어떻게 좋은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배웠습니다.

3월 20일, 첫 봄날의 시작과 같이, 따스하고 아름다운 만찬 및 수료예배의 날이 왔습니다. 김성국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한 예배와 각자의 가정을 위해 해주신 안수기도를 받은 저의 부부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아주 멋진 태아교실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킹크랩과 이태리정통의 스파게티와 마늘빵, 상콤한 샐러드와 예쁜 디저트는 저희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축복의 나누기 시간에서 아주 예쁘고 꼭 필요한 아기 선물을 각 가정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태아교실이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좋은 기회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 곧바로 나가는 부모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저의 4대째 믿음을, 저희도 부모님과 같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리라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영아부의 예배



박양부 장로

할렐루야!

영아부에서 지난 3월 첫 주, Grandparent's Day에 기도의 할아버지로 초대되어 처음으로 영아부에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탁 받아 영아부에 들어왔지만 아가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사뭇 신기함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드리는 예배.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소문대로 모든 교회에서 부러워 할 만하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며 감사함과 너무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며 감격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칭찬하시며 기뻐하실까?

오늘 나에게 안겨준 믿음의 손녀는 '박승혜'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계속 저는 기도의 할아버지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아부에서 나눠준

'걸음마'란 소식지를 보며 또 한 번 감사하며 감격스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심방을 받고 변화된 엄마의 간증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가정예배를 꼭 아이와 함께 드리게 되었다는 내용
2. PTA 회장단들이 최선을 다해 교사들을 섬기는 모습
3. 꿀 송이 퀴즈대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한 엄마의 간증
4. ‘아빠와 함께 드리는 예배’ 후 처음으로 아빠가 된 감동의 마음을 담은 글
5. 찬양 축제 후에 나눈 감사의 표현 글들
6. 새아가 환영 예배를 준비한 교사들의 열심과 PTA의 섬김,
또한 환영을 받은 부모의 감사
7. 태아교실로 아기를 출산하기 전 부모로서 태아에 대한 감사의 간증
이런 영아부의 많은 행사와 교사, 학부모의 마음이 담긴 내용을 읽고 또 읽
으며, 앞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 권사님,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헌신
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기에 영아부의 한 엄마가 이명옥전도사님을 영아부의 보석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 역시 쉬지 않고 매월 기도 짝을 지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모습, 교사들을 교육하는 내용 중에 ‘구약성경 공부를 마치고’ 적어 주신 교사의 은혜로운 간증, 노방 전도하며 행복해 하는 교사의 모습, 연말 특별 기도회의 뜨거움 등등....



특히 이명옥전도사님과 부장 권사님께서 교사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는 모습은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처음 참석한 영아부 예배였지만 큰 감동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저에게 생명이 지속되는 한 영아부와 나의 영적 기도의 손녀 승혜를 위해 기도하며 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부를 졸업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문승재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 믿음반 이하리 엄마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던 저와 저의 아이들의 영아부 생활이 오늘로 마지막이라 하니 무언지 모를 섭섭함과 시원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유년기부터 교회생활을 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것에 관해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첫아이를 가지고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세 번이나 읽어주었을 정도로 신앙교육을 하는데 열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는 제 마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많은 신앙서적에서 본 지식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모든 일에 정신이 없어 신앙교육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접했던 신앙교육이 실제에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알았습니다.

6주된 첫째 아이를 안고 왔던 영아부는 제게 너무나도 감사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법,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또는 우유를 줄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이와 놀아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저 자신이 갖지 못했던 유아기 때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때때로 찬양하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아이를 보며,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아이를 보며 깨닫습니다.

기도주간, 꿀 송이 퀴즈대회, 찬양시간, 절기 때마다 보여 지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수고 ...

사실 행사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저를 통해 아이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잘 다져진 말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 아이와 엄마들의 눈높이를 모두 맞춰야 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영아부를 떠나지만 세상의 배움과 문화에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첫발을 내딛게 해주신 영아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음리와 하리가 영아부에서 잘 쌓은 신앙의 기초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감사라는 한단어로 다 표현 할 순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아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아부를 졸업하고 이제는 교사가 되어



유치부 차빛나 교사

I am frequently asked which church I am currently attending. When asked this, I state that I am attending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and that I was born into the church. Many people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tate this, but I am blessed to state this proudly.

KAPCQ has been a big part of my 22 years in this world. I've learned many times that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and I believe that is a true statement. Instead of being raised in a village, I have been raised in this church. KAPCQ always felt like a part of my family because I have shared many happy moments together. My family and the people of the church have taught me and allowed my faith to grow in a place of comfort.. Even though my memory of my childhood isn't perfect, I do remember many moments of my years being at church. My parents, brother and I always got ready together on Sundays with such enthusiasm and joy. To me, Sunday was the day to go to church and sing praise and to listen to a sermon from the Bible. The highlight of 영아부, 유아부, and 유치부 was being able to learn about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Hearing about Jesus Christ, Noah's Ark, and the Ten Commandments from pastors stayed with me because of their enthusiasm and strong message. I wanted to be like these heroic appointed leaders. The stories were told in such a way that I still enjoy listening to them.

It was time for me to let go of my parents and to discover my faith and myself on my own. During my years in 유년부 and 초등부, I learned of God's Word in a more deeper way. During this time in my life, my dad began to go to missions and I watched him leave. Although I didn't know what missions were for, I knew that it was to do God's work. I made a promise to myself that I would, one day, go to missions, when God gave me the

right moment. Through teachers, pastors and friends, I fell deeper in love with God and His Word. I remember being in the hospital for several days due to an asthma attack. The pain and fear of being in the hospital was overcome by the constant prayer and love from the church.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people of KAPCQ weren't just my family only when I was physically inside church, but they were also my family when I was sick. Moving forward to my teenage years, God gave me security and confidence. During times of difficulty, God gave me the strength to stand up and persevere.

From my years in **중등부** through my years in college, I have celebrated many moments in KAPCQ. I was nurtured and cared for during critical moments in my life. When I felt vulnerable, I was reminded of the strength Christ had. I was always showered with love from members within the church that made me feel secure. I have fought insecurities and although I was confused at times, God and KAPCQ always reminded me again of my purpose in this world. I found my calling to missions by going to China and Africa. Many outside of the church complimented me on my humility and empathy towards the less fortunate. KAPCQ taught me that missionaries are never about helping people that are less fortunate, but to continue God's work as His chosen people. I never saw myself as a higher being, but rather as one blessed to be called by God and surrounded by so many humble people in KAPCQ.

Today, as I graduated from Stony Brook University,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serve in KAPCQ as a teacher in because I have witnessed the importance of growth at a young age. Because many pastors and teachers have shown me love, I knew that it is my turn to try and to give all that I can onto others. As a person that has grown faithfully in the church, I hope that God will continue to give me faith to continue to be a part of KAPCQ and to have a wide vision to grow.



기도의 무릎!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퀸즈장로교회 선진의 유산



강지영 전도사

“기도는 호흡! 승리! 생명! 축복이다” 하며 외치며 기도하던 선진들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40년이란 세월, 뉴욕이라는 이 먼 땅에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민가방 몇 개 손에 들고 와서 살다가 세월이 흘러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자리 잡았다고 생각 할 때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의 재산과 결혼했을 때 받은 예물, 자녀들의 돌 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며 후러싱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신 선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세워진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열방에 흩어져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터가 되었습니다.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의 무릎 꿇음이 있었기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선진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음 다음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11:1)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

1.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눅11:2; 빌1:3-4; 엡3:14)
2.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116:1-2; 렘29:12-13; 벧전3:12)
3.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65:24; 엡1:19-20)
4.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시55:1,16,17)
5. 우리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시139:1-12; 욥2:1)
6.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조용히, 소리 내어, 짧게, 혹은 길게,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나라 말로든지. (스5:14; 삼상1:13; 왕상8:22; 대하6:13; 행20:36)
7.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히4:16)
8.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기도든 특권이며, 책임이며, 명령이다. (눅18:1; 21:36; 엡6:18; 살전5:17)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은 한국과 달리 학교

는 3시 정도면 끝나고 너무나도 자유 시간이 많습니다. 요즘은 방과 후 학교와 학원들의 옵션이 많아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20년 전만 해도 SAT 학원은 시험 때나 다녔지 시간 사용이 자유로웠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의 간증입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학교 공부 보다는 놀러 다니느라 바빠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밤늦게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는 아빠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밤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의 기도는 딸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자녀로 변화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기도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이루 셧습니다. 이러한 삶의 행함이 자녀에게 하는 열 마디 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안고서 크게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경외심, 감은 눈, 간구하는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제법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기에 부모의 기도하는 것을 따라 하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똑같은 기도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여 기도의 습관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때로는 기도해야 할 제목을 알려 주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예배 때 마다 목사님의 새 건축을 위한 기도가 한 유치부아이의 기도 제목이 되어 날마다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올해에 선교를 간 6군데 지역을 기억하며 자기의 담임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녀가 선교지에 갔다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 기도제목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살 난 아이도 기도의 본을 보임과 가르침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년부부터는 충분히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ACTS 방식으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야 합니다. (Adoration-찬양; Confession-자백;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간구)

영아부부터 기도 훈련을 하여 기도가 아이들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 승리, 생명, 축복”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선진들의 모습처럼 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무릎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은 그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때 일어난다.”

-퀸 쉬러·루스앤 겔록의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키운다] 중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요



임경민 집사
(임재민 어린이 어머니)

날마다 믿음과 마음과 몸이 함께 잘 자라나는 재민이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아부 예배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워 ‘**라연 하나님의 작풍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늦장부리다가 혼나고 들어온 내 아이도 찬양가운을 두른 모습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재민이가 유아부에 들어서는 순간 아빠, 엄마를 안중에도 없이 “Bye~” 하고, 모르는 찬양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나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말도 잘 하지 않던, 또 친구의 개념을 잘 모른 채 누나하고만 놀던 재민이가 친구에게 과자를 나눠먹자고 웃으며 부탁 할 때 놀랍기도 하고 재민이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심 어린 저희의 오랜 기도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독립적인 예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을, 또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강지영 전도사님의 말씀은 짧지만 아이들에게 강하고 큰 영향력을 주어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놀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민이가 ‘우리 친구들~’ 하며 전도사님이 되어 예배놀이를 할 때,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대강 추측하며 개어 놓은 빨래 정리하러 일어나다가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주의에 다시 앉을 때도 있고, 재민이가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우는 무한반복으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다윗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골리앗으로 만들며 쓰러지라 합니다. 쓰러질 때 헛바닥을 내밀며 ‘팩!’ 소리를 내지 않으면 처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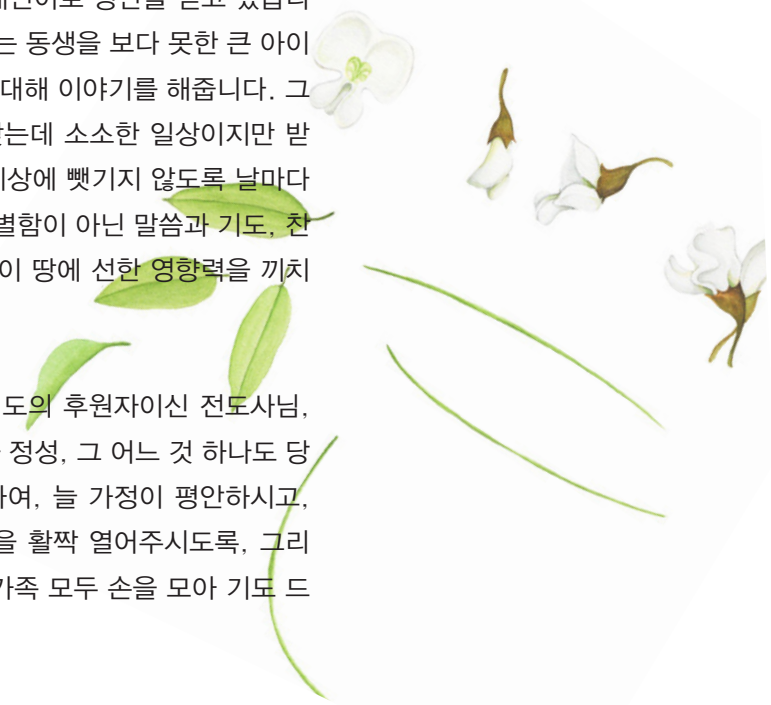
터 다시 재연해야 하는 쓸데없는 디테일도 보입니다. ‘형들이 옷을 찢었어!’라며 말씀 중 일정부분만을 반복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자~알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당당한 대답으로 기운 빠지게 할 때가 많지만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재민이의 삶 속에 녹아있음을 깨달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재민이는 다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말씀 드립니다. 어딘가에 부딪쳐서 다치면 울며 엄마 무릎으로 와서 알린 후 ‘하나님, 여기 여기 아파요. 팡 했어요. 안 아프게해주세요.’하며,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오늘 김밥 안 싸줬어요. 엄마는 책 많이 안 읽어주고 누나는 기차놀이 안 해줬어요.’ 하고는 ‘다들 이제 하나님한테 혼났어!’ 하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뵙니다. 주로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을 부탁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말 모두를 듣고 도와주신다는 재민이의 확고한 믿음만큼은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너풀너풀한 옷을 입고 바디워싱턴을 따라 하거나 찬양하는 누나 옆에서 따라하느라고 늘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되었던 재민이는 찬양자로서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1,2,3절을 구분하지 못해 찬양, 감사, 경배를 들쭉날쭉 섞어 부르면서도 ‘찬양하라’는 꼭 3절까지 불러야하고, 늦은 시간 드리는 가정예배에도 음정, 박자 다 틀리며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찬양하기에 좀 조용히 하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못 들으셔서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사랑스런 내 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프고 답답한 제 마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밝게 자라는 재민이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검은 색 아니면 파란색 한 가지로만 유아부 주보를 그어대는 동생을 보다 못한 큰 아이가 토요일이면 동생 컬러링을 도와주며 그 그림과 성경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 저는 주보에 밀린(^^*~) 기도를 쓰며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소소한 일상이지만 받는 은혜는 그 어느 것 못지않게 큼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제가 추구했던 특별함이 아닌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진 일상들이야말로 재민이를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틀을 마련해주시고자 늘 노력하시는,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이신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정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가정이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으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저희 가족 모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2년의 부르짖음과 응답



유아부 길정애 교사



올 여름은 그다지 덥지 않아 이상하다 했더니 아이들 학교가 시작할 즈음해서 더워지기 시작했다. 6주의 썸머 스쿨이 끝난 후 개학을 하기까지 2주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적잖이 고민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빠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2주 동안 함께 하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주일까지 꼬박 일을 해야 하는 가게를 파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 이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순조롭게 가게가 팔렸고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여태껏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새삼 깨닫게 하셨다.

처음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애원하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곧 때가 되었다는... 얼마나 기쁜 마음 이었는지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다. 남편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매일 고민을 하며 짜증을 내곤 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신반의 하며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에 남편의 잠꼬대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에 조용히 들어보니 찬양을 하는 소리였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양 하는 걸 깨웠더니 놀라며 왜 깨우냐고 하여 찬양을 부르는 얘기를 했더니 어리둥절해 하며 자긴 모른다. 나의 마음은 너무 기뻐다. 비록 잠결이었지만 이 사람이 생전 부르지도 않던 찬양을 부르니 얼마나 기쁘던지, 사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니 무언가 좋은 일이 곧 생길 것 같았다.

그러고 얼마 날이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가게가 팔리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좋아하던 남편의 목소리에 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스르르 눈물이 나왔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새삼 느끼며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남편에게 던지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란 걸 얘기해주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걸!!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으로써는 귀에 들어오는 말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아란이가

“아빠, 엄마의 말이 맞아 아빠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믿어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듣직하던지...그런 상황에는 항상 핑계를 대며 “아빠가 갈 시간이 없어, 아빠가 바쁘잖아” 하던 남편이 “이제 아빠도 교회 나갈게” 라며 딸에게 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늘 영광 보며 천국가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기도와 찬양이 절로 나온다. 애들도 덩달아 찬양을 부르며 기뻐한다.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이 생겼다. 우리 남편의 다음 비즈니스는 주일성수 할 수 있는 가게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n God's Love, Bear Fruit



유치부 황옥지 교사

2014년 6월 30일 ~ 7월 2일까지 Hudson Valley 에서
진행되었던 VBS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인 6월 마지막 날...
사랑스런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VBS가 시작 되었습니다.

도착과 함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탐험 할 탐험가가 되어 멋진 사진도 찍고, face
painting도 하고, 찬양도 부르며 기쁨의 잔치에 참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 설교를 듣고, 천지를 만드신 6일에 대한 craft를 하
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배우고 인형극을 보며 아이들도 언
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찾고, 가
슴에 씨앗을 심으며,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유치부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배우고, 탐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일 유치부의
짧은 예배 속에서 전도사님의 강력하지만 간단하게 끝내야 해서 아쉽게 배웠던 말씀을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배우고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신앙의 시간
은 없을 듯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게 함께 먹고, 텅굴고,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
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조성윤목사님과, 박성권전도사님, 배인구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아빠가 말씀을 이야기 해 주듯 재미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즐거운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이 지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 못내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오늘도 꿈꾸고 기도합니다.



Hello!



유년부 최승주 어린이

Hello! My Name is Darin Choi(최 승주)

I am in 퀸즈장로교회 유년부. I am thankful for my church because I made a lot of friends there and I love Prasing God and Jesus.

I love the game we do at church. I go to a choir school called Saint-Thomas choir school.

It is in Manhattan. Sometimes I go to school on the train with my family. I enjoy living there at the school I am not a chorister yet but right now I am a probationer.

I thank God everyday for the things I have. There is this boy named R. J and he is not a Christian. He said he hates Christians but this week I made him a Christian.

Thank you God for turning him into a Christian. Also thank you for my family, friend and everything else I have.

I also pray that most people in this world will become a Christian instead of believing in other Gods.



Thanking God for my time as 유년부



유년부 이효리 어린이

Hello! My name is Claudia Lee(이효리).

I thank God for everything he has done for me at church and at 유년부.
To glorify and praise God, I like to sing and dance worshiping God at 유년부. This is my third year at 유년부.

I thank God for my teachers and fellow believers.

I also like to thank God for my sister Christiana lee(이유리)whom my mother and I prayed for to be born and I thank God that he answered.

I love to meet new friends and tell them about Jesus because I know by believing in him everybody who trust and have faith in him will go to heaven. Praying to God is like calling to Him and I know He hears me. I love going to church to know more about Him.

I pay that every single person in the world know that Jesus is Christ and our Lord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he forgives those who believe in Him.

By praying I gained my trust and faith in Jesus even more.

May God bless our church, our pastor Chang, senior pastor kim, JDSMs, teachers, and fellow classmates at KAPCQ!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초등부 최지혜 교사

개구쟁이... 장난치는 것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지
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수록 하나의 인격체
로써 아이들 안에 우주와 가치관이 있음을 봅니다. 아이들
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듣
고 삶을 배워왔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초등부찬양대 지휘를 맡게 되면서 저의 각오는 아이들에게
아이들 하나하나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오고 싶은 찬양대,
사랑과 자비, 용서가 가득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그 누
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찬양에 기쁨이 넘치는 찬양
대, 각 받은 달란트들을 발견하는 신나는 찬양대로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찬양대를 한 기
역이 생각만 해도 좋았기에 그 좋았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
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마시지 않으려는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
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 스마트폰,
tablet, 게임기 등을 예배와 연습 중에는 금하게 하는 것,
몰입, 집중하는 것, 한국어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세련된
유행하는 찬양만 하고 싶어 하는 것, 예배 후 찬양대 가운
을 획 던져놓고 나가는 등의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간혹 있
었습니다.

태도에 관해서 강조를 해야 했고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
은 부분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기도가 많이 부족했기에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 중에 깨닫고, 진심으로 아이들
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내 태도를
먼저 고치고, 왜 찬양을 하는지, 왜 교사를 하는지, 준비는
되었는지, 매번 점검하고 주님께 맡겨야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약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담대
함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엄수할 것과 Elec-
tronic devices들을 금지할 것과 자기가 입은 찬양대 가
운에 반드시 책임질 것에 대해 얘기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
분을 초등부 목사님과 김성민 부장집사님, 선생님들께서
협력하여 도와주셨고 칭찬해주셨고, 격려해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찬양대가 하나님과 한걸음씩
더욱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기도하면 듣고 행하시는 하나
님... 매주의 찬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어린이들 마음
에도 그 찬양이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묻힌 아
직 개발되지 않은 보배들을 봅니다. 한번은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을 할때, 스스로 바이올린, 플루트, 첼

로, 탬버린, 북 등의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싶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찬양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누구라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반짝반짝 주님의 빛나는 아이들이 받은 무한한 은사를 제 무능함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악기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참 겸손하고 아름답고 예뻐보입니다. 칭찬해주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여전히 꾸짖음을 받기도 합니다. ^^ 아이들은 참 솔직하고 단순하고 겸손합니다.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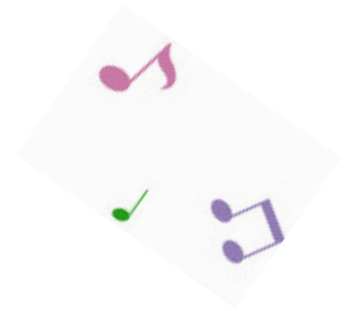
매주마다 새로운 힘주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강한 팔로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시고 주의 사랑이 각각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전공했기에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가르쳐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기술적으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초등부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는 마음임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

주님 안에서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니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WOW! AWANA



차평화 전도사

귀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품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구원 받은 것은 단지 저희의 좋고 뛰어난이 아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 더불어 나아가 아버지께서 지으신 성결한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한 여러 신도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매 맺는 과정에는 단지 목사님,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께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신도님들의 가정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Awana 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며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이는 곧,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Awana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지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장 15절) Awana 프로그램은 말씀이 지시한 것과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귀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록 아이들의 나이가 다소 어릴지 모르지만 성경 낭독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과 동시에 성경의 중요성을 들려주기 위함엔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정성껏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순수한 아이들에게 은혜의 복음과 밝디 밝은 미래 속에 성결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2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저희는 교육을 통해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분들께 미래에 그들에게 다가올 시련과 억압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목적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오직 성경이 진실 된 세상 속 진리임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실 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한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있기에 저희는 Awana 교육 프로그램을 9월 28일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현재까지 약 115명의 2살부터 12살까지 또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려 19명의 교육을 돕기 위한 지원자들이 Awana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QPEM 이라 불리는 저희 교회 영어권 성도님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았고 서로 모여 공부하며 매일 밤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대학생부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써 전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Awana 프로그램은 약 115명의 아이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나이대별로 4 그룹 (Puggles, Cubbies, Sparks, T&T)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4 그룹이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도록 또 다른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기에 각각 30분씩 총 4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 것입니다.

4개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단체모임 (Large group time)입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같은 또래 아이들을 서로 친밀하게 연결해줌으로 부담감을 덜어주기에 성경을 배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 시간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도시간과 간단한 연극이나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을 이끌고 있으며 소규모의 아이들에게 여러 간식거리들도 제공되는데 주로 여러 메시지를 담아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 모임으로 소모임 (Small group meeting) 이라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모임 시간에는 아이들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친구들과 담당 지원자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약 3명에서 5명꼴로 소규모 그룹을 재편성하여 한명의 지원자와 성경공부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책자들을 통하여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아이들을 이 시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간단한 보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명의 교사가 소수의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기에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소모임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각각 개인 티셔츠와 배지, 그리고 그들의 진도에 맞추어 말씀이 담겨 있는 워크북이 지급됩니다.

마지막 교육 모임은 체육활동 (Activities time)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아이들을 건강을 생각하여 마음껏 뛰어놀도록 다양한 게임들과 즐거운 놀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주 다른 게임들이 편성 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지켜주며 같이 게임에 동참하기도 하여 아이들의 팀워크 능력과 선의로운 경쟁 능력을 항상 시켜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 시간에는 주로 아이들이 4개의 팀으로 나뉘지며 우승팀에게는 간단한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아이들로부터 활발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Awana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주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그분을 즐거이 찬양하는 신실된 기독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 아이들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전심으로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진실성을 아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도울 것 입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끄럼 없이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건강한 믿음과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반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맞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진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Awana 프로그램에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며 충분한 지원을 주고 아낌없는 기도를 할 것 입니다.

Awana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2시간동안 주일에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 주에 걸쳐 매 순간 순간마다 아이들에게 소모임의 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모든 가정 안에 중심이 되셔서 교회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저희가 Awana 프로그램을 이끌기에 저희 교회 내의 가정들과 친분이 있으신 가정들만 수용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저희 교회를 넘어 둘러싸고 있는 큰 공동체 안의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wana를 통하여 여러 이웃 가정의 순수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올바른 기초 신앙심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Awana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곧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세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둠과 죄로 가득 차있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새로운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갑옷을 두른 군사와 같이 성





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과의 관계와 신앙심을 통하여 매사에 싸워 나갈 수 있듯이, 아이들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주님께 저희가 좋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아이들의 믿음을 통한 웃음과 행복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Awana 교육 프로그램 내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남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새싹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담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교역자간의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한 유대 관계가 생기길 기도해주시시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가정을 소망하고 이끄는 모든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안의 중심이 되시고 더불어 나아가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한어중고등부 구자현

제 이름은 구자현입니다.

3년 반 전 즈음에 우연치 않게 만난 장로님의 소개로 퀸즈장로교회를 알게 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한어중고등부(예꿈) 부서가 생겨났고 원래 5~6명이었던 유학생 인원이 초기에는 30~40명, 지금은 다시 줄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우리 부서가 가장 작은 부서가 됐지만, 퇴보라고는 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그 많은 숫자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것을 단순한 타인과의 교제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멤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말씀 듣는 기회를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생명줄로 여긴다는 것은 이미 큰 변화이고 발전입니다.

이제야 하나의 유기체로써 뭉쳐 사역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현재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마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사람이 너무 싫어 하나님 말씀이나 언자하여 모든 교제를 차단하고 생활하던 저는 남에게 참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당연히 누군가 나에게 참견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게 진정 도움의 손길이든, 친구들의 관심표현이든, 당시 대인관계에서 부정한 경험들에 질려있던 저는 타인에 대한 정죄적인 태도와 증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의무감은 있었는지 기도나 수련회는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얻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생에서의 삶이 기껏해야 얼마나 길다고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만 살아가려는지, 분명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상숭배를 하며 음행, 살인,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박해와 무시당하면서까지 날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믿는다고는 했는데 왜 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지, 주변에 있던 인간들이 참 악하다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나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해왔으나. 예수님은 날 위해 억울하게 희생하셨음을 알고 나서 왜 난 은혜를 입고도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나 내 자신한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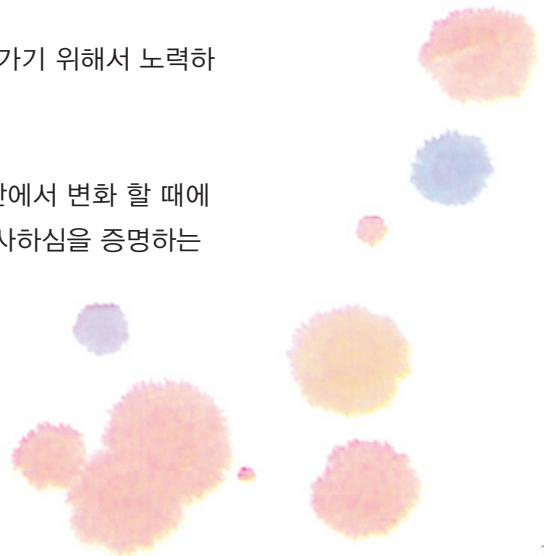
이러라고 준 기회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으면 왜 남한테 먼저 베풀 생각은 안했는가?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남을 정죄하는지 제 자신한테 책임을 묻게 됐고. 내가 그토록 내 자신한테나 남들한테나 따지던 그 정의는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 단순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을 너무 무시했고, 남을 무시하고 아끼지 않을수록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믿음생활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입은 그 은혜, 복음, 책임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도록 전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목표와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며 절대 누리지 못할 축복이며 그 누구도 흉내 못 낼 자비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똑같이 바라 볼 수 있길 기도하며, 다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로 믿음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부흥의 씨앗으로 자라서 전 세계로 뿌리를 뻗치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한어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 이름처럼 저희 멤버 모두 '예꿈', 예수님의 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부족하고 서로 채워나갈 점들도 많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변화 할 때에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서 삶 그 자체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꿈



한어중고등부 지미령

예수님을 믿게 된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키워갔고 정말 살아가야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부터 제 삶은 그 전의 삶과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제와 불안정한 금전적인 문제들... 확 바뀌어 버린 내 삶과 환경에 많이 위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저에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기에 이 복음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교 점심시간도 성경을 펼쳐놓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나의 예수님을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들이닥쳐도 아랑곳 않던 3년 동안 첫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저에게도 방향의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마음먹었을 때 퀸즈장로교회 예꿈 여름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자는 한 친구의 부탁으로 처음 이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을 멈추고 2년째 퀸즈장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저의 믿음 생활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어중고등부는 2012년 4월 1일 “예수님의 꿈”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부서이고 저와 같은 한어권 친구들을 위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서입니다.

처음 이 부서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은 플러싱의 한어권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꿈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나중에는 20명 남짓 남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많던 예전 교회를 다시 나갈 수 있었지만 예꿈을 나오게 된 이유는 영어권이 아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친구들과 같이 힘을 내어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은 불안정한 이 부서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꿈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과는 또 다르게 저를 단련시키시고 성장 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모태신앙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부서 친구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게 하였고, 전에는 오로지 나의 신앙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생활뿐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줘야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일으켜 세우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부흥의 뒤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 기도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 한어중고등부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전도에 더 힘쓰며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이름처럼 예수님의 꿈이 되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라 부흥의 세대여!



청년 1부 신예지

2014년 1월,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여 1월 어느 날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을 되새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후 오인수 목사님께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에 대한 설교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주셨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이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영 가운데 수십 명이 울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한국, 미국 뿐 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혹은 예수님을 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자 하실 때 찾으시는 이들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갈망하며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청년들이 연합하며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며, 제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퀸즈장로교회 청년 공동체에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 함께 모여 교회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고, 이런 청년들을 절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 청년 공동체를 이 시대의 청년들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청년 공동체는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마 23:34)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청년 1부 회장 박재상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어느 때의 수련회와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출발해 2박 3일간 다녀왔다는 점과 외부의 목사님이 아니라 청년부를 맡고 계신 오인수 목사님께서 감사이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부 캠프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점, 달랐던 것이 이렇게 겹으로 드러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달랐던 점을 꼽으라면 어떤 수련회보다도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수련회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리더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저를 비롯한 리더들 몇은 수차례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렸으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수련회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고, 더 기대했으며,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갔을 때, 첫날 140명이 넘는 인원이 수련회를 갖고 마지막 날까지도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간증과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부 캠프장으로 섬기게 되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2박 3일간 앉아 있거나 누워있던 시간을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련회 전부터 잠도 못자고 계속 신경을 쓰느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불평하는 마음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수련회 내내 입에선 한마디의 불평 불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일하는 동안 계속 투덜거렸을 텐데... 제 자신이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기에 감당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피곤하고 피로했던 수련회였던 만큼, 기도할 때 졸수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만큼은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밤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는데 이상하게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십 분을 노력해봤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아 결국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청년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청년들을 한 명씩 찾아가 손을 잡고, 또 안아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했던 한 형제는 친구들을 따라온 아직 믿음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중보해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형제를 만나달라고 기도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어 오전에 배를 드리는데, 두 시간 안에 끝나야 할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과 기도로 네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한 명 한명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형제도 만나주셨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지금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청년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 형제뿐만 아니라 열정이 식어가는 청년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던 청년에게도, 확신이 없던 청년에게도 찾아가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청년도 있겠지만 수차례 넘어진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성장한 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무릎 꿇고, 더 예배의 자리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때도 그 이전과 이후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사랑이 빛나는 밤에”



청년 2부 이동훈

‘사랑이 빛나는 밤에’는 금요일 밤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예배를 줄여나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뉴욕 땅을, 그리고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빛나는 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빛나는 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같이 눈물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중보하며, 우리 민족과 이 땅, 그리고 조국을 위해,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너무나도 귀한 우리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무릎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온 맘으로, 온 몸으로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눈물로서 그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 드리는 연극이 있고, 예배 후에 있는 다과모임을 통해 서로 알아 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청년들을 위해 집으로 가는 교통 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인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매 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 심각하고 무거

운 주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 더 주님 나라를 위해 죽어야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에 저희들은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선포하신 말씀시리즈는 가상철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일곱 가지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곳 뉴욕에서 많은 청년들은 금요일 밤 많은 곳을 헤맬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곳에는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이 예배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빛나는 밤에’는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이 빛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비난의
초밤에



사순절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청년 2부 회장 최효연

안녕하세요, 다들 사순절을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힘들고 긴 하루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달라도 정말 다르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속에서 간증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다
시 성령충만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궁
금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
여 넘치는 은혜를 내 주변에, 내 삶속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누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 담임이신 김성국목사님과 청년부 담당이신 오인수목사님께서서는 목이 터져라 복
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도들의, 의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 설교하시며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권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
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큐티도 쉽지 않아서 자극받았다고, 성경지식이 너무 없어서 더 알고 싶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궁금한 것은 관심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분명 이 청년과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이구요. 말씀과 기도의 불길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여러분!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신앙은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묻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던지, 힘들다고, 귀찮다고, 마음이 변했다고 기도를 땅바닥에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으니깐 두려워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지식, 기준을 모두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갈길이 멀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음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기도의 제목은 달라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응답 받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당신의 친구도, 가족도, 애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가려는 그길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믿음의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계속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John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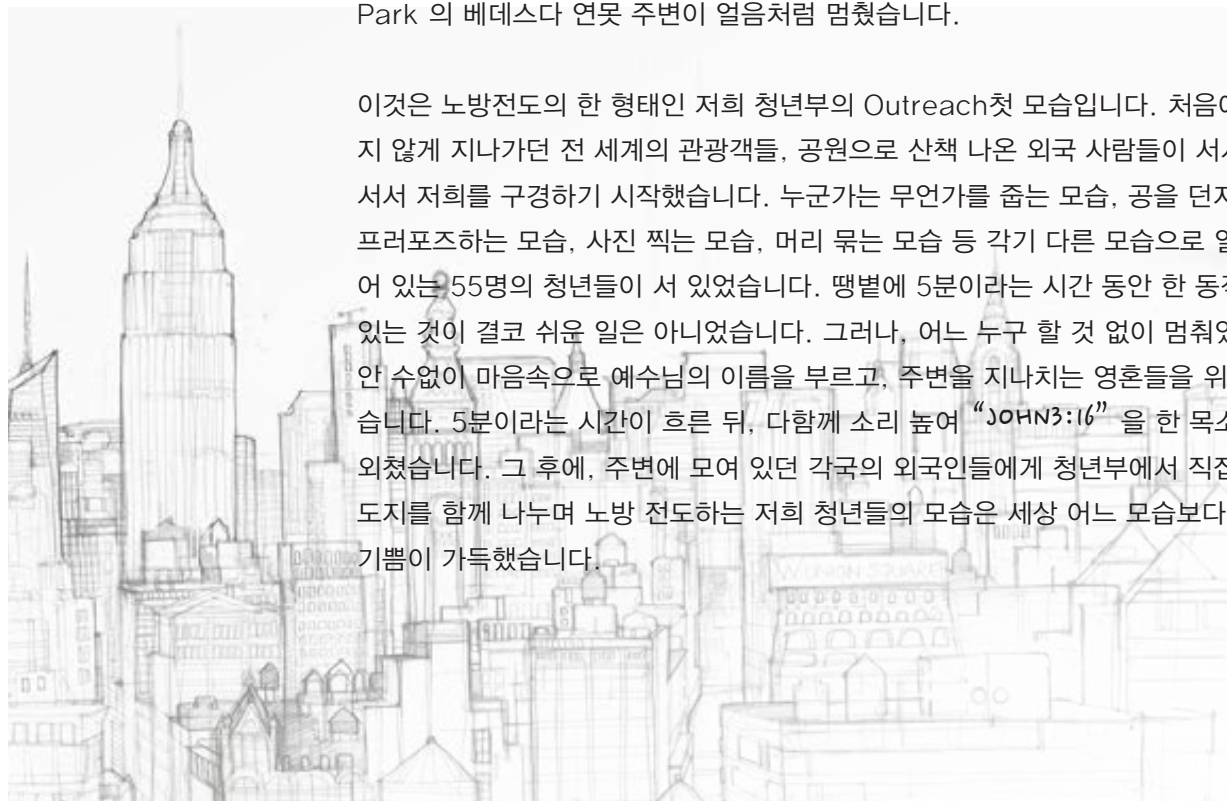
청년 3부 회장 김근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 장 16 절.(JOHN3:16)

“John!!!”

2014년 6월 7일 토요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Central Park 한 가운데서 John 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청껏 크게 외친 John 이라는 이름과 함께 Central Park 의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얼음처럼 멈췄습니다.

이것은 노방전도의 한 형태인 저희 청년부의 Outreach 첫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전 세계의 관광객들, 공원으로 산책 나온 외국 사람들이 서서히 멈춰 서서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줍는 모습, 공을 던지려던 모습, 프리포즈하는 모습, 사진 찍는 모습, 머리 묶는 모습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얼음처럼 굳어 있는 55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땀별에 5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동작으로 멈춰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변을 지나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함께 소리 높여 “JOHN3:16” 을 한 목소리로 3번 외쳤습니다. 그 후에, 주변에 모여 있던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청년부에서 직접 제작한 전도지를 함께 나누며 노방 전도하는 저희 청년들의 모습은 세상 어느 모습보다 열정적이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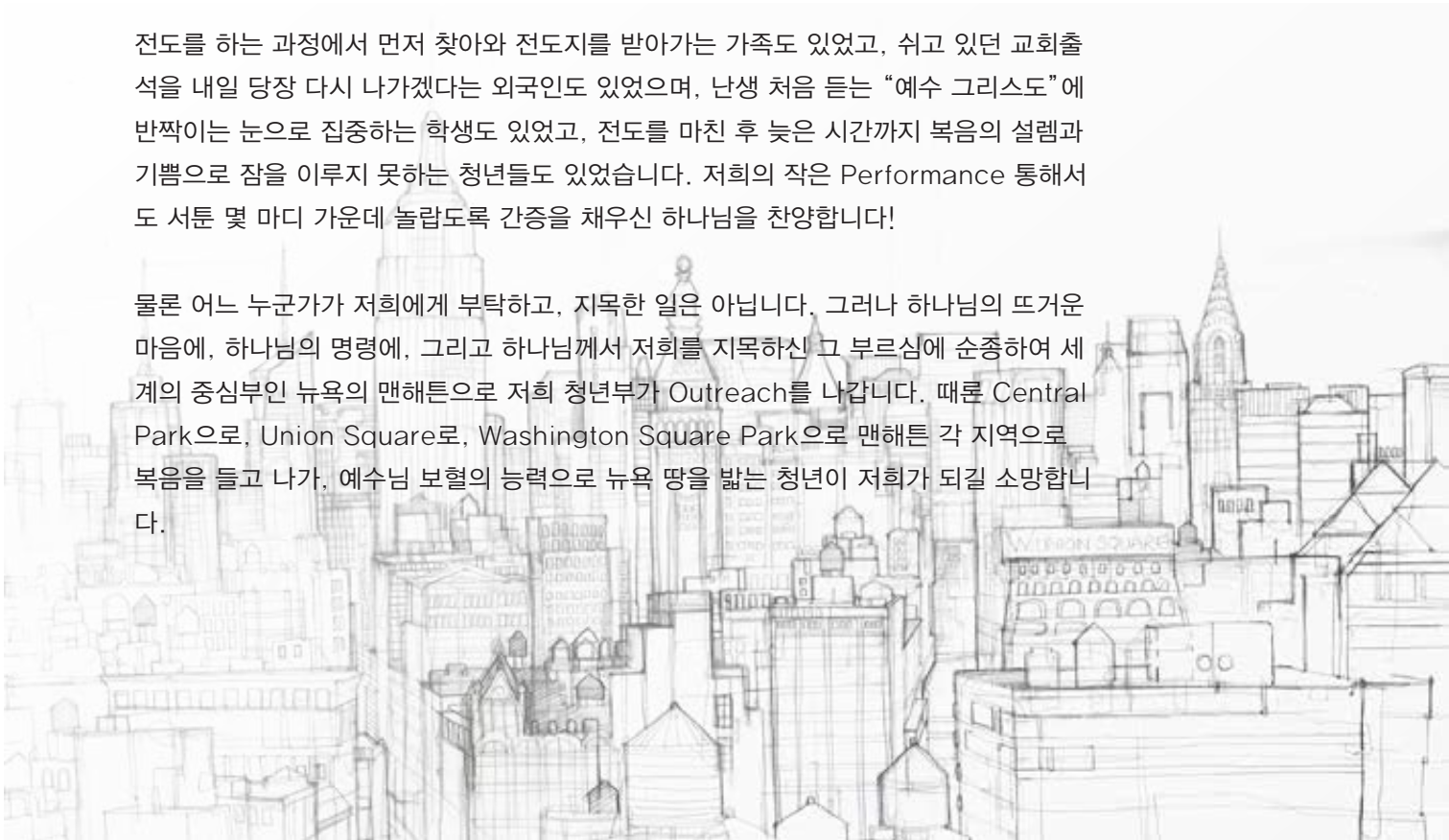


이렇게 세계적인 명소인 Central Park에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생각보다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부 전체가 매일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추고 다 같이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전도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Freezing” Performance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후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서로 동작도 맞춰보고 연습도 하며 전도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Central Park 그림이 그려진 전도지가 청년부내에서 제작되었고, 매 모임 때 마다 Outreach전도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막상 Central Park으로 전도 Outreach를 나가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를 포함해 임원들, 리더들에게도 영적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맨해튼 전도를 시도한 많은 교회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과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맨해튼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담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마다 저희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찾아와 전도지를 받아가는 가족도 있었고, 쉬고 있던 교회출석을 내일 당장 다시 나가겠다는 외국인도 있었으며, 난생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하는 학생도 있었고, 전도를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복음의 설렘과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Performance 통해서도 서툰 몇 마디 가운데 놀랍도록 간증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어느 누군가가 저희에게 부탁하고, 지목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목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중심부인 뉴욕의 맨해튼으로 저희 청년부가 Outreach를 나갑니다. 때론 Central Park으로, Union Square로, Washington Square Park으로 맨해튼 각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뉴욕 땅을 밟는 청년이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Queens Presbyterian English Ministry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뒤를 돌아보며 앞을 바라보길



김도현 목사

Pastor Peter Kim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9

퀸즈장로교회는 영원한 나의 모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내가 5살 때부터 다니며 자라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81년이었던 그 때, 나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 있었고, 언어도 알지 못했고, 그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목자, 장영춘 목사님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늘어가는 한국 이민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난 사십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의 단순한 숫자적 성장이 아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4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어예배 (QPEM) 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훌륭한 리더들과 함께한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엄태용 목사님으로 부터 시작하여서 장우진 목사님, 정승환 목사님, 김 풀 목사님, 조성윤 목사님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힘든 시간 가운데, 영어예배를 영적 성장의 시간들과 부흥의 시간들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Remember the former things of old;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saiah 46:9

KAPCQ is and will always be my home church. For this is the church I've grown up in since I was 5 years old. Back then, in 1981, my family had just immigrated to the U.S. We were in a foreign land, not knowing the language, but trusting that there was a future here for us. God's plan was to raise up a shepherd, Rev. Joseph Chang, to plant a church in Flushing that would minister to this growing Korean immigrant population. And for the past 40 years, God has done just that, growing our congregation not only in number but in spiritual maturity.

This year not only celebrates our church's 40 year anniversary but it also commemorates QPEM's 20 year anniversary as an English Ministry. I look back at our past and there have been such wonderful moments with such gifted leaders. Starting with Rev. Stephen Um back in 1994 (who by the way, was my Senior High Pastor!) to Pastor Francis Chang, to Pastor Sam Chung, then Pastor Paul Lee, then Pastor Steven Jo. All of them, such godly men. And God used them to lead our EM, through times of spiritual growth and revival and through challenging and tough stretches as well.

하나님께서서는 변화의 시간 가운데 영어예배로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2010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저는 불과 6년 동안에 다섯 번째로 세워진 영어예배 목사였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기관들, 특히 교회는 든든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들이 자주 바뀌면 사역이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라기가 힘듭니다. 영어예배의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낙심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슬퍼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놓아두신 것 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이사야 40:11)

우리가 성도들로서 필요했던 것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늘 변함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God called me to QPEM at a time when the ministry was going through much transition. When I began back in July 2010, I was the 5th EM Pastor here within a 6 year period. You can imagine what that did to our congregation. Any organization, especially a church, needs stability in the leadership and when leaders change so often, it's so hard for the ministry to grow, both in number and spiritually. Over time, with each pastoral change, our members grew disheartened and many left the church frustrated, hurt, saddened and just burnt out. This was a trying and challenging time for QPEM. Some wondered, “Did God forget about us?” “What happened to His love for us and our church?” “Did God leave us to wander as sheep without a shepherd?” God's Word reassured us of His love.

“He will ten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will gather the lambs in his arms; He will carry them in his bosom, and gently lead those that are with young”. --- Isaiah 40:11

What we needed to do as a congregation, what we needed to do as a church, was go back to Him in prayer. God did not forget about us. His love never changed and never will. We needed to put our trust and dependence back to Him,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다시 전능하신 그 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적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기도와 비전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고 그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맘을 다하여 그를 부르짖고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영어예배는 수요일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사람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매주 30-40명이 넘게 모이는 모임으로 자라났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에 거의 반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수요일 밤에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2세 영어권들은 주중 기도모임에 절대로 헌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1세 한국어권들이 하는 것이고 2세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고, 걱정했고,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그의 뜻을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에게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더 이상 사사로운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용서와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

to the only One who never fails or disappoints.

We needed to remember our God who has and forever will be faithful. As God reminds us, there is no one like Him. We needed to “remember the former things of old” and reflect on His faithfulness through all the years.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hear you.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Jeremiah 29:11-13

Prayer and Vision always go hand in hand. Scripture teaches us of the link between prayer and discerning our future. The passage in Jeremiah reminds us of that. God promises us a future and a hope and in order for us to know His plans and His will, we would need to call upon Him, to seek Him with all our heart. So that's what we committed to do. On Wednesday, October 19, 2011, QPEM began our weekly Wednesday Night Prayers. It started with a handful of members and since has grown to over 30-40 members each week. On Praise & Prayer nights, over half our congregation comes out to worship and pray together on a Wednesday night! I remember hearing at the start that this would never last. People said that 2nd Gen EMers could not commit to a mid-week prayer night. They said that prayer is something that the KM does and not us. I remember hearing the doubts, the concerns and the skepticism.

But something special happens when God's people get together to pray. God listens and He speaks and He answers our prayers according to His will. He draws us closer to Him, puts our focus away from us, and onto His Honor, His kingdom, His provision, His forgiveness



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 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10)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예배를 섬겼던 지난 4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의 계획과 뜻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그가 바로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이야기가 있는 최고의 영화를 진행하는 감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쓰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사를 통하여 화목케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문 기사를 보듯이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셔서

and His power. He gives us the strength to overcome temptations and live victoriously in Christ. And He gives wisdom, guidance and direction for our future. As the saying goes,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Through prayer, we have seen God work in ways we could never have envisioned.

“I make known the end from the beginning, from ancient times, what is still to come.”
Isaiah 46:10

That’s what God has done these past four years since I’ve been at QPEM. He has led us by His Spirit and made known to us His plans and His will through prayer. You see, God know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because He’s the one who determines all things. He’s the one who declar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You can say, that He’s the director of the greatest drama, the greatest story there is. He knows everything because it’s His story. And He’s the one who’s written it. It’s the story of how God reconciles us back to Himself, through the unfolding plan of redemption in His Son Jesus Christ. And that’s the story that He’s having us be a part of. Not just as spectators looking on from the sidelines, but

우리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시고 확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족의 시간 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신실한 집사와 리더들을 영어예배에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리더들을 이 사역에 보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의 삶은 많은 시간 영적인 전쟁에 홀로 남은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영어예배에는 그 영적이 전쟁터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계획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되고, 예수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로서 자라나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3년 5월 5일부터 영어예배가 집사님들과 리더들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불씨는 거기서부터 시작 되어서 제자훈련의 리더들이 애틀랜타에 있는 페리미터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고, 예수님을 날마다 좇으며, 함께하며, 하나님과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한 삶을 유지하며, 말씀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어 사랑을 전하며 삽니다. 자신의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이며,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놀라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며 모든 삶, 관계, 물질에 있어서 규모 있는 자이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예배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열심 있는 전도자이며, 가족에게 신실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as active participants on the playing field. What a joy and honor that He's called us to be His children, future heirs to His kingdom!

Through prayer, God has raised up faithful Deacons and Leaders at QPEM. Leaders who are committed and self-less in sacrificing their individual time, energy, finances and even their family time to serve God and His church. I am so personally grateful and indebted to God for the leaders that He's entrusted to our ministry. As a Pastor, often at times, we feel like we're fighting an uphill battle alone, but at QPEM, we have a core group of leaders who are on the battlefield together, dedicated to "counting the cost" and "carrying our cross" daily for His Kingdom work.

We realized that as leaders for God's kingdom, we needed to be equipped in God's Word, and grow as matur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at's when God launched His discipleship movement at QPEM on May 5, 2013 beginning with our group of Deacons and leaders. The spark was ignited and from there, God raised up discipleship leaders who would take part in leadership clinics at Perimeter Church in Atlanta, GA. Through these clinics and training sessions, we learned what a disciple of Christ looks like.

A disciple is one who has found his/her identity in Christ alone, and is following Him daily, abiding in Him, loving God and others and bearing genuine fruit. It's one who is living consistently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under the direction of God's Word, and the compelling love of Christ. It's one who is using his/her spiritual gifts for the sake of others. It's one who is effectively sharing their faith while demonstrating a radical love that amazes those it touches. It's one who is a faithful member of God's church, a manager of life, relationships, and resources, a willing minister to others and an available messenger to the lost. It's one who demonstrates a life

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당연한 목록들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이와 같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무장된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소수의 무리(그의 열두 제자)에게 헌신하시며, 제자훈련 사역이 무엇인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 나라를 바라보며 품으셨던 비전대로 “크게” 생각할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같이 “작게” 시작할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우리 삶을 각 사람에게게 헌신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영어예배 제자훈련은 말씀 훈련을 위한 3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3년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인 훈련 가운데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세우게 되며, 선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마치기를 매주 반복 합니다.

characterized as Gospel-driven, worship focused, morally pure, evangelistically bold, family faithful and socially responsible. I know that this is quite a list of characteristics for anyone to follow. But the truth is, that Jesus Christ himself commanded us all to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18-20.

As such, I know that Jesus gives to us everything we need to commit to being His disciples and living our lives as His mature and equipped followers. Jesus himself modeled for us a discipleship ministry as He invested His life in the lives of a few (his 12 disciples). As such, we will “Think Big” as Jesus did in His kingdom vision, but “Start Small”, as Jesus did as well. Starting small will allow us to “Go Deep” and really invest in the lives of one another.

Our QPEM discipleship is a 3-year commitment as our members meet weekly to study God’s truth in His Word, be equipped by His Word, be accountable to one another in spiritual disciplines, practice out our faith in mission, and



2014 QPEM Disciples

제자훈련은 삼년의 교육과정이지만, 제자의 삶은 평생의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영어예배의 사역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그리스도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영어예배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삼는데에 있어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예배의 재적과 출석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평균 150명에서 170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그 중 43명이나

close out in prayer for one another.

Although the curriculum is 3 years, discipleship is a life-long journey. And it will be a foundation to everything we do at QPEM. Our Lord Jesus Christ was a disciple-maker. His love compels us to disciple others as He did and to teach others to do the same. I pray that our church and QPEM will leave a legacy as a church who made disciples for His kingdom sake.

Looking back through the years, I see God's abounding love and faithfulness to us. God has grown QPEM in membership. Our Sunday worship now averages between 150-170 members including 43 children in our ministry!



되는 숫자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불러 주셔서 영어예배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숫자적 성장 보다 더 중요한

What a blessing to see the future of our church through these beautiful babies, toddlers and students. God has also brought many former members back home to our family. And He has brought new families and individuals from all across the world to become part of our spiritual family at QPEM. God has not only blessed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은, 때로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 안에 총만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볼 때에 그 넓고 크신 사랑은 보는 이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께서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앞을 볼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더 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너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놀랐습니다. 이 새 건물은 본질상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건물은 미래의 영어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의문과 염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빌딩이 필요한가요?”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어예배는 이미 아름다운 예배 장소가 있지 않나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 모두 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새로운 건물에 대한 비전을 나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이 새 건물은 플러싱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새 교회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us in numerical growth, He has blessed us with spiritual growth. It's been humbling to see God work in the lives of our members, sometimes painfully so, but always in love. Looking back, I am truly thankful for what He's done.

Looking forward, I believe that He has greater things in store for us and our church. Honestly, I was surprised and astonished to hear the news from our Senior Pastor, Rev.Seoung Kook Kim, that our church would be constructing a new building right across the street. This new building in essence, would be a “new church”. This would be the future home for QPEM. I know this project has raised some questions and concerns. “Why do we need a new building?” “Isn't a parking lot more important?” “Doesn't QPEM already have a beautiful sanctuary to worship in?” “Why is there such urgency in building this?” These are all valid questions. But Rev.Kim shared the vision that this new building will be a new church for the Flushing community. This church will be the one to reach out and open the doors to our neighbors.



40년의 시간동안, 저희 교회는 한국 이민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주위의 인구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플러싱은 더 이상 한국 이민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플러싱 11355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플러싱은 그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이 플러싱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도시에서 잊혀진 자들과 미약한 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추수할 곳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사명이 이 선교의 자리, 뉴욕 플러싱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교회 설립 정관과 교회 부속정관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을 살펴보며 마음이 찢렸습니다. 40년 전, 우리 교회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를 보며 알 수 있는 가장 특별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

For 40 years, our church has primarily been a Korean American “immigrant” church. Now the demographics of our surrounding community has changed. Flushing is no longer a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fact, Flushing and our zip code 11355 is one of the most diverse if not the most diverse city in all of America. Flushing is not only culturally diverse but it is among the most religiously diverse communities in America as well. I believe God has a plan for our church, right here in Flushing. I believe God gave Rev.Kim this vision for us to be a missional church to this city, ministering to the “least and the lost”.

The harvest is so plentiful, yet the laborers are so few. I believe God is calling us to be the laborers in the mission field of Flushing, NY.

Our church just recently approved the amendment to our church By-laws. In reviewing the By-law, I was convicted by our church’s founding statement. 40 years ago, our church was founded on the statement that “we strive to be a church that emulates the great works of the Church in Acts”. When we look at the Acts church, especially at the church in Antioch, one of the remarkable things we see is a church that reflects the diversity of God’s creation. We see a church that reflects

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인구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며 반영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교회의 중직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는 거대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로 하여금 한 교회가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연합함과 믿음이 차이와 갈등을 덮고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은 문화중심, 민족 중심, 지위 중심인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절대로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 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 11:26)

이것이 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복음이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는지 보았으면, 분열된 곳을 다리를 놓고, 갈등의 담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변화 받은 삶, 목적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the demographics of its surrounding community. We see a leadership that reflects the diversity of its congregation. Antioch was a multi-cultural and cosmopolitan city with large, vital communities of Jews, Greeks, Romans, Asians and Africans. And the church reflected that diversity in its makeup and leadership. What brought all of these cultures and ethnicities together was

not their similar backgrounds or interests. What brought them together was simply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ir common bond and faith in Jesus took precedent over every other affiliation or association that they had in their lives. Their faith in Christ brought all their differences together. And the world took notice. They saw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entirely new in the Acts church.

They saw people coming to faith

across cultural, racial and class boundaries.

“And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Acts 11:26

That's why it was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The world saw how the Gospel transcends culture and race, how it bridges divide, how it breaks down barriers, and how it brings people of all races together. They saw in the Church something that they had been longing for in their lives. They saw in the people, transformed lives, lives with purpose, meaning and hope. And so the multitudes turned to the Lord, believed and came to faith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s how the church exploded in Acts and in the city of Antioch.

저는 플러싱이 오늘날의 안디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다양함과 서로 간의 다름, 차이가 있는 이 도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온전히 비추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7장 9-10절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I believe Flushing is the Antioch of today. I believe there's a reason why we're building a new church in Flushing. I believe God wants to show this city w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ll do. I pray the Gospel will bring our differences together and unite this most diverse city in all of America together in Christ. I pray that our city will see what God is doing here and turn to Christ in faith. I pray that our church will be a reflection of this dynamic city, of all the beautiful cultures and ethnicities that God has created in His very own image. After all, this is what heaven will look like. As it says in Revelation 7:9-10.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9-10



우리의 교회가 어느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그 그림자조차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을 압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걱정과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줄도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우리는 이 플러싱에 있는 나와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한 질문입니다.

Can you envision our church one day, being a great multitude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worshipping the Lamb and praising our Almighty God! If heaven will be that way in the future, I don't see why we can't get a glimpse of that here on earth. I know we have a long way to go to get there. I know that even thinking of this possible scenario brings some fear and discomfort to many of us. We may be asking, "Do I even want this for our church?" "Do I want us to be missional?" "Do we want to open our doors to our Flushing community, even if that means welcoming in people of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And if these people start to come, will we be ready to embrace them and accept them into our family?" These are very crucial and significant questions to ponder.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설립정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을 향하여 새로운 우리 교회의 목적인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들 위에 복음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와 같은 인종, 나와 같은 국적, 나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수준, 이념, 혹은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진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한국인이나 아시안 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한 공통점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나 국적, 문화를 초월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닦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말씀으로 변화 받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달아놓았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어나는 변화들을 좋아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들 이 의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들에서 함께 하는 모습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의 주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음이 인도하는 교회로 부르셨으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을 명령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o answer these questions, I reflect back on our church's founding statement and look forward to our church's new purpose statement, "to be a church that transforms the self and the world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e way that we'll be such a church is by putting the Gospel first above anything else. A church where the foremost reason that people come is not their similarities in race,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ideology or culture, but rather the common bond they share in Jesus Christ. Now this doesn't mean that we give up our "Korean" or "Asian" identities. Our heritage and cultural identity doesn't change just because you're part of a church. God is not asking us to give that up. But when we're part of God's church, what we have in common in Christ now transcends all that, even superseding our cultural identity and anything else that we may have in common with fellow members. I believe that is the church that God desires for us to be and to emulate. A church that displays the great and mighty works of God through the transformed lives by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be such a church, we'll need to open up to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It's going to take time to get out of our comfort zones. We might not like all the changes that are needed. We may have to do certain things differently as a church. We'll surely need to sacrifice and put our own agendas aside. We might not feel comfortable seeing people and children of different races populating our church. We may even feel threatened and scared of one day becoming the minority in our church. But one thing I'm sure of is that God has called us to be a Gospel-driven church,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Whether that means that we'll be a multi-ethnic, multi-cultural congregation in the future, only God knows. But we do know that our God is sovereign and His plan is perfect. For He says...
 "What I have said, that will I bring about; what I have planned, that will I do"--- Isaiah 46: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계획들을 지금까지의 40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일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에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그의 계획을,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이끄시는 만큼만 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한국어예배와 영어예배가 함께 나아가도록 계획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은 한국어예배와 영어예배가 얼마나 한 몸으로 잘 연합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케냐, 카작스탄과 중국 단기 선교 또한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이루는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모두 이 두 사역이 얼마나 하나로 잘 연합되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연합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God has a plan for our church. He's had that plan before the creation of time. And rest assured, He will carry out His plan continually for the next 40 years and beyond. How comforting it is to know that our God is in control of our future. It's not our plans, but God's. What we need to do then is trust in His plan and trust in His trustworthiness. Our church will only go as far as God carries us. We'll only go as far as He leads us. So we'll need to pray more than ever for His Spirit to lead us.

How beautiful it is then, that God has planned for both our Korean congregation and English congregation to take this journey together. The Joint Christmas Day Service was a taste of how God is uniting our KM and EM together in worship. The overseas mission trips to Cambodia, Kenya, Kazakhstan and China all showed how the Gospel bridges culture and generations, not only to those whom we ministered to, but also within the Korean and English members who joined together to serve in missions. And our Educational department connects not only the children in both congregations but also the teachers and pastors who serve to shepherd our children.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ring our congregations closer together in the years to come.



우리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영춘 원로 목사님의 비전과 리더십,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정과 확신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춘 목사님의 사역가운데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 사역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에, 그리고 이 모교회를 다시 섬길 수 있음에 빛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지게 하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m truly grateful for the leaders that God has raised up at KAPCQ. I thank Rev.Chang for his vision, leadership, determination and passion to carry out God's plan for our church. I feel blessed to have been baptized, married and ordained by Rev.Chang here at our church. I will forever be indebted to him for his care and for calling me to serve back at my home church. I thank God for using him to plant our church here in Flushing 40 years ago.





또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국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섬김의 지도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의 열정과 사명은 언제나 저도 그렇게 살도록,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도전하게 합니다. 그의 겸손,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펴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어예배부 성도들과 함께 그 넘치는 사랑과 관심, 도움에 김성국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신 장로님들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고 신실하며, 언제나 교회를 섬기고 살피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장로님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언제나 영어예배를 도와주시고, 당회에서의 목소리가 되어 주신 정성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모든 장로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I am also so grateful for our Senior Pastor, Rev.Seoung Kook Kim. God has sent to us a humble servant leader. Rev.Kim's passion and conviction challenges me to strive for these qualities as a preacher of the Word. His humility, selflessness and sacrifice show us what it means to partak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I thank God for a Senior Pastor who loves us, cares for us and shepherds us. I, along with all QPEM members,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and appreciation for his overwhelming support to our congregation.

I thank God for the Elders that He's raised up to lead our church. God has blessed us with godly men who truly sacrifice their lives to oversee the church. QPEM is especially thankful for our Elder Seong Ho Jeong who has always supported us and been our ever present voice to the Session. We thank all the Elders for their care for QPEM and our greater church.

또한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 하는 제 아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의 도움과, 희생, 이해 없이 이 사역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God has also blessed me so deeply with a loving family and a wife who is always by my side. Ministr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her support, sacrifice and understanding.



마지막으로 저는 제 할머니이신 노임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메신저 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의류공장에서 힘들게 고생을 하시며 일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한 번도 게을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저와 제 동생을 깨워서 함께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할머니께서는 말씀의 중요성과 매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Lastly, I want to thank God for my late grandmother, Noh Im Sun Kwonsanim. She was God's messenger to me and to my family. I remember how she would get up so early every morning to begin her day with prayer and the Word. Although she worked long strenuous hours at a garment factory, she never neglected her time with God. She would wake my brother and I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to join her in these morning devotionals. Through these times of personal worship, my grandmother taught me the importance of God's word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할머니를 통하여 예수님 안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예배의 사역자로 있는 것은 할머니의 신실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임을 믿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사용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 이 플러싱 지역에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뿐만 아니라, 퀸즈와, 그 이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볼 때에, 저는 퀸즈장로교회라는 신령한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과 신실한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한명 한명을 산 돌들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의 교회를 든든한 반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자들을 세움으로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and communing with Him daily through prayer. God used her to lay the foundation of my faith in Jesus Christ. I have no doubt that I am where I am today, serving as the QPEM Pastor, because of her faithful and persistent prayers. My grandmother served faithfully at our church,

especially in bringing many lost people to know the Lord.

I pray that God will use me to do the same, being entrusted with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o be a messenger of His good news to this city of Flushing, to our borough of Queens and beyond, to the ends of the earth.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1 Peter 2:5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I see God's abounding love and faithfulness in building up a spiritual house at KAPCQ. Christ has used every one of us, like living stones, to build His church on the solid rock. May He continue to build His church, and empower us to bring the least and the lost back to Him in worship, that we would go and make disciples for Jesus Christ and ultimately glorify Him in all we do.

Soli Deo gloria!

QPEM Testimony 간증



최시몽 집사
By Deacon Symong

우리 교회가 40주년과 QPEM의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느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변함없는 것은 오직 변화 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영어예배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 만약에 그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변

As the church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and QPEM's 20th, I was very bless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my testimony of how faithful God has been to his chur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testimony once again by including it into this article. Below is a copy of the transcript of that testimony.

*A Greek philosopher once said,
“The only constant in life is change”*

My testimony to you tonight is not just about what God has done for QPEM in the past 20 years but about change. We all experience changes in our lives, without change we wouldn't be able to call ourselves born again to Christ. Many of us would agree with that quote. Change is all around us.

화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그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중심 속에서 그 변화까지도 주관하시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17)

40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날 이 플러싱, 퀸즈 지역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장영춘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아와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 설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는 영어예배의 20주년을 또한 축하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저에게 영어예배를 통하여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어떤 계획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예배와 퀸즈장로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음을 진실로 믿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어예배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는데, 사실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언제나 이방인같은 느낌이 들었고, 교회의 언어와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는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하였지만, 제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

However, we have a God that stands outside the realm of change. Change reminds us that God is truly at the center, for the center never changes. God uses change to reveal his plan for us: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change.”

James 1:17 (ESV)

James is reminding us that during our trials, the difficulties in life are intended to strengthen and perfect us and to make us more like God.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s truly good, that has any other origin than from above. As we celebrate the church's 40th anniversary, we also celebrate QPEM's 20th anniversary.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and that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 Job 42:2 (ESV)

If I had to summarize what God has taught me these past 20 years at QPEM it would be Job 42:2. God can do all things and no purpose of His can be thwarted. I like this verse, it's simple, short and sweet. God has a plan for QPEM and KAPCQ, I truly do believe that, and no person can or will change that plan. Look at us now, worshipping together in unity, as one body. When I first started attending the English ministry 20 years ago, I had just graduated from senior high. I was lost and I knew it. The church was not my safe haven or refuge. I always felt like an outsider, not knowing the language and customs of the church. I remember during senior high, I was moved out of an English Bible study group to a Korean speaking group so that I would learn the language. I went through the

있고, 몸은 교회에 있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교회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1994년에 영어예배가 엄태용 목사님을 지도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비로서 제가 있을 곳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소속감은 그동안 닫혀 있었던 제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영어예배의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많은 재능있고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준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제가 어떻게 그 동일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서, 이윽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엄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영어예배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우진목사님을 새로운 리더로 세워 주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사역은 더 풍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07사이에 또 다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우리는 또다시 영어예배 사역자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수습을 하기가 전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영어예배에는 분열과, 상처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가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에 속이 상했고, 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몇주 동안, 영어예배는 반 이상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리더들을 잃었고, 30퍼센트의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motions but my faith never grew. Church had no meaning for me. I was here physically but did no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 was a guest in His church. But, God had a plan and that plan saved me.

In 1994, the English ministry began with Rev. Stephen Um as the EM pastor. I finally felt like I found a place where I can belong. That sense of belonging opened my eyes and heart to hear God's words but also to partake in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There had been many talented and faithful servants in QPEM's 20 year history. Their love and sacrifice for God and the church through words and deeds showed me how I can have a relation with that same God.

My personal relationship grew and I accepted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No one likes to see change happen, especially in the church, and especially when the change is at the top. After many blessed years with Rev Um, God raised a new leader for QPEM, in Rev Francis Chang. The ministry continued to flourish and grow. Our numbers grew to almost 200 members, and we introduced a second Sunday worship service. It was easy to see why, the ministry grew. Everyone liked Pastor Francis, he was smart, sound in his teachings, people liked his preaching, very easy going and personable.

However, in 2006-2007 change occurred again and this time it was sudden and rough. We were again losing our EM Pastor, but for some reason this one was harder to handle than the previous. The resulting consequences was a ministry divided, hurt and confused. I was feeling hurt and angry. Hurt that the ministry was falling apart, angry that God would let this happen when so much good was happening. During the following weeks, the ministry had lost more than half its core leadership and over 30% of its congregation.

이 일을 통하여 저는 무엇이 사역의 진정한 능력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었을까요? 우리는 숫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 아내와 저에게 왜 영어예배에 남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영어예배의 사정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다. 5년간 4번 사역자들이 바뀌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치유의 시간들도 가끔 있었지만, 상처받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제가 이 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 교회를 떠나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으라, 남아서 내가 행할 일들을 지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목회자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간에, 혹은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하던지 간에, 또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러한 사람이나 물질에 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로 인하여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퀸즈 장로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신실한 종이며 지도자이신 김도현 목사님을 다시 그의 살았던 곳으로 돌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비전은 영어예배에 다시 한번 안정과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알게 해주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주요예배를 다시 시작함으로 알게 하였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체와 만남 예배의 중요성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시간들, 가족과의 시간들을 희생하였습니다.

It made me think about the true strength of the ministry. Were we as strong as I had thought? Our numbers may have been high, but where was our spiritual strength at? Were our members committed to the church as long as we liked the leader, the sermon and praise? Some people have asked my wife and I, why we stayed at QPEM. Many of our closest friends had left the ministry to go elsewhere. It would have been very easy for us to go elsewhere. It didn't get easier afterwards, the ministry had gone through 4 EM pastors in a 5 year period. There were some times of healing but also times of more hurt and struggles.

So why did my wife and I stayed? Simply because we felt God wasn't telling us to go. Even when our own personal feelings were telling us to go, God was telling us to stay, wait and see what I am going to do. You see, no matter how great a pastor may be, or how awesome a worship band is, or how good things used to be, if we put our hope and faith in men, they're going to let us down. God will never change, nor will His plans ever be thwarted.

So what has God done since? God has brought a faithful servant, leader and a child of KAPCQ back home, in Rev Peter Kim. Who through his leadership, and vision has brought stability and growth back to QPEM.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we grew up together in youth group or to get on his good side. But to encourage my Pastor, and in a way to say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to be disciples for Christ. To bring back the importance of prayer through our weekly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s, the importance of personal worship, fellowship through regional small groups, for sacrificing time with your family to minister to the congregation.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새로운 리더들과 섬김의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음을 특별하고 복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섬기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다리를 건너고 톨비를 내며 한주에 두 세번씩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세대에서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교회와 영어예배에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언제나 둘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같이 나아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그의 교회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과거에 얽매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함께 우리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함께 하여 주고 도와 주었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예배를 생각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에 항상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게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춘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호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 주었던 사랑과 지원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격려하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밤 자신이 그저 교회의 손님이라고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분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공동체를 끌어 안으며, 그가 준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God has also raised new leaders and faithful servants. Many of whom I am privileged and blessed to serve with and am encouraged by their sacrifice and devotion to serving Christ first. Many who, drive many miles, cross bridges and tolls to come to church 2-3 times a week, which is almost unheard of in our generation to go through great length and cost to just to come to church.

God is also bringing unity between KAPCQ and QPEM. For many years, there has always been a separation between the two. But now, we are coming together. Tonight, we worship and celebrate together, not because we're obligated to, but because we are thankful to God for his church. It may have taken 20 years for this to happen, but I am sure that it was all part of God's plan from the beginning. Let us not look to the past and dwell upon what was, but let us embrace the future knowing that God is with us. Let us continue to encourage our leaders and pastors, for they are a part of God's overall plan for his church. It was not our love for man that has saved us, but God's love for his creation. I would like to thank the church, who was so supportive during those difficult times. Rev Chang, and the Elder board, who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reassure the members that everything would be alright. For Elder Jeong and his family for their love and generous outpourings to QPEM and for always being there with us. To my parents, who encouraged me to trust in God and to just wait and see.

Maybe tonight, some of you feel like a guest in God's church. I encourage you to let God take control of your lives. Learn what it means to develop a personal relationship and worship with God. Embrace this spiritual community here and prepare to reap the blessings that God has already planned. For this is God's church and God is here, he has always been here as he wa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제가 얼마동안 오래 우리 교회를 다녔나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쌓여진 기억들이지만, 저의 제일 귀한 기억은 2013년 성탄절 예배 이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에 드렸던 온 성탄절 예배들은 참 좋았어요. 우리 구세주의 출생을 기념하고 전통적인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2013년 성탄절 예배는 특별하게 기억만 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한인과 영어 회중의 연합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교인들은 한 하나님 밑에서 연합이 된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작년 성탄절 예배 때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한 교회, 한 몸. 그전에도 특별한 날에 연합예배를 같이 했을 때도 있지만, 설교는 항상 한국어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언어를 이해 못할 때에는 같은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통역기기는 좋고 많은 훌륭한 통역자들도 있었지만 귀에 수화기를 넣을 때마다 외부인이라는 생각이 항상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성탄절 때에는 찬양과 설교말씀이 영어와 한국어로 된 것은 처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연합된 교회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김도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고 기억할만한 일이었습니다. 한인사역을 속한 형제, 자매들과 옆에 같이 앉고, 한국어와 영어로 선포된 설교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한 교회로서 다 같이 서로서로 가까이 생활하고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I never really give it much thought about how long I have been here at this church. Over 30+ years of memories and by far my fondest memory has been the Christmas service of 2013. All the past Christmas services has been great, how could you not feel good celebrating the birth of our Savior and get to sing traditional Christmas hymns. But, Christmas worship 2013 was a memorable one because it was the first ever joint KM/EM worship service. We all come to know and believe that we are united as one under God, but for the first time it truly felt that way. One church, one body. There have been other occasions and holidays where we've had joint services, but for me it's always been difficult to feel included when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Translation devices are terrific and we've had many wonderful translators, however putting in the earpiece always made me feel like an outsider in some ways. But this past Christmas, it was the first time where the worship songs and sermons were done in both English and Korean. It truly felt like we were one unified church. To see our senior pastor and Pastor Peter preach on the same pulpit was truly amazing and memorable. What a tremendous blessing that was, to worship side by side with our KM brothers and sisters, and to hear two sermons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I hope and pray that we will have many more opportunities to draw closer together as a church and to worship together as one body.





My Experience in QPEM & KM at KAPCQ 퀸장로교회에서 나의 QPEM과 한국사역에 대한 경험



홍정택

By Jonathan Hong

지난 2년 동안 퀸장로교회에서 QPEM과 한국사역을 동시에 참여한 시간이 너무나 놀랍고 좋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을 것을 알게되었고, 또한 저의 개인적인 미국 한인의 신분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퀸장로교회로 처음에 올 때에는, 한국사역과 영어사역 둘다 참여할거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날에는 본당에서 오전 10:30에 2부 예배를 참여하였고, 바로 후 정오에 QPEM 예배를 참여하였습니다.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두 군데에서 드린 예배의 찬양은 너무나 힘찼었습니다. QPEM은 에너지가 있는 현대의 찬양송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한국예배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 한국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김도현 목사의 설교말씀은 항상 저의 가슴을 치고 큰 감동을 주고, 너무나 좋은 메세지 였습니다. 김성국 목사의 설교말씀은 항상 너무나 활발하고, 전에 알았던 성경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전부터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QPEM 성경공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주일날에 교회에서 은혜받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QPEM 수요 저녁 기도회를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My time attending KAPCQ in the last two years as a part of both QPEM and the Korean Ministry (KM) has been a truly amazing and wonderful experience. I've received so many incredible answers. And I've come to realize that our Church will be used to reach out to peoples of all nations while also helping me to more fully realize my own Korean-American identity.

Coming to KAPCQ, I always planned to attend both the KM and the English Ministry. It was what I did in previous Churches I'd served at. So I attended the 10:30 a.m. KM Worship and immediately afterwards went to the QPEM Worship at 12 p.m., followed by the QPEM Bible Study on most Sundays. And what tremendous grace did I receive! The praise in both QPEM and KM was so incredibly powerful! QPEM had the modern English praise songs that really rocked! KM had the traditional Korean praise hymns! Pastor Peter's sermons always struck my heart and what an amazing storyteller! Pastor Sunggook Kim's sermons were so incredibly passionate; he always found new ways for us to look at familiar Bible passages and stories! And the QPEM Bible Study, man, so many new insights were gained, even as an "experienced" Christian. So I thought my time at Church on Sunday was enough grace for me to last a whole week.

참여해보니까, 와우!, 매주마다 이렇게 좋은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희 삶속에 엄청난 응답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한 교제와 나눔과 기도 속에서 저의 QPEM 형제들과 자매들을 더욱 친밀하게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회를 몇 주 동안에 참여를 못하는 상태로 지속되게 됐어요. 그때 시기에는 저의 삶 속에 많은 것이 어려워지고 복잡하게 되었어요.

However, after a month or so, God gave me the heart to attend the QPEM Wednesday Prayer Night Services. Wow, what an amazing prayer service week in and week out! Just tremendous and incredible answers came pouring forth in my life! It was also a precious time to get to know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at QPEM better through sharing and prayer. However, for this or that reason, I stopped attending for a few weeks that somehow turned into months. During that season, everything in my life became difficult.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를 다시 참여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와우!,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수요일 오후 기도회를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어요!

So by God's grace I made the determination to attend the prayer services again and whoa, somehow everything was restored. Now I truly had NO choice but to attend the Wed. Prayer Night! Even on those evenings where I was really late and could only attend for the last 10 minutes, it

어떤 때에는 제가 너무나 늦어서, 기도회 마지막 10분만 참여할수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가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한번은 기도회 시간에 늦은 줄 알고 차를 갖고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아이고 참나, 화요일인거 있지요. 저의 실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회 통해서 항상



큰 응답이 있었어요. 저만 이 사실을 인식하고 누린 것이 아닌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처음에 참여할 때에는, QPEM 멤버가 한 10명이 매주마다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한 반년 뒤에는, 30~40명의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려고 매주마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찬양대에 가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대가 한국어로 정통 한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의 한국에 계신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현대역사에 계신 신자들이 이런 찬송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통해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즈음에 자신에게 질문하였어요, '왜 나도 찬양대에 속하지 못하겠느냐?? 뭐가 나를 막고 있느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알아보았지요. 한 전도사님은 저가 찬양대에 참여 하려면 화요일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해야만 자격이

didn't matter, I would still go. And I'd still receive incredible answers. One time I thought I was really late and drove off in a roar to the prayer service only to realize when I got there that it was actually a Tuesday. D'oh! Yet despite my mistake, I STILL received grace from God that day! The answers were always there through the prayer service. I guess I wasn't the only one to enjoy this. Because when I first started attending the service, we had about 10 QPEM'ers attend each week more or less. Within half a year, 30-40 members showed up for prayer every single week (!). And praise the LORD, this trend has been continuing to this day.



Later on, God gave me the heart to join the KM Praise Choir. Listening to the traditional praise hymns being sung in Korean by the choir, it made me envision the Christians in Korea of my parents and grandparents' generations and even those before them. I thought that these must be the kinds of praise songs they worshiped God with in our modern Korean history. It was beautiful to imagine and think on such things as I listened to the praise choirs. Then I thought, Why shouldn't I volunteer for the Church Choir too?? What's stopping me?? Nothing! So I asked around and looked into it. One KM JDSN told me that I had to do seven weeks of the New Family classes on

생긴다고 설명해주셨어요. 그 전도사님께 저는 벌써 1년 동안에 QPEM 멤버로 교회를 참여했으니까, 새가족 모임이 필요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20년이상이나 참여했을지라도, 새가족 공부를 참여해야지만 교회를 섬길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알려주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참여했지요. 너무나 은혜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이 교회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몇십년 동안에 받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한국권들을 몇명을 우리 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들도 함께 새가족 공부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이들 중에는 저의 동생 오선일이 있었어요. 동생

이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미국 군인으로 가게 되었어요.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찬양대에 속하게 되었어요. 호산나 찬양대에서 지금까지 몇달 동안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2부 예배를 참여하면서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호산나 찬양대에 멤버로 속하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대 안에서 한국어로 주님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혜와 영광과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온 찬양대가 성탄절 특별예배에서 엘리아 오페라/뮤지컬에서 음악 파트를 감당할 것입니다.



Tuesday evenings to be eligible to join the choir. I assured the JDSN that I had been a QPEM member for over a year now, so that no such classes would be necessary for me. The JDSN assured me that even if I had attended our Church for over 20 years, I would still have to attend the classes to serve at our Church. Okay. So I took the New Family classes. And it was incredible; I was able to learn the amazing history of our Church and how God has been

using His Body here in the last several decades.

During that time, God used me to invite some Korean language-speakers to our Church, who ended up coming to the New Family classes with

me. One of these newcomers was my step-brother Sunil Oh, who received tremendous grace at our Church before beginning his stint as an U.S. Army Soldier. I've been singing in the Hosanna Choir for several months now, the same choir I used to listen to in the pews during the 10:30 Service. What a tremendous privilege, honor and blessing to be able to sing praises to our LORD in our native Korean language as part of our Church Choir! I get to be a part of the Korean Christian musical tradition that had inspired me so greatly in the past. We will also

좀 복잡한 곡이지만, 연습하는 동안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QPEM 제자훈련과 한국사역에 속한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과, 공부와, 교회와 개인적인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조절하기가 좀 도전해야 할 일이지만, 항상 제일 중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몇주와 몇달에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삶, 더더욱 큰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할수록, 삶 속에 더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고, 큰 응답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QPEM이 이제 몇년 뒤에 새롭게 독립한 다민족교회로 개척이 될거라는 소식을 들으니, QPEM과 퀸즈장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명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최고로 다양한 200여 민족이 거주하는 뉴욕시에 있는 퀸즈 후러싱 중앙에 복음 중심한 다민족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미래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하시는지 인식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족속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동네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놀라운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중대한 부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인 신분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한인 찬송 통해서, 한국사역 지도자들과 멤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저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be doing the choral portion of the Elijah Musical for our Christmas Worship Celebrations. It's definitely been a challenging composition to learn, but it's been an extremely rewarding experience and the music is simply marvel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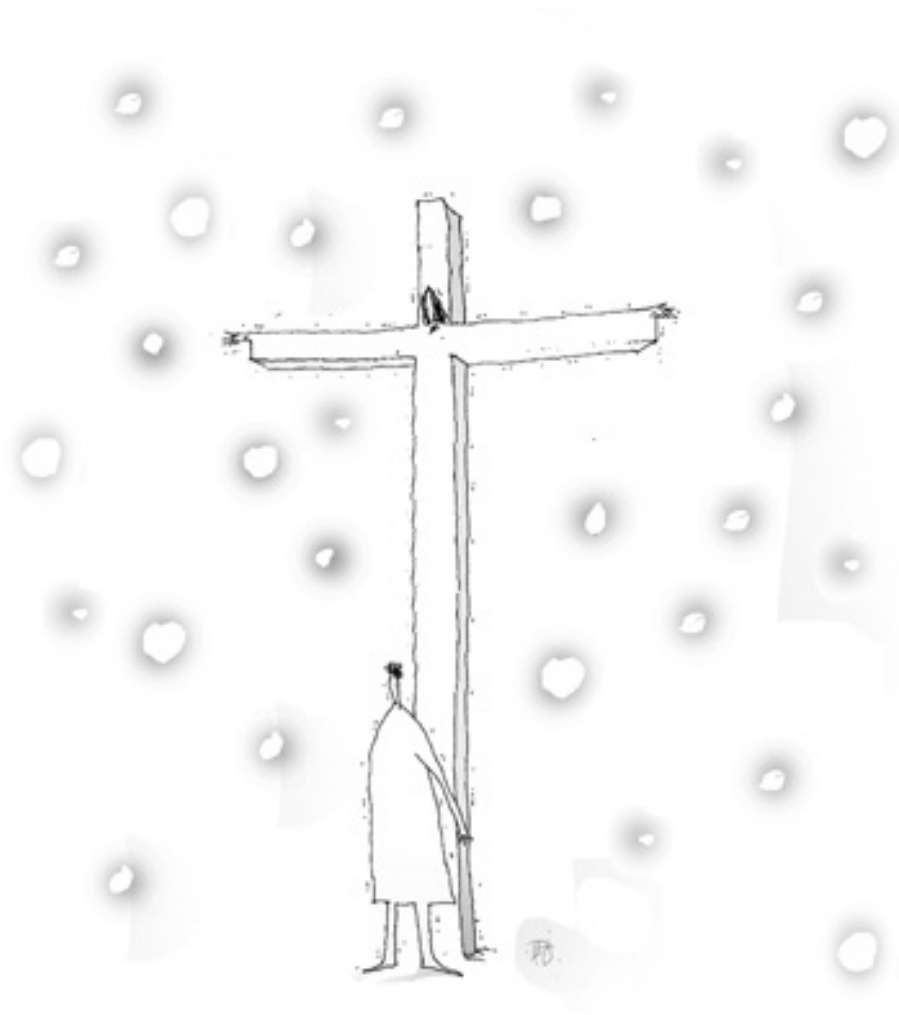
I was recently able to begin Discipleship Training in QPEM as well as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on the KM side. It's been challenging juggling my work, study, Church and personal schedules. Yet God gives me the grace to always get the most essential things accomplished. And to be honest, in the last several weeks and months, it's like I'm living a whole other new life, far more purposeful, meaningful and eventful than ever before. The more I get involved in various ministries at Church, the more fruits I see in my life and the more answers I naturally receive.

With the announcement that our new church building will be in essence a new church plant, I think everything is coming full circle for QPEM and KAPCQ as a whole. To have a truly Gospel-centered Multicultural Church in the heart of Flushing, Queens, New York City, part of the most ethnically diverse area in the entire world, with over 200 ethnic groups represented here, I think that says so much about the vital importance of our Church and how God wants to use us in the future. I believe our Church will definitely be used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reaching out to peoples of every tongue, tribe and nation on earth, and to be His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we can do it all right here in our very own neighborhood! How awesome is that! And how incredible of a calling we have!

And yet, as epic and world-encompassing as that may be, at Church I can also get in touch with my original Korean side, through the Korean praise hymns, through fellowship with the Korean-speaking leaders and members, and even

제가 교회에 어떻게 더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민족에게 사역을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참여하고 이를 수 있는 교회.
또한 저의 한인 정체성을 더 잘 알수 있는 교회.
이 것이 제가 퀸즈장로교회를 다녔던 너무나 소중한 지난
2년에 QPEM과 한국 사역을 동시에 참여하는 저의 경험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through the extremely delicious Korean food they serve
in the church cafeteria (the BEST deal in Flushing!). So
what more can I ask for in a Church, one that helps me to
be part of the God-given work of proclaiming the Gospel
and ministering to all different people groups, while also
keeping me deeply in touch with my own Korean identi-
ty as well. This is what my experience at QPEM and KM
has meant for me during my precious time as a member
of KAPCQ. I'm truly excited about and eagerly looking
forward to how God will use our Church throughout the
future!



Discipleship at QPEM

제자훈련



신성재 집사

By Deacon David Shin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도록 인도해 왔습니다. 영어예배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마음의 찢림을 받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김도현 목사님께서 4년 전 처음 오셨을 때에 영어예배는 여러 시험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제자를 삼기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잘 무장되어 있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가운데 “Life-on-Life Missional Discipleship,” (생명을 생명으로 선교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가장 좋다고 판단하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 Matthew 28:19-20

These were the final words that Jesus Christ gave to His disciples in Matthew before He ascended to heaven. Also known as “The Great Commission,” for centuries these words have been guiding churches to go out and make disciples for Christ. QPEM was no exception, and we were convicted to obey Christ in this. What we did see unfortunately, when Pastor Peter Kim came to us four years ago, was a young congregation that had been through very trying times. We were immature spiritually and unequipped to make disciples.

Seeing this need, we sought out ways to spiritually mature and equip our members to take on the task of doing God’s kingdom work. This led us to a discipleship model called Life-on-Life Missional Discipleship, first developed by Pastor Randy Pope at Perimeter Church in Atlanta, Georgia, and refined for more than 30 years there.

게 되었던 점은 강도 높은 성경공부였습니다.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아우르고 있으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공동체의 각 일원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나뉘감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회복 가운데 만들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양육하여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김도현 목사님과 다른 영어예배부의 리더들이 페리미터 교회로 제자훈련 세미나로 갔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제자훈련 (LOLMD)의 개념들을 배웠고, 돌아와서 가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그 시작을 영어예배의 리더들로부터 시작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제자훈련의 여정을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The enticing aspect of this model is that it is more than just intense Bible study. It encompasses the entire person, focusing on life transformation through being involved with each other in all aspects of life, with emphasis on multiplying God's kingdom by becoming a disciple-maker who goes on to make more disciple-makers.

We began our journey at QPEM when Pastor Peter and a few other members flew down to Perimeter Church to attend their discipleship seminar. We were introduced to the concept of Life-on-Life Missional Discipleship (LOLMD) as described above, and when we got back began planning for the start of the discipleship journey groups in the fall. Over the summer we launched an ignition group, encompassing the leadership at QPEM, to introduce LOLMD and spend time praying and preparing for the initial journey groups.



Discipleship Leadership Clinic
at Perimeter Church in Atlanta, GA

이 소중하고 중요했던 제자훈련의 준비 기간 동안 배우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하였던 모든 준비와 모든 기대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9명으로 시작하였던 모든 인원이 모두 다 매주 있는 말씀 훈련,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훈련, 기도와 선교의 마음을 다지는 훈련들을 일 년간 잘 받았습니다. 매일 개인적인 예배의 훈련을 하였으며,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 선교와 긍휼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예배의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반의 숫자는 네 반에서 여섯 반으로 성장하여서, 현재 남자 16명, 여자 14명 총 30명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이 제자훈련반을 통하여 보여 주셨고, 우리는 이 제자훈련반이 영어예배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지키는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What we learned during these early crucial days is that despite all of our planning, and various expectations of who would be involved, God showed that He was in control, and that He was the one who would be directing all of this at QPEM. We started with two men's and two women's groups; a total of 19 members. All 19 went through the first year, meeting throughout the year for study in God's word, equipping one another, being accountable to one another throughout the week, focusing on being missional, and praying for one another. We immersed ourselves in daily personal worship, had times of association outside of church, did outreach and mission projects together, and ultimately saw each others' lives changed by God through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over the course of the year.

It has now been one year since the start of discipleship at QPEM, and the number of journey groups has grown from 4 to 6, now with 16 men and 14 women, a total of 30 members. God has shown his grace and love to us through these groups, and we believe that these LOLMD journey groups will be at the core of maturing and equipping God's people in QPEM, so that we can become one body that “make(s) disciples of all nations...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Jesus Christ has) commanded (us).”



QPEM Discipleship and Men's Group Ministry

남전도회 제자훈련



윤지현 집사

By Deacon Jay Youn

반년정도 전에, 김도현 목사님께서 저와 몇몇 다른 영어 예배 멤버들을 불러서 제자훈련에 동참하도록 물어보셨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에 관하여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지만,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것이 만약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제 아내에게도 제가 제자훈련을 참가할 때에 아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도 시간과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 저와 제 아내는 제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자훈련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훈련반의 첫 해를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2년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안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

About a year and a half ago, Pastor Peter had asked me and a handful of other members in our congregation to be a part of a discipleship group. I had an idea of what a discipleship group was about but had some concern about joining the group because of the time and sacrifice it would take to fulfill the commitment. I had to pray and ask the Lord if this was the path that He wanted me to follow. Also, I needed to ask my wife because of the time commitment involved and the sacrifices she would have to make as well. After praying and discussing with my wife, we both knew that my spiritual life had stunted and that the Lord was calling me to join a discipleship group.

I have now completed the first year with my discipleship group and look forward to the remaining two years. It is tough to explain but for the first time in years, I feel that I have resumed my walk with the Lord. There is much that I have learned. The one thing that I realized that I was missing in my life was accountability. I believe because of inherent sin, it was difficult for me to grow and challenge myself as a Christian. I realized that through studying the word and sharing my thoughts with the discipleship group, other members in our discipleship group had similar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매번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7).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명을 가진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며 거의 삼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서로와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배운 것들을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 가운데 저는 조금씩이지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훈련에 참가하여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대에, 저는 영어예배를 다니고 있는 John Lee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어예배내의 형제들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만약에 형제들이 같이 언제 한번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고 저녁식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John Lee는 저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concerns. I am constantly amazed by how God knows us. I am reminded that he knows us because we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enesis 1:27). Christ knew that in order for his message to be hear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it would require people to deliver his message. He knew it would require people who were convicted to deliver his message. He knew conviction would be the tool that would ensure his message would be heard in all corners of the earth and through generations. Conviction can change a man's heart and also bring about change in the world. He knew that the only way to develop conviction was to spend intentional time with people. He purposely selected individuals for his discipleship and spent approximately three years of his precious time with them. I have learned through the discipleship group, it is about spending intentional time with each other in learning the truth about Christ's teachings, equipping ourselves with his teachings, being accountable to each other to constantly apply his teachings, and using our lives as an example to witness to people the good changes that can happen by living a spirit driven life. The changes that have happened in my life have been subtle over the last year. I haven't noticed the changes but I know changes have been happening.

Shortly after I had joined the discipleship group, I was talking with John Lee, a member in our congregation. He mentioned to me that he felt that the older brothers (like us) in our congregation didn't know each other that well and it would be a great if we could somehow spend time outside of church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I asked him if he would be interested in asking some of the brothers like us in our congregation to meet for dinner one night to spend some time outside of church. He reached out to a handful of brothers who shared the same feeling and we organized a time and place to meet.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영어예배 형제들이 처음 만났던 날은 5명 정도가 모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날, 어떤 한 형제가 자기의 연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머를 섞어가며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그것은 그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중독 수준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케이블 TV를 아예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we had five brothers attend. It was a fun night and it was great to learn personally more about each of them. Leaving names out, I remember one member comically explained that he was watching a lot of soccer on television and that it was becoming an obsession. He mentioned that he had prayed to God about his concern and eventually cancelled his cable subscription. After sharing a laugh with him about his story, it allowed the rest of us to open up and share things that were happening in our lives.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어예배는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착실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한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산돌 같이 쓰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It is always amazing to see God's plan unfold. Over the past year, the group has grown organically. Through word of mouth, we had additional brothers come and have steadily seen our dinner gatherings grow from initially five brothers to approximately ten to fifteen brothers each time we meet. For me, it is truly amazing to see what God is doing in our congregation. I am reminded of 1 Peter 2:5 that Christ is building his church using us as his living stones.

지나고 나서 보니 지난 한해는 저에게 큰 여정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참석하고 또한 형제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며

In hindsight, the past year has been a great journey for me. Joining discipleship and also attending the dinner gatherings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has helped me to realize that this was all part of God's plan. In our society, it is looked down upon to say that we are not in control of our lives but rather, that we should in control our own destiny. I firmly believe that only the spiritually blind can say that they are in control of their lives. As a Christian, I believe that God has already created a plan for me and that all I need to do is have faith and follow His plan.



QPEM College Ministry 대학부



민정근 전도사
By Pastor Brian Min

The enticing temptation of our day is to think that we can do life on our own. With social media, we trick ourselves into thinking that we have invested heavily into the people around u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our addiction to social media only furthers our isolation from one another. When first talking to Pastor Peter, we both agreed that we needed to build a vibrant community for the college group and young adults. We believe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community in the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As Christians, we need people to walk with us to challenge us, admonish us, and to encourage us on our journey to becoming faithful followers of Christ.



When I first came to serve the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the students and I wanted to find our calling to God's plan for us. For this reason, we read through Francis Chan's Crazy Love. We read this book together so that we can better grasp our identity in God's crazy love for us. After finishing Crazy Love in the spring semester, we went on many outings in the summer including hiking, miniature golf, and going out to eat. We were able to incorporate newcomers through these outings and they soon became members and even began serving in our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In building a community, we wanted to ensure that the foundation of our community be the Word of God. We were not content with being a "fun" group or a "close-knit" group, but we desired to be a Christ-centered



group. For this reason, we selected and trained leaders to lead small groups for this upcoming year. We formatted our small group time so that we could have bible study together and have a time of accountability. We have since been going through the gospel of Mark this semester. For accountability, all the small groups have started an accountability group chat on KakaoTalk to ensure that everyone does their QT's during the week. With all of this going on, we have seen our small groups grow spiritually and numerically. Many members have been much more consistent in doing their daily QT's.

As a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we still have much room to grow. We are learning how to serve and how to be hospitable. One of the weaknesses in the past with our group is that we had difficulty retaining many of the freshmen that came to QPEM. For this reason, we decided to bridge the gap between QPEM and the Senior High Students by planning a Career Night for them. Many Senior High Students came out and many QPEMers (including the college and young adult students) served in sharing their guidance on finding our career path in Christ. We built relationships that night and we hope to continue to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in Senior High so that we

can make them comfortable here at QPEM. Pastor Peter, Pastor David, and I are all committed to doing many joint worships and activities together so that we can better welcome those students who come up to QPEM! As a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our hope is that we can practice what we see in the Bible by becoming a serving group and a hospitable group.

We hope that you continue to pray for our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y. God has been faithful in bringing our group together and centering us in the Word. As we learn and practice what it means to be a serving and hospitable group, please continue to pray that we would grow spiritually in this way.



QPEM Young Adults Ministry 청년부



By Christine Saehee Oh

QPEM Young Professionals Ministry- "Creating a support network for our young adults through fellowship and Spiritual Foundation". The purpose of the Young Professional group is to ensure that our members who have recently graduated from College and transitioning into Adulthood via careers and marriage, are able to have a spiritual and biblical based network to support one another during this stage in life.

As someone who grew up in KAPCQ, I have to say there are so many positive experiences growing up here, one of them being a member of QPEM.

Our congregation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get plugged in and grow in God's kingdom. One of them being our young professionals ministry. As our congregation grows our members have grown from one life stage to another. We have realized here at QPEM that our college students have become young adults and God has been bringing many of His children to our church. We saw that the young adult groups who were transitioning out of college into adulthood needed a spiritual network for fellowship and support. Thankfully God has done that for us. He has been able to bring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can spend time together to get to know each other as well as bond. Many people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fellowship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their personal lives. We saw that this was an important

outlet for many young adults and working professionals. As our church grows we plan to take our young professionals group further to spend time in biblical foundations.

Our young adults are a vulnerable population and we can be easily tempted by sin and distractions.

I pray that starting a small group will allow for young adults to get to know each other on a deeper level and be the future leaders of our church as well as the role models for our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Many of our outings have been dinners in the city, ziplining, six flags, trips to the Museum, and food fairs. Each event has been memorable and enjoyable for me. I hope that we continue to grow in God's grac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QPEM Mothers Ministry

“Mommy & Me”

자모 기도회



By Mary Cho

Standing by the window with my fingers holding the curtain to one side, I look out and watch my mom from behind as she rolls her luggage down the courtyard path with the accompaniment of foliage brushing up against her shoes. She makes her way out the gate then into the cab. As I am watching her, I try hard to resist the tears welling up, but to no avail the flood gates open, obstructing the final view of my mom.

It is not often that my mom visits me from California, but when she does it is bitter-sweet. It is so sweet because I am reunited with my dear mom, from whom I was born and raised, however, so bitter, knowing that the physical unity is only temporary. Although it is scarce that we are able to spend time in each other's physical presence, there is a stronger bond that keeps us connected beyond the space time continuum. The bond is in the understanding that we rely on our Heavenly Father to take care of us.

There are many things I remember about my mom. She busily drove to different places to keep up with all of our schedules, cooked meal after meal, cleaned constantly, got frustrated with our misbehaviors, etc . Now that I am a mom, the one thing that stands out from all that my mom did is the fact that she was a woman of faith, leaving especially the things that she could not control in God's hands...

As a mom, I believe that one of the greatest things I could do is to instill a life of faith in my children through my words and actions. Yes, definitely easier said than done. However, the mothers at QPEM have demonstrated their desire to live a life of faith especially when coming out with their kids to Mommy & Me meetings where we praise, pray and fellowship together.

In the midst of this busy life, the mothers set aside and devote time to come before our Heavenly Father, alongside our sisters in Christ, and we witness our lives continually being transformed. When mothers are being transforme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positively affects our children.

The moms of QPEM are on a mission to continually live renewed lives and someday, as our children grow, they will confidently testify to live a life of faith so that they can pass that on to their own children.



QPEM Small Groups

구역모임



윤도리 집사

By Deacon Dorhee Youn

QPEM offers many ways to have fellowships with fellow members of the congregation. One of the ways is by attending the Small Group meetings that are held once a month. The first time I attended one of these meetings was about ten years ago. I do not remember exactly how the groups were divided, but I remember that the group I joined was comprised of newlyweds, young children and expecting parents just like me.

Over the years, the small groups at QPEM have taken many shapes and sizes. More recently it has changed to become a regional group. We have the Long Island SG, Queens SG and NYC/NJ SG. The meetings are normally held on the second Sunday of every month at the group leader's home or any other member who opens up their home for that month's meeting. Each group has a mixture of college students, young professionals, young parents and families with children, even some students who are soon to join the college group. This diversity in our groups brings many perspectives into our discussions.

Our small groups truly reflect the diversity and maturity of our congregation. QPEM used to be a young congregation, both in age and spirit. Fun outings needed to be booked to attract more participants to the gatherings. However, the congregation has become a more dedicated and committed group. Of course, we still love to come together every month to share good food, laugh and occasionally go out on fun outings. However, there is something more that has grown in each group. A true sense of care for one another, we share our worries and pray for each other. We support each other when we feel spiritually weak. This does not end when the meeting ends. We continue to pray for each other during the following month and we get so excited whenever we hear that God has listened to our prayers.

As weird as it sounds, the small groups allowed us to come together as a true spiritual family. This strong relationship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and a feeling of belonging. This is the rock where Christ is building his church at QPEM. Together as a family, we worship God and Jesus Christ in true spirit and truth.



QPEM Praise & Worship

“Spirit & Truth”

경배와 찬양



By Sarah Kwon Lee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Romans 12:1

I believe this verse truly describes what a true worship should be – to offer our lives as a fragrant offering to our loving heavenly Father. The QPEM praise team (Spirit and Truth) is on the road to becoming more passionate and joyous in leading the congregation to worship as a response to His love. We have 12 members including 4 vocalists, 2 electric guitarists, 2 keyboardists, 2 bass players, a drummer, and a sound technician. And they are already gifted musicians but we are learning to use those gifts and talents towards worshipping God as one team, as one body.

We are keeping each other accountable in reading the Bible everyday, and we are praying together on every Sunday morning for QPEM leaders, congregation and our greater church, KAPCQ. Many of our team members are also regularly engaged in other areas of QPEM as well – from QPEM fellowship gatherings to regular Bible studies with oth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e believe QPEM with KAPCQ, in all their various aspects, is ultimately one unit, one ministry, and one church under Christ Jesus, and we at praise team are striving for such unity daily. We are truly blessed to be a part of the worship ministry where we can demonstrate in all areas the same love and grace that Jesus freely gave us!



2014 QPEM Fall Retreat

가을수련회



By Jessica Bang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Matthew 16:18

With the empowering theme "Christ Will Build His Church," QPEM embarked on its annual fall retreat with the largest group of total attendees in its history—152 members! Prayer and preparation resulted in a retreat where God provided QPEM with an invaluable time of worship and fellowship.

The guest speaker, Pastor Steve Brown, preached on the promise of how "Christ Will Build His Church" Friday night, which focused on our theme verse, Matthew 16:18. On Saturday morning, Pastor Steve preached on how "Christ Will Build a Worshipping Church." QPEM was reminded of how the gospel is not only a call to salvation, but also a call to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astor Steve shared the John Piper quote,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to help us grasp the significance of worship and being worshippers in Spirit and Truth in our daily lives.

In our small group discussions that afternoon,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worshipping God" versus "worshipping worship". Worshipping in Spirit and in Truth

is God-focused, not God's-creation-focused. We were further challenged with the Saturday evening message, which focused on how "Christ Will Build a Witnessing Church." The power, the commandment, and the promise of the Great Commission invigorated us to be witnesses





QPEM 영어예배

to things of the past, the things of the future, and to things of the present that pertain to our Christ's sacrifice and return.



Pastor Steve reminded us that “Christ Will Build a Welcoming Church” during Sunday morning worship. Pastor Steve reminded us that it is God’s command to every Christian to pursue hospitality (a love for strangers) through Hebrews 13:1-3, and that it should be pursued with a glad heart (1 Peter 4:9). In our small groups, we considered some concrete ways to turn good intentions into intentional hospitality through ministry in our church and in our individual lives. This time of vocalized introspection helped QPEM be more aware of its mission to its members and to its neighbors.

Sunday also consisted of an engrossing seminar and Q&A session with Pastor Steve on God’s unconditional election (Acts 13:48). The evening worship message taught us how “Christ Will Build an Equipping Church.” Pastor Steve stressed on how God wants us to grow in God’s grace, and that the purpose of leadership in the body of Christ is to equip its members until Jesus comes back. We were reminded that our pastors, elders, and deacons are God’s gift to the church (Jeremiah 3:15), and the growth of the church requires a proper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 and the congregation. To be better equipped is to have a thriving relationship with the equippers. Everything comes around in full circle when we are reminded of how important it is to be one body and one Spirit—the equippers and the equipped worshipping and witnessing together, in their own unique ways.

The retreat fostered fellowship as well as learning through many activities throughout the days and deep into the nights. Group activities included Family Feud, a scavenger hunt, sports, hiking, and midnight snacking. The children of QPEM were also engaged in Spirit-filled worship and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throughout the retreat through the guidance of two children’s pastors, Pastor Sandi Yu and Pastor Lisa Chong. God is truly bringing together our family at QPEM!



This year’s retreat was, without a doubt, a huge blessing. Christ’s promise and power to build His church resonate in our hearts even after returning home. QPEM has come back as equipped as ever, and we will continue to equip ourselves with God’s grace and Truth. Our role as worshippers, witnesses, a welcoming church, and the equipped is vital to our growth as a church that stands as one body and one Spirit. And all for the glory of our God! Christ will build His church, indeed.





2011 QPEM 수련회



2012 QPEM 수련회



2013 QPEM 수련회



2014 QPEM 수련회

QPEM- The New Church

Building and the Future of QPEM

새 교회당과 QPEM의 미래



황태현 집사

By Deacon Tae Hyun Whang

얼마전에 김도현 목사님이 QPEM 본당에 들오셔서 전해 야할 큰 소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방금 전에 우리 교회가 건너편에 있는 위치에 새로운 본당을 짓고, 그 새로운 교회당이 QPEM 위해서 세우는 건물 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러싱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당은 아가페 유치원과, 커뮤니티 센터와, 카페와 체육관도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새 교회당이 얼마큼 큰 축복일건지, 우리 QPEM 멤버들이 후러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PEM을 속한 모든 이들은 새로운 교회당 대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집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너무나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장소를 걸으면서 보셨습니다. 교회당이 지어질 땅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영어사역 성도들을 항상 사랑하고 공급해주는 본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QPEM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본당과, 유치원과, 커뮤니티 센터와, 카페와 체육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동네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Earlier this year, Pastor Peter Kim came into QPEM and said that there was a huge announcement. Reverend Seoung Kook Kim had just informed him that our church was going to build a new building across the street and it would be the new church building for QPEM. The new church building would also have the Agape Nursery School for pre-kindergarten children, a community center, a café and a gymnasium, all to serve the Flushing community. What a blessing this new church building would be, for the current members of QPEM to grow as a community of God's people, glorifying and serving Him in Flushing.

Everyone at QPEM was very excited about the new church building. The deacons and leaders of QPEM took a tour of the site, which was conveniently across the street. As we surveyed the five lots where the new church building would be built, we offered up prayers of thanksgiving. We gave thanks to God for providing the English congregation with a loving and supporting mother church. We prayed that God's vision for QPEM would be our vision, and that through the new sanctuary, nursery school, community center, café and gymnasium, our church will be able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people from

1980년도의 1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교인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을 지으려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세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할 때에 그와 똑같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저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게 하려고 수고와 공급을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격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당에서 영어사역 속한 교인들이-한인배경 갖고 있던지 어느 민족을 속하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고 다음세대가 정말로 그런 발걸음을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l nations that reside in our neighborhood. In the 1980's, I witnessed the first generation build our church. The members gave their time, talents and treasure to build the church. It was plain for all to see that our church was built by those who truly loved God and wanted to build a sanctuary to worship Him. Then I witnessed the same dedication, hard work and sacrifice, as our church built the educational facility. Again, it was truly inspiring to see the members of our church give so much so that the children would have a place to worship God and to learn about his love for his people. With the new church building, I can see the next generation taking the next step, so that the members of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whether they are of Korean descent or any other nationality, can praise and worship God. What a blessing!



QPEM 영어예배

새로운 교회당을 세우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 새건물의 모습이 어떻게 생길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건축가가 아름다운 본당을 디자인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예배당일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돌리는 곳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과 커뮤니티가 환영을 받는 곳일 것입니다. 그 것의 큰 목적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I am filled with anticipation as our church prepares to erect the new church building. I'm not quite sure what the new building may look like, but I am sure that the architect will design a beautiful building in accordance with God's plans. It will be a place of worship, where God will be praised and worshipped, a place where little children can be educated and a place where the community will be welcomed, all with the goal of spreading the good news.



QPEM의 미래

우리 교회의 40주년과 QPEM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영어 사역예배에서, 김도현 목사님이 모든 분들을 일어나서 서있으라고 하셨어요. 이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녔으면 계속 서있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교인들 몇 명이 앉았어요. “1년 이상 다녔던 분들”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몇 명 더 앉았습니다. “5년 이상,” 그 다음에는 “10년 이상,” 그 후에는 “20년 이상” 그리고 또 “30년 이상” 그때에는 우리 성도가 거의 다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38년까지 올라갔을 때는 좀 나이 들

The Future of QPEM

During the English congregation service for our church's 40th anniversary and QPEM's 20th anniversary, Pastor Peter Kim asked everyone to stand up. Pastor Peter then asked congregations members to remain standing if they were at our church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a few members sat down. “More than one year,” and several more people sat. “More than five years, more than ten years, more than twenty years, more than thirty years,” and

은 QPEM 멤버들 4명이 계속 서있었어요. 앉아있었던 대부분 성도들을 제가 보았어요. 어린 자녀 가진 30대 부부들이 있었고, 20대 싱글인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있었고, 퀸즈장로교회에서 성장하였던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4년에 개척할 때에 대부분 QPEM 멤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QPEM 멤버들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QPEM 멤버들 중에 부모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중국, 대만,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컬럼비아, 푸엘토 리코, 파라과아이, 캐나다와 필리핀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은 QPEM 멤버들은 후러싱과 퀸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인사역과 비슷하게, QPEM 멤버들은 뉴욕 수도권 전체와 이 지역 넘어서도 거주합니다. 멤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롱아일랜드, 스테튼 아일랜드, 웨스체스터, 뉴저지와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공부나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서 왔는데, QPEM 멤버들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QPEM 멤버들은 각 다양한 인생단계에 있고, 다양한 곳에서 왔고, 다양한 곳에서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로 왔지만, 우리 멤버들의 공통점과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QPEM (Queens Presbyterian English Ministry)이 한인이 아닌 배우자로 부부인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려는 이유로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ES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것은 English Speaking Ministry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사역으로 자연히 가게 됐습니다. 단순한 이유는 제가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by then, the vast majority of our congregation members were seated. By the time we reached thirty-eight years, four of the older QPEM members remained standing. I looked at the vast majority of members who were sitting. There were some married couples in the thirties with young children, some single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some college students, some who have grown up at KAPCQ. It occurred to me that most of QPEM members were not born when our church was founded in 1974.

The majority of QPEM members are Korean Americans. Some were born in Korea, but most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QPEM members whose ancestors were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Taiwan, Cuba, Argentina, Brazil, Columbia, Puerto Rico, Paraguay, Canada and the Philippines.

Geographically, many of QPEM members live in Flushing and in Queens. However, as with KAPCQ, QPEM member reside all over the metropolitan New York area and beyond. Members come from Manhattan, Brooklyn, the Bronx, Long Island, Staten Island, Westchester, New Jersey and Rockland County to worship at QPEM every Sunday. Some have come from California and Oregon for school and work and have become mainstays at QPEM. Although QPEM members are at different life stages, come from different places, live in different places and come from diverse cultures, the common thread among our members is that we love God and we seek to praise and worship Him.

Twenty years ago, QPEM (Queens Presbyterian English Ministry) was started so that KAPCQ members with spouses who were not Korean had a place to worship. It was first called, "ESM", which stood for English Speaking Ministry. I was first drawn to the English Ministry, simply because I understood English better than I understood

QPEM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를 이해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고 머무르게 됐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하게 나이가 좀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한인교회에서 자랐지만,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많은 한인들처럼, 저는 한국말로 선포되는 설교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저는 한국어로 된 설교 안에 있는 뉘앙스와 세부 사항을 캐치 못하고, 다른 때는 포인트를 완전히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1996년 당시에, 부모님이 제가 한국어로 된 성인예배로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저는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저에게 QPEM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QPEM으로 돌아온 후에는, 제가 망설임 없이 증거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설교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저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Korean. Worshipping at QPEM also gave me a sense of belonging in a community that empathized with me, as there were other brothers and sisters who grew up in a Korean church, but had difficulty worshipping in Korean.

As with many Korean Americans who grew up in the United States, I do not fully understand sermons that are given in the Korean language. At times, I miss the nuances and subtleties of what is being preached and at other times, I miss the point altogether. Nonetheless, in or about 1996, when my parents told me that I should come back to the Korean "adult service", I obeyed. In 2007, Reverend Chang asked me to go back to QPEM. Since going back to QPEM, I can say without reservation that being able to fully comprehend the sermons, my faith grew tremendously.



우리 자녀들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의 첫째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이 더욱 쉽고 보람과 열매가 있는 사실입니다. 본교회의 사랑과 권고를 갖고 QPEM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고 믿음적으로. 선교사명을 가진 QPEM의 비전은 한인 커뮤니티만이 아니고 온 커뮤니티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QPEM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서 QPEM이 쓰임 받게 기도합니다. 또한 퀸즈장로교회와 QPEM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선교로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 위한 하나님의 사랑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with our children, English is their first language and worshiping in English will allow them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praise the Lord, to grow spiritually and to mature as disciples of Christ. With the love and support of the mother church, QPEM has been able to grow, not only in number, but in faith. The vision of QPEM, as a missional church, is not only to reach out to the Korean community, but to the entire community.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grow QPEM and use QPEM to further his kingdom; that KAPCQ and QPEM will be able to glorify God, go on missions to spread His word and teach ou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God's love for his people.



편집을 마치며...

이무근 장로

‘불혹’ -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시기, 하나님께서 저희 쿼츠 장로교회에 불혹의 나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기념하고자 40주년 아가페에 우리들의 받은 은혜와 기도와 꿈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윤원상 전도사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진리 안에 다시일어나리라.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즐거워하리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주년의 비전을 주신 사랑 안에 다시 축복받으리라. 원고 청탁과 모집을 하면서 수고하신 아가페 편집 위원들, 사진을 정리해주신 사진부원들, 원고 청탁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보내주신 성도님들, 모두가 내 일 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40주년 특집 아가페가 탄생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40년, 앞으로의 40년의 비전을 향해 달려 나가는 우리 교회에 ‘다시의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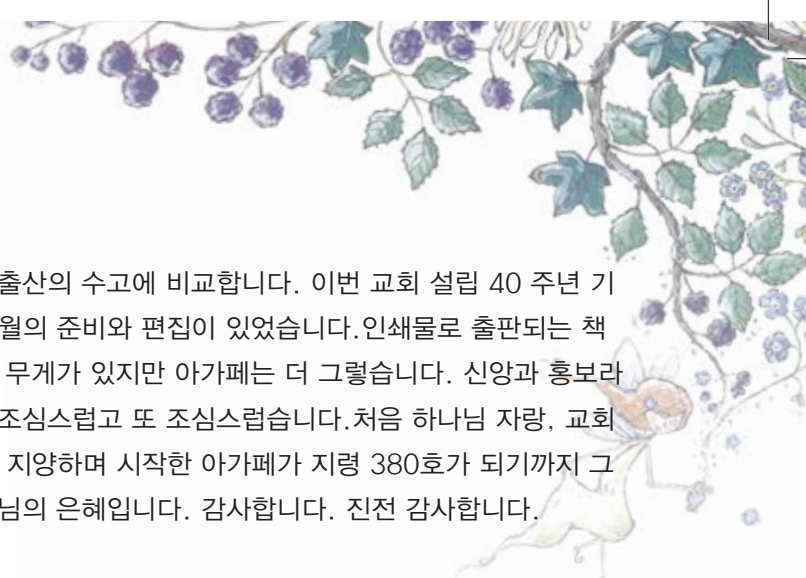
정혜경 권사

할렐루야!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12년째 아가페와 함께하며 성도들의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40년을 힘차게 전진하며 더욱 풍성한 감사와 축복의 간증이 넘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아가페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부영 전도사

축복이 흐르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 사랑의 고리로 묶여진 하나님의 지체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 지난 세월동안 받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들, 아름다운 마음들과 헌신들이 모여 아가페 40주년 특집호가 탄생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에 바탕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위에 세운 신앙의 글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묶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고들을 정리하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고 도전 받은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채영주 집사

종종 책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출산의 수고에 비교합니다. 이번 교회 설립 40 주년 기념호 아가페가 그렇습니다. 10개월의 준비와 편집이 있었습니다. 인쇄물로 출판되는 책은 전자 출판과는 또 다른 책임의 무게가 있지만 아가페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과 홍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라는 목표를 지양하며 시작한 아가페가 지령 380호가 되기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전 감사합니다.

채현주 집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40주년 아가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에 다시한번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원고를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참진리와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사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고백속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그이후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나라에 대한 꿈과 vision을 볼수 있었습니다.우리를 향해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이들에게 전하고 그열매를 나누는 "증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아가페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정민영 집사

40 주년 특집 아가페! 특집이란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더불어 ' 40 ' 이라는 숫자가 주는 깊이와 무게감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나온 40 년과 앞으로의 40년을 담아내기 위한 신중한 노력이 이번호에 담겼습니다. 은총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 아가페를 발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수진 자매

가장 힘들고 연약할때 제게 강함 되시는 주님. 제게 보배같은 퀸즈장로교회에 오게하시고 40주년 특집 아가페에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